

2024 서울시민 먹거리조사

심층 분석 보고서

2025. 1.

일 러 두 기

- ◆ 『2024 서울시민 먹거리조사』의 보고서는 총 2종으로, 기초 분석 보고서와 심층 분석 보고서로 구성됨.
 - ◆ 『2024 서울시민 먹거리조사』의 원시자료와 기초 분석 보고서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https://mdis.kostat.go.kr>) 및 서울열린데이터광장(<https://data.seoul.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심층 분석 보고서는 기초 분석 보고서와 함께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https://fsi.seoul.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 ◆ 관련 문의: 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 (02-2133-4738)
-

요약

❖ 본 보고서는 일반 가구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서울시민의 식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된 「2024 서울시민 먹거리조사」의 응답자 총 3,435명의 원시 자료를 심층 분석한 결과와 이에 기반한 서울시민 대상 식생활 정책에 대한 제안을 담고 있음.

❖ 서울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식생활·영양 정책, 권역별 식생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전환 권장

- ‘서울시민의 권역별 식품환경만족도 및 식생활 특성’(제 2장)을 주제로 분석한 결과, 도심권은 전반적인 식품환경만족도가 가장 낮으며, 신선하고 다양한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수용성 만족도가 특히 낮은 지역으로 건강한 식행동 실천이 미흡하고 패스트푸드 및 배달·편의점 음식 의존도가 높음. 동북권은 편의성 측면에서 식품환경만족도가 낮으며, 음식점, 배달, 편의점 음식뿐 아니라, 가당음료와 단맛 간식 등 가공식품 의존도가 높은 특징이 있음. 서북권은 식품비 부담이 가장 크며, 식품비 부담으로 인한 식생활의 질 저하가 우려됨. 서남권은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먹는 균형 측면의 식생활 수준이 미흡하며, 과일·채소 등 신선식품 섭취율이 낮아 영양 불균형 위험이 있음. 동남권은 식품환경만족도가 대체로 높지만 가격적·정성 측면의 만족도는 낮은 지역으로, 채소 섭취율이 높고 배달·편의점 음식 의존도가 낮아 건강한 식생활 유지 가능성이 크지만, 단맛 간식 및 국물음식 섭취가 많아 나트륨과 당류 과다 섭취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따라, 권역별 맞춤형 식생활 개선 정책이 요구됨. 첫째, 식품환경 개선을 위해 도심권에서는 편의점 등 소규모 상점에서 신선식품 판매를 확대하고, 동북권은 이동식 시장과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을 통해 접근성을 높여야 함. 둘째, 서북권을 중심으로 건강식품 공동구매 플랫폼 운영, 공공 유통센터 확대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서울시 물가정보 서비스 시스템을 개선하고, ‘서울형 공공 마트’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음. 셋째, 건강 식행동 장려를 위한 교육 및 캠페인을 강화해야 함. 도심권과 동북권에서는 패스트푸드 및 가당음료 섭취를 줄이고, 서남권에서는 채소·과일 및 유제품 섭취를 늘릴 수 있도록 맞춤형 캠페인 추진이 필요함. 넷째, 현명한 외식 및 간편식 선택 지원을 위해 도심권과 동북권에서는 편의점 건강식 옵션 확대와 배달 앱 건강 메뉴 추천 기능 도입이 필요하며, 음식점 영양정보 표기 확대 및 건강 메뉴 개발 지원도 추진해야 함. 마지막으로, 식품환경의 변화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 정책을 수립해야 함.

❖ 서울시민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한 식품안전·위생 정책, 시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 필요

- ‘서울시민의 식품안전신뢰도 및 식품위생 실천 수준’(제 3장)을 주제로 분석한 결과, 서울

시민의 식품안전신뢰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52점이며,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시민의 비율은 5.4%임. 식품안전신뢰도는 1인 가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시민, 주부, 중간 소득층(월 가구소득 350~700만 원 미만), 도심권 및 서남권 거주자에서 낮게 나타남.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 요인은 주로 지자체의 점검·단속 부족(65.8%)과 업체의 식품 안전관리 전문성 부족(65.1%) 때문이며, 법·제도 미흡이나 업체의 영세성은 주요 요인으로 인식되지 않음. 음식 판매처에서 가장 큰 식품안전·위생 불안 요인은 식기류 및 조리도구의 비위생적 취급과 조리 과정의 위생 불량이며, 외식업소에서는 반찬 재할용, 배달업소는 식재료 보관 불량, 길거리 음식 판매점은 청소 상태 불량 역시 주요 불안 요인으로 조사됨. 식품안전신뢰도가 낮은 시민일수록 식재료 품질에 대한 불안이 크며, 대형마트 의존도가 높고, 동네 슈퍼마켓·전통시장 이용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신뢰도가 높은 시민은 원산지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경향이 있으며, 음식점 이용 빈도가 낮음.

- 서울시민의 식품위생 실천 수준은 5점 만점에 평균 3.82점으로, 남성과 서남권 거주자의 실천 수준이 낮으며, 저소득층(월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과 30대 미만 청년에서도 낮은 경향이 확인됨. 항목별로는 식재료 구매 순서 준수, 식재료 세척 순서 준수, 생채소류 소독·세척에서 실천 수준이 낮음. 식품위생 실천 수준이 낮은 집단의 경우 특히 생채소류 소독·세척, 식재료 구매 및 세척 순서 준수 실천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전반적으로 식품위생 실천 수준이 높은 시민일수록 식품안전신뢰도가 높고,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강하며, 식생활만족도와 식생활 중요도도 높게 나타남.
- 서울시는 식품안전신뢰도를 높이고 식품위생 실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품 안전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고, 배달업소·길거리 음식 판매점·식품 무인 판매점 등에 대한 정기 점검과 위생등급제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중소 식품업체 및 외식업소 대상 위생 교육을 확대하고, QR코드를 활용해 원산지 및 식품 안전 정보를 시민들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특히 식품위생 실천이 낮은 남성, 서남권 거주자,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식품위생 교육을 강화하고, 실천이 부족한 항목을 개선하는 캠페인을 운영하며, 시민 참여형 위생 실천 챌린지를 도입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아울러 대형마트 중심의 소비 행태를 완화하기 위해 전통시장·소규모 유통업체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배달음식·길거리 음식 판매점의 원산지 표시 의무를 강화하는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포털을 개선해 정보 제공 서비스를 확대하고, 시민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먹거리 취약계층을 위한 식생활 정책, 남성 청년과 학생, 남성 노인과 후기노인(75세 이상)을 주 대상으로 정책 도달률 극대화 기대**

- ‘서울시 먹거리 취약계층의 식생활 실태’(제 4장)를 주제로 분석한 결과, 서울시민 중 먹거리 취약계층, 즉 영양지수 ‘하’ 등급인 사람의 비율이 높은 연령층은 성인 중에서는 청년(18~34세), 노인 중에서는 후기노인(75세 이상)임. 서울시 청년 중 남성이거나 학생인 경우, 서울시 노인 중 남성이거나 중졸 이하의 저학력인 경우 먹거리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높음.

- 서울시 청년 중 먹거리 취약계층의 식생활 실태를 분석함. 그 결과 서울시 청년 식생활에서는 일반적으로 균형 수준보다 절제 수준이 문제였지만, 먹거리 취약계층 청년의 식생활이 비취약계층과 큰 차이를 보인 것은 균형 수준임. 즉 먹거리 취약계층 청년의 경우, 아침 결식율이 매우 높았고, 과일, 전곡 및 잡곡류, 생선 등 건강을 위해 자주 먹으면 좋은 식품에 대한 섭취 빈도가 비취약계층 청년보다 낮음. 먹거리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높은 집단에 대한 맞춤형 식생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남성 청년과 학생 청년의 식생활 실태를 분석함.
- 서울시 노인 중 먹거리 취약계층의 식생활 실태를 분석함. 그 결과 서울시 노인의 식생활에서는 일반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식행동의 실천 수준이 문제였지만, 먹거리 취약계층 노인의 식생활에서는 균형 수준이 낮은 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남. 즉 먹거리 취약계층 노인의 경우, 과일, 우유나 유제품, 생선이나 조개류, 콩이나 두부의 섭취 빈도가 매우 낮음. 먹거리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높은 집단에 대한 맞춤형 식생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남성 노인의 식생활 실태를 분석함. 또한 특히 먹거리 취약계층의 비율이 높고, 향후 정책 대상으로서의 중요성이 높아질 후기노인의 식생활 실태를 분석함.
- 서울시 식생활 정책의 대상, 목표, 방향 및 내용을 제안함. 서울시 식생활 정책은 먹거리 취약계층 청년(서울시 청년 약 2,147천 명 중 40.8%인 약 876천 명)과 먹거리 취약계층 노인(서울시 노인 약 1,531천 명 중 18.9%인 약 290천 명)을 주 대상으로 하고, 청년의 먹거리 취약계층 비율은 25% 수준으로 줄이고, 노인의 먹거리 취약계층 비율은 약 19%인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을 제안함. 다음에 제안한 대상 맞춤형 식생활환경 정책과 식생활교육 정책을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할 것을 제안함. 청년 대상 정책으로 아침식사를 무료 또는 저렴하게 제공하고, 청년 맞춤형 농산물 바우처나 할인 제도를 도입하여 균형 잡힌 식사를 지원하는 것을 제안함. 외식 환경에서 채소, 과일, 생선 섭취를 촉진하고, 청년의 식생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필요함. 남성 청년을 위해 간편한 과일, 견과류 등과 음주 절제 교육을 제공하고, 학생 청년을 위해서는 대학 캠퍼스 내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정규 학기 교과나 비교과 활동의 일환으로 식생활 교육과 조리 교육을 제안함. 노인 대상 정책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식행동의 실천을 위한 교육과 간편식 지원 및 맞춤형 식생활 상담 서비스도 필요함. 남성 노인을 위해서는 유제품과 잡곡류 섭취를 늘리기 위한 건강 간식 제공과 식생활 관리 교육을 제안함. 후기노인을 대상으로는 디지털 식품 주문 환경 개선과 노인 친화적인 배달 서비스와 공공급식 확대를 위한 정책과 더불어 식품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영양 바우처 및 꾸러미 지원 정책을 제안함.

목 차

요약	i
목차	vi
표목차	vii
그림목차	xiii

1. 조사 및 보고서 개요

1. 조사 개요	3
2. 보고서 개요	5
3.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6

2. 서울시민의 권역별 식품환경만족도 및 식생활 특성

1. 분석 배경 및 목적	9
2. 분석 내용 및 방법	9
3. 주요 결과 1: 서울시민의 권역별 식품환경만족도 및 식품비 부담	13
4. 주요 결과 2: 서울시민의 권역별 식생활 특성	18
5. 요약 및 정책 제언	25

3. 서울시민의 식품안전신뢰도 및 식품위생 실천 수준

1. 분석 배경 및 목적	33
2. 분석 내용 및 방법	33
3. 주요 결과 1: 서울시민의 식품안전신뢰도 및 식품안전불안 관련 요인	36
4. 주요 결과 2: 서울시민의 식품안전신뢰도에 따른 식품소비행동	49
5. 주요 결과 3: 서울시민의 식품위생 실천 수준	53
6. 요약 및 정책 제언	61

4. 서울시 먹거리 취약계층의 식생활 실태

1. 분석 배경 및 목적	67
2. 분석내용 및 방법	67
3. 주요 결과 1: 서울시 먹거리 취약계층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75
4. 주요 결과 2: 서울시 먹거리 취약계층 청년의 식생활 실태	79
5. 주요 결과 3: 서울시 먹거리 취약계층 노인의 식생활 실태	93
6. 요약 및 정책 제언	111

부록. 조사표	119
---------------	-----

표 목 차

〈표 1-1〉 서울시민 먹거리조사의 연도별 기초 정보	2
〈표 1-2〉 2024 서울시민 먹거리조사의 조사 설계	3
〈표 1-3〉 2024 서울시민 먹거리조사의 표본 설계	3
〈표 1-4〉 응답자 특성	5
〈표 2-1〉 영양지수 판정 기준	11
〈표 2-2〉 서울시민의 권역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	13
〈표 2-3〉 서울시민의 권역에 따른 영역별 식품환경만족도	15
〈표 2-4〉 서울시민의 권역에 따른 먹거리 물가 인식	16
〈표 2-5〉 서울시민의 권역에 따른 식품비 부담 정도	17
〈표 2-6〉 서울시민의 권역에 따른 영양지수	19
〈표 2-7〉 서울시민의 권역과 영양지수 ‘하’ 등급의 관련성	20
〈표 2-8〉 서울시민의 권역에 따른 아침식사 및 식품별 섭취 행태	22
〈표 2-9〉 서울시민의 권역과 아침식사 및 식품별 섭취 행태와의 관련성	22
〈표 2-10〉 서울시민의 권역에 따른 외식 행태	23
〈표 2-11〉 서울시민의 권역과 외식 행태의 관련성	24
〈표 2-12〉 서울시민의 권역에 따른 식생활 관련 인식	24
〈표 2-13〉 서울시민의 권역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 및 행복도	25
〈표 2-14〉 서울시민의 권역에 따른 식품환경만족도 및 주요 식생활 특성 요약	26
〈표 3-1〉 서울시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식품안전신뢰도	37

〈표 3-2〉 서울시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식품안전신뢰도 그룹 유형	39
〈표 3-3〉 서울시민의 식품안전불안과 관련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40
〈표 3-4〉 서울시민의 식품안전불안과 관련한 기타 요인	41
〈표 3-5〉 서울시민의 식품안전신뢰도 그룹에 따른 식품 유형별 신뢰도	42
〈표 3-6〉 서울시민의 권역에 따른 식품안전불안 이유	43
〈표 3-7〉 서울시민의 식품안전신뢰도 그룹에 따른 음식 판매처별 식품안전위생 주요 우려 요인	45
〈표 3-8〉 서울시민의 식품안전신뢰도 그룹에 따른 외식업소 식품안전·위생 우려 요인	46
〈표 3-9〉 서울시민의 식품안전신뢰도 그룹에 따른 배달업소 식품안전·위생 우려 요인	47
〈표 3-10〉 서울시민의 식품안전신뢰도 그룹에 따른 길거리 음식 판매점 식품안전위생 우려 요인	47
〈표 3-11〉 서울시민의 식품안전신뢰도 그룹에 따른 식품 무인판매점 식품안전위생 우려 요인	48
〈표 3-12〉 서울시민의 식품안전신뢰도 그룹에 따른 식품 안전·위생 우려 배달 음식 종류	49
〈표 3-13〉 서울시민의 식품안전신뢰도 그룹에 따른 식재료 주요 구매 장소	50
〈표 3-14〉 서울시민의 식품안전신뢰도 그룹에 따른 온라인 식품구매	50
〈표 3-15〉 서울시민의 식품안전신뢰도 그룹에 따른 영양표시 이해 및 확인 정도	51
〈표 3-16〉 서울시민의 식품안전신뢰도 그룹에 따른 외식 행태	52
〈표 3-17〉 서울시민의 식품안전신뢰 그룹과 외식 행태와의 관련성	52
〈표 3-18〉 서울시민의 식품안전신뢰도 그룹에 따른 식생활 관련 인식	53
〈표 3-19〉 서울시민의 식품안전신뢰도 그룹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 및 행복도	53
〈표 3-20〉 서울시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식품위생 실천 수준	54

〈표 3-21〉 서울시민의 식품위생 실천 수준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	56
〈표 3-22〉 서울시민의 식품위생 실천 수준과 관련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57
〈표 3-23〉 서울시민의 식품위생 실천 수준에 따른 항목별 실천 수준	58
〈표 3-24〉 서울시민의 식품위생관리 수준에 따른 식품안전신뢰도	59
〈표 3-25〉 서울시민의 식품위생 실천 수준에 따른 식품 유형별 식품안전신뢰도	60
〈표 3-26〉 서울시민의 식품위생 실천 수준에 따른 식생활 인식	60
〈표 3-27〉 서울시민의 식품위생 실천 수준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 및 행복도	61
〈표 4-1〉 영양지수 영역별 내용 및 조사항목	69
〈표 4-2〉 영양지수 판정 기준	70
〈표 4-3〉 식생활 실태 변수의 답항 및 코딩	73
〈표 4-4〉 서울시 청년의 영양지수 등급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	76
〈표 4-5〉 서울시 먹거리 취약계층 청년과 관련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77
〈표 4-6〉 서울시 노인의 영양지수 등급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	78
〈표 4-7〉 서울시 먹거리 취약계층 노인과 관련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78
〈표 4-8〉 서울시 청년의 영양지수 등급에 따른 아침식사 빈도 및 식품군별 섭취 행태	80
〈표 4-9〉 서울시 청년의 영양지수 등급에 따른 과식이나 폭식 빈도 및 식품유형별 섭취 빈도	81
〈표 4-10〉 서울시 청년의 영양지수 등급에 따른 음주 빈도 및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실천 정도	82
〈표 4-11〉 서울시 청년의 영양지수 등급에 따른 외식 행태	83
〈표 4-12〉 서울시 청년의 영양지수 등급에 따른 식품환경만족도	83

〈표 4-13〉 서울시 청년의 영양지수 등급에 따른 식생활역량	84
〈표 4-14〉 서울시 청년의 영양지수 등급에 따른 식품안전 인식 및 식생활에 대한 인식	84
〈표 4-15〉 서울시 청년의 영양지수 등급에 따른 식품비 부담 정도	85
〈표 4-16〉 서울시 남성 청년과 여성 청년의 영양지수 영역별 등급 분포	86
〈표 4-17〉 서울시 남성 청년과 여성 청년의 아침식사 빈도 및 식품군별 섭취 행태	87
〈표 4-18〉 서울시 남성 청년과 여성 청년의 과식이나 폭식 빈도 및 식품유형별 섭취 빈도	87
〈표 4-19〉 서울시 남성 청년과 여성 청년의 음주 빈도 및 건강하고 안전한 식행동 실천 정도	88
〈표 4-20〉 서울시 학생 청년과 근로자 청년의 영양지수 영역별 등급 분포	89
〈표 4-21〉 서울시 학생 청년과 근로자 청년의 아침식사 빈도 및 식품군별 섭취 행태	90
〈표 4-22〉 서울시 학생 청년과 근로자 청년의 과식이나 폭식 빈도 및 식품유형별 섭취 빈도	91
〈표 4-23〉 서울시 학생 청년과 근로자 청년의 음주 빈도 및 건강하고 안전한 식행동 실천 정도	91
〈표 4-24〉 서울시 학생 청년과 근로자 청년의 식생활역량	92
〈표 4-25〉 서울시 학생 청년과 근로자 청년의 식품안전 인식 및 식생활에 대한 인식	92
〈표 4-26〉 서울시 노인의 영양지수 등급에 따른 식품군별 섭취 빈도	94
〈표 4-27〉 서울시 노인의 영양지수 등급에 따른 식품유형별 섭취 빈도	95
〈표 4-28〉 서울시 노인의 영양지수 등급에 따른 건강하고 안전한 식행동 실천 정도	96
〈표 4-29〉 서울시 노인의 영양지수 등급에 따른 외식 행태	97
〈표 4-30〉 서울시 노인의 영양지수 등급에 따른 식품환경만족도	97
〈표 4-31〉 서울시 노인의 영양지수 등급에 따른 식생활역량	98

〈표 4-32〉 서울시 노인의 영양지수 등급에 식품디지털역량	98
〈표 4-33〉 서울시 노인의 영양지수 등급에 따른 식품안전 인식 및 식생활에 대한 인식	99
〈표 4-34〉 서울시 노인의 영양지수 등급에 따른 식품비 부담 정도	99
〈표 4-35〉 서울시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의 영양지수 영역별 등급 분포	101
〈표 4-36〉 서울시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의 식품군별 섭취 빈도	102
〈표 4-37〉 서울시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의 식품유형별 섭취 빈도	102
〈표 4-38〉 서울시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행동 실천 정도 ..	103
〈표 4-39〉 서울시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의 외식 행태	104
〈표 4-40〉 서울시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의 식품환경만족도	104
〈표 4-41〉 서울시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의 식생활역량	105
〈표 4-42〉 서울시 후기노인과 전기노인의 영양지수 영역별 등급 분포	106
〈표 4-43〉 서울시 후기노인과 전기노인의 식품군별 섭취 빈도	107
〈표 4-44〉 서울시 후기노인과 전기노인의 식품유형별 섭취 빈도	107
〈표 4-45〉 서울시 후기노인과 전기노인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행동 실천정도	108
〈표 4-46〉 서울시 후기노인과 전기노인의 외식 행태	109
〈표 4-47〉 서울시 후기노인과 전기노인의 식품디지털역량	109
〈표 4-48〉 서울시 후기노인과 전기노인의 식품안전 인식 및 식생활에 대한 인식 ..	110
〈표 4-49〉 서울시 후기노인과 전기노인의 식품비 부담 정도	110

그림 목 차

[그림 2-1] 서울시민의 권역별 식품환경만족도	14
[그림 2-2] 서울시민의 권역에 따른 영역별 식품환경만족도	16
[그림 2-3] 서울시민의 권역에 따른 식품비 부담 대응 행동	18
[그림 2-4] 서울시민의 권역별 영양지수 ‘하’ 등급 비율	20
[그림 3-1] 서울시민의 월평균 가구소득 및 권역별 식품안전신뢰도	38
[그림 3-2] 서울시민의 식품안전불안 이유	43
[그림 3-3] 서울시민의 음식 판매처별 식품안전·위생 우려 요인	44
[그림 3-4] 서울시민의 성별, 학력, 소득수준 및 권역별 식품위생 실천 수준	55
[그림 4-1] 서울시 청년과 중장년의 영양지수 등급 분포	75
[그림 4-2] 서울시 전기노인과 후기노인의 영양지수 등급 분포	76
[그림 4-3] 서울시 청년의 영양지수 영역별 등급 분포	79
[그림 4-4] 서울시 노인의 영양지수 영역별 등급 분포	93



01

조사 및 보고서 개요

2024 서울시민 먹거리조사 심층 분석 보고서



1. 조사 개요

❖ 조사 배경 및 목적

- 서울시의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효과적인 식생활 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조사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됨.
- 본 조사의 목적은 현재 서울시민의 먹거리에 대한 인식, 식행동 등 식생활 전반에 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서울시민 대상 식생활 정책의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것임.

❖ 추진 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제3항3호
-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 제14조(통계·정보) 및 제15조(실태조사)
- 통계법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의거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201017호)

❖ 조사 연혁

- 2020년, 「서울시 먹거리 통계조사」 시범조사 실시
- 2021년, 「서울시 먹거리 통계조사」 본조사 실시 시작
- 2022년, 통계청 국가승인통계 제 201017호로 지정
- 2024년, 조사 명칭을 「서울시민 먹거리조사」로 변경

〈표 1-1〉 서울시민 먹거리조사의 연도별 기초 정보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조사 명칭	서울시 먹거리 통계조사				서울시민 먹거리조사
조사 대상	서울시 거주 가구 내 만 18세 이상 모든 가구원				
표본크기	2,000가구 (만 18세 이상 가구원 3,833명)	2,000가구 (만 18세 이상 가구원 4,039명)	2,000가구 (만 18세 이상 가구원 3,904명)	2,050가구 ¹⁾ (만 18세 이상 가구원 3,594명)	2,000가구 (만 18세 이상 가구원 3,435명)
표본추출틀	주민등록DB(건축물대장DB 연계)				
표본추출방법	층화집락추출				
조사 방법	방문면접조사 (PAPI)	방문면접조사 (PAPI 및 TAPI)	방문면접조사 (PAPI 및 TAPI)	방문면접조사 (PAPI 및 TAPI)	방문면접조사 (PAPI 및 TAPI)
조사 문항	10개 분야 45문항	11개 분야 58문항	9개 분야 61문항	6개 분야 70문항	5개 분야 74문항

PAPI: Paper and Pencil Interview, TAPI: Tablet-Assisted Personal Interview

1) 20대 1인 가구 유효 표본수 확보를 위해 권역과 주택유형 분포를 고려하여 50표본을 추가 조사함.

❖ 조사 설계

〈표 1-2〉 2024 서울시민 먹거리조사의 조사 설계

구분	내용
조사 대상	서울시 거주 가구 내 만 18세 이상 모든 가구원
조사 방법	방문면접조사
표본크기	2,000가구(만 18세 이상 가구원 3,435명)
표본오차	가구 : 95% 신뢰수준에서 $\pm 2.19\%p$ 가구원 : 95% 신뢰수준에서 $\pm 1.67\%p$
표본추출 방법	층화집락추출
조사 기준 일자	2024년 9월 1일
조사 기간	2024년 9월 19일 ~ 10월 25일
조사 기관	(주)케이스탯리서치

❖ 표본 설계

〈표 1-3〉 2024 서울시민 먹거리조사의 표본 설계

분류	내용
모집단 및 표본추출틀	- 모집단 : 서울시 내 일반적 가구 특성을 갖추지 못한 기숙시설 및 특수사회시설 등 집단 가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제외한 일반 가구의 만 18세 이상 가구원 - 목표 모집단 : 조사 시점 기준 서울 거주 가구주 및 만 18세 이상 모든 가구원 - 표본추출틀 : 2024년 서울 서베이DB 이용(2024년 6월 주민등록DB와 건축물대장DB의 주택유형과 통/반을 연계한 집락세대 목록)
표본규모와 목표오차범위	- 표본규모 : 2,000가구 - 목표오차범위 : 95% 신뢰수준에서 $\pm 2.2\%p$
표본추출방식 (층화, 특성, 분류지표 포함)	- 층화집락추출(stratified cluster sampling) : 동일한 통/반의 동일한 주택유형을 갖는 세대들을 집락으로 묶어, 먼저 집락을 추출한 후 각 집락별로 5개의 세대를 추출 - 층화 : 권역(구), 주택유형 - 추출단위 : ① 통/반 ② 세대
표본배정방식	- 제1층 : 권역(구), 5개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 제2층 : 주택유형, 4개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 권역별 세대수에 의한 제곱근비례배분 후 권역내 구별 주택유형별 세대수에 의한 비례배분 방식
주요항목별 공표범위	- 가구 특성별[권역별, 거처 종류 등] 공표 : 통계자료 공표 시, 통계표 셀 내의 크기가 작거나 상대표준오차(RSE)의 크기가 큰 경우 통합(collapsing) 공표

❖ 설문지 구성

- 조사에 이용된 설문지[부록]는 5개 분야 67문항과 응답자 특성을 묻는 6문항으로 구성됨.
가구주 대상 설문지에는 월평균 가구소득에 대한 1문항이 추가됨.
- 5개 분야: 식품 섭취, 식생활, 식품 구매, 식품 안전, 식품 정책 및 사업

❖ IRB 승인

- 본 조사는 2024년 공공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음.
(승인번호: P01-202409-01-014)

2. 보고서 개요

- ❖ 본 심층 분석 보고서는 서울시에서 실시한 『2024 서울시민 먹거리조사』의 원시 자료를 심층 분석한 결과를 수록함. 기초 분석 결과는 표본 추출 및 조사 방법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기초 분석 보고서로 별도로 발간됨.
- ❖ 본 심층 분석 보고서는 총 세 주제에 대한 심층 분석 결과를 장별로 수록함. 첫 번째 주제는 ‘서울시민의 권역별 식품환경만족도 및 식생활 특성’(제 2장), 두 번째 주제는 ‘서울시민의 식품안전 신뢰도 및 식품위생 실천 수준’(제 3장)이며, 세 번째 주제는 ‘서울시 먹거리 취약계층의 식생활 실태’(제 4장)임.
- ❖ 주제별 심층 분석의 주요 결과에 근거하여 각 장의 마지막 절에 서울시민을 위한 식생활 정책을 제안함.

3.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표 1-4〉 응답자 특성

(명 또는 %)

구분		가중 전		가중 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체		3,435	100.0	3,435	100.0
성별	남성	1,567	45.6	1,646	47.9
	여성	1,868	54.4	1,789	52.1
연령 ①	만18~29세	292	8.5	633	18.4
	30대	730	21.3	587	17.1
	40대	569	16.6	581	16.9
	50대	617	18.0	613	17.9
	60대	927	27.0	676	19.7
	70대 이상	300	8.7	346	10.1
연령 ②	청년(18~34세)	675	19.7	924	26.9
	중장년(35~64세)	2,027	59.0	1,853	53.9
	노인(65세 이상)	733	21.3	659	19.2
권역	도심권	384	11.2	176	5.1
	동북권	877	25.5	1,065	31.0
	서북권	521	15.2	420	12.2
	서남권	921	26.8	1,058	30.8
	동남권	732	21.3	717	20.9
학력	중졸 이하	154	4.5	351	10.2
	고졸	1,420	41.3	1,046	30.5
	대학 입학 이상	1,861	54.2	2,038	59.3
가구 형태 ①	1인 가구	706	20.6	749	21.8
	부부 가구	1,545	45.0	875	25.5
	2세대 이상 가구	1,128	32.8	1,760	51.2
	기타 가구	56	1.6	51	1.5
가구 형태 ②	1인 가구	706	20.6	749	21.8
	다인 가구	2,729	79.4	2,686	78.2
직업	관리/전문/사무직	1,294	37.7	1,239	36.1
	서비스/판매직	888	25.9	810	23.6
	기능/노무직	266	7.7	286	8.3
	학생	119	3.5	291	8.5
	주부	710	20.7	612	17.8
	무직/기타	158	4.6	197	5.7
고용 형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759	71.5	1,696	72.2
	임시/일용직	234	9.5	278	11.8
	자영업자	429	17.4	328	14.0
	기타	37	1.5	48	2.0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175	5.1	254	7.4
	200~350만원 미만	829	24.1	736	21.4
	350~500만원 미만	938	27.3	786	22.9
	500~700만원 미만	916	26.7	848	24.7
	700만원 이상	577	16.8	811	23.6



02

서울시민의 권역별 식품환경만족도 및 식생활 특성

2024 서울시민 먹거리조사 심층 분석 보고서



1. 분석 배경 및 목적

- ❖ 서울시민의 식생활은 건강과 직결되며, 거주 지역에 따른 사회·경제적 특성과 식품환경의 차이는 식습관에 영향을 미쳐 식생활의 질과 만족도에 차이를 초래할 수 있음.
- ❖ 특히, 지역사회 물리적 식품환경은 건강한 식생활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서울시민의 식생활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각 권역별 물리적 식품환경 및 식생활 특성을 파악하여 개선점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관련 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 중요함.
- ❖ 이에 본 분석은 서울시를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의 다섯 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식품환경에 대한 만족도, 식품비 부담에 따른 식품 소비의 변화, 식생활의 질적 수준, 식행동의 차이 등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 이를 통해 서울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권역별 맞춤형 정책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2. 분석 내용 및 방법

1) 분석 변수 및 분석 내용

가. 식품환경만족도

- ❖ ‘식품환경만족도’는 ‘지역사회 식품환경의 가용성, 물리적 접근성, 가격적정성, 편의성, 수용성에 대한 만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임.
 - **가용성**: 동네에 다양하고 건강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식료품점이 충분히 있는지 정도
 - **물리적 접근성**: 다양하고 건강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식료품점이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지 정도
 - **가격적정성**: 동네 식료품점에서 파는 식품이 구매할 수 있는 적절한 가격인지 정도
 - **편의성**: 동네 식료품점의 서비스가 이용하기 편리한지 정도
 - **수용성**: 동네 식료품점에서 파는 식품이 신선하고 질이 좋은지 정도
- ❖ 조사 문항 C5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식품환경의 가용성(C5-1), 물리적 접근성(C5-2), 가격적정성(C5-3), 편의성(C5-4), 수용성(C5-5)에 대한 평균값을 산출하고, 5개 문항 응답에 대한 총 평균값을 함께 산출함(5점 만점).

나. 먹거리 물가 인식 및 식품비 부담

- ❖ 먹거리 물가 인식
 - 조사 문항 C1을 활용하여 먹거리 물가 인식 수준을 ‘내림’(①, ② 응답), ‘그대로임’(③ 응답), ‘오름’(④, ⑤ 응답)으로 구분함.
- ❖ 식품비 부담 및 식품비 부담에 따른 먹거리 소비 변화

- 조사 문항 C2를 활용하여 식품비 부담을 ‘부담되지 않음(①, ② 응답)’, ‘부담됨(③, ④ 응답)’으로 구분함.
- 조사 문항 C2-1을 활용하여 식품비가 부담된다고 응답한 대상자 3,057명을 대상으로 식품비 부담에 따른 먹거리 소비 변화를 분석함.

다. 식생활

❖ 식생활의 균형·절제·실천 수준(영양지수)

- 식생활의 균형·절제·실천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영양상태와 식사의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영양지수(NQ, Nutrition Quotient)를 활용함.
- 64세 이하 대상자의 경우 성인 영양지수 문항을, 65세 이상 대상자의 경우 노인 영양지수 문항을 적용하여, 세 가지 영역별(균형, 절제, 실천) 점수와 종합 점수를 산출함.
- ‘**균형**’은 ‘**필요한 식품을 골고루 다양하게 먹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임. 성인 영양지수의 균형 영역은 채소(조사 문항 A3), 과일(조사 문항 A2-1), 우유 및 유제품(조사 문항 A2-5), 두류(조사 문항 A2-6), 견과류(조사 문항 A2-13), 생선(조사 문항 A2-12), 전곡 및 잡곡류(조사 문항 A2-8)의 섭취와 아침식사(조사 문항 A1)에 대한 8개 항목으로 평가함. 노인 영양지수의 균형 영역은 과일(조사 문항 A3-1), 우유 및 유제품(조사 문항 A2-5), 달걀(조사 문항 A2-11), 두류(조사 문항 A-6), 견과류(조사 문항 A2-13), 생선이나 조개류(조사 문항 A2-12), 전곡 및 잡곡류(조사 문항 A2-8), 물(조사 문항 A2-17) 섭취에 대한 8개 항목으로 평가함.
- ‘**절제**’는 ‘**건강에 좋지 않은 식품을 적게 섭취하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임. 성인 영양지수의 절제 영역은 기름진 빵이나 과자류(조사 문항 A2-14), 패스트푸드(조사 문항 A2-15), 맵고 짠 짜게나 탕류(조사 문항 A2-7), 붉은색 고기(조사 문항 A2-9), 가공육(조사 문항 A2-10)의 섭취와 과식 및 폭식(조사 문항 A5)에 대한 6개 항목으로 평가함. 노인 영양지수의 절제 영역은 기름진 빵이나 과자류(조사 문항 A2-14), 믹스커피 등 설탕이 많이 든 간식(조사 문항 A2-16) 섭취에 대한 2개 항목으로 평가함.
- ‘**실천**’은 ‘**건강하고 안전한 식행동을 실천하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임. 성인 영양지수의 실천 영역은 평소 건강 식생활 노력(조사 문항 B4), 외식 또는 가공식품 구입 시 영양표시 확인(조사 문항 B14), 음식 먹기 전 손씻기(조사 문항 B13), 음주(조사 문항 A4) 정도에 대한 4개 항목으로 평가함. 노인 영양지수의 실천 영역은 평소 건강 식생활 노력(조사 문항 B4), (가공)식품 구입시 소비기한이나 영양표시 확인(조사 문항 B15), 음식 먹기 전 손씻기(조사 문항 B13), 음식 씹기 불편(조사 문항 B16), 평소 우울함(조사 문항 B6), 수면(조사 문항 B7), 건강 정도(조사 문항 B5)에 대한 7개 항목으로 평가함.
- 백분위 분포에 따른 판정 기준(표 2-1)에 따라 균형, 절제, 실천 영역 점수 및 종합 점수를 기준으로 ‘상(양호)’, ‘중(개선 필요)’, ‘하(개선 시급)’의 세 등급으로 구분함.
- ‘상’ 등급은 영양지수 점수가 전국 조사 결과의 백분위 분포 75% 이상에 해당하는 점수

로 식생활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며 바람직한 식생활을 실천하고 있음을 의미함. '중' 등급은 백분위 분포가 25~74.9%에 해당하는 점수로 식생활 행동이 보통이지만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함을, '하' 등급은 백분위 분포가 0~24.9%에 해당하는 점수로 전반적으로 식생활이 불량하여 시급한 개선이 필요함을 의미함.

〈표 2-1〉 영양지수 판정 기준

구분		'하' 등급	'중' 등급	'상' 등급
		(0~24.9%)	(25.0~74.9%)	(75.0~100%)
성인	균형	0 ~ 30.862	30.863 ~ 55.799	55.800 ~ 100
	절제	0 ~ 66.122	66.123 ~ 85.299	85.300 ~ 100
	실천	0 ~ 51.804	51.805 ~ 74.494	74.495 ~ 100
	종합 점수	0 ~ 52.737	52.738 ~ 68.482	68.483 ~ 100
노인	균형	0 ~ 34.187	34.188 ~ 54.649	54.650 ~ 100
	절제	0 ~ 44.723	44.724 ~ 58.545	58.546 ~ 100
	실천	0 ~ 53.524	53.525 ~ 71.224	71.225 ~ 100
	종합 점수	0 ~ 44.723	44.724 ~ 58.545	58.546 ~ 100

영양지수 프로그램(식품의약품안전처, 2021)

❖ 아침식사 및 식품별 섭취 행태

- 아침식사 섭취 정도는 조사 문항 A1을 활용하여 '주 6회 이하'와 '매일'로 구분함.
- 섭취가 권장되는 식품의 섭취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과일(조사 문항 A2-1), 채소 반찬류(조사 문항 A2-3), 우유 및 유제품(조사 문항 A2-5) 섭취 정도를 '일 1회 미만'과 '일 1회 이상'으로 구분함.
- 과다 섭취 제한이 필요한 식품의 섭취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맵고 짠 국물 음식(조사 문항 A2-7), 단맛 간식(조사 문항 A-16)은 '일 1회 미만'과 '일 1회 이상'으로, 패스트푸드(조사 문항 A-15)는 '일 1회 미만'과 '일 1회 이상'으로, 가당 음료(조사 문항 A7)는 '주 3회 미만'과 '주 3회 이상'으로 구분함.

❖ 외식 행태

- 조사 문항 A6을 활용하여 음식점 음식 섭취 빈도는 '주 4회 미만'과 '주 4회 이상'으로, 배달 음식 섭취 빈도와 편의점 음식 섭취 빈도는 '주 1회 미만'과 '주 1회 이상'으로 구분함.

라. 식생활 관련 인식, 주관적 건강상태 및 행복도

❖ 식생활 관련 인식

- 건강식생활 노력(조사 문항 B4), 식생활만족도(조사 문항 B8), 식생활중요도(조사 문항 B9)를 5점 만점(1~5점)으로 분석함.

❖ 주관적 건강상태 및 행복도

- 주관적 건강상태(조사 문항 B5)는 5점 만점(1~5점)으로, 행복도(조사 문항 B10)는 10점 만점(0~10점)으로 분석함.

마. 인구사회학적 특성

❖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구분함.

- 성별은 남성, 여성으로 구분하고, 연령은 6개 그룹(18~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으로 구분함.
- 학력은 고졸 이하, 대학 입학 이상, 가구형태는 1인 가구와 다인 가구, 직업은 근로자, 학생, 주부/무직/기타로 구분함.
- 월평균 가구소득은 5개 그룹(200만원 미만, 200~350만원 미만, 350~500만원 미만, 500~700만원 미만, 700만원 이상)으로 구분함.
- 권역은 5개 그룹(**도심권**: 종로구, 중구, 용산구; **동북권**: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서북권**: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서남권**: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동남권**: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으로 구분함.

2) 분석 방법

- ❖ 권역에 따른 식품환경만족도 차이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연령, 학력, 가구형태,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을 보정한 공분산분석을 수행하여 분석함.
- 응답자 총 3,435명 중 식품환경만족도에 대한 문항(조사 문항 C5)에서 구매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 70명을 제외하고 총 3,365명의 자료를 분석함.
- ❖ 권역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먹거리 물가 인식, 식품비 부담 정도, 식품비 부담에 따른 먹거리 소비 변화, 영양지수 및 식생활 차이는 교차분석을 수행하여 분석함.
- ❖ 권역별 식생활 관련 인식, 주관적 건강상태 및 행복도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연령, 학력, 가구형태,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을 보정한 공분산분석을 수행하여 분석함.
- ❖ 권역에 따른 영양지수 '하'의 가능성, 아침식사 및 식품별 섭취 가능성(아침식사 매일, 과일·채소 반찬류·우유 및 유제품·맵고 짠 국물음식·단맛 간식 일 1회 이상, 패스트푸드 주 1회 이상, 가당음료 주 3회 이상)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성별, 연령, 학력, 가구형태,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 보정)을 실시함.
- ❖ 통계분석은 SPSS 27.0 프로그램(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복합표본분석을 실시함.
- ❖ 분석 결과는 가중되지 않은 빈도와 가중 백분율, 가중 평균과 표준오차, 또는 오즈비(OR)와 95% 신뢰구간(95% CI)으로 제시함.

3. 주요 결과 1: 서울시민의 권역별 식품환경만족도 및 식품비 부담

1) 서울시민의 권역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 ❖ 권역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직업($p=0.005$), 월평균 가구소득($p<0.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표 2-2).
- 도심권과 동북권은 학생 비율이 각각 15.3%, 12.2%로 다른 권역에 비해 높으며, 서북권은 주부/무직/기타 비율이 28.4%로 다른 권역보다 높은 수준임.
- 도심권은 월평균 가구소득 350만 원 미만 비율이 41.1%로 다른 권역보다 높으며, 동남권은 700만 원 이상 고소득자 비율이 38.6%로 다른 권역보다 높은 수준임.
- 이와 같은 차이는 권역별 식생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표 2-2〉 서울시민의 권역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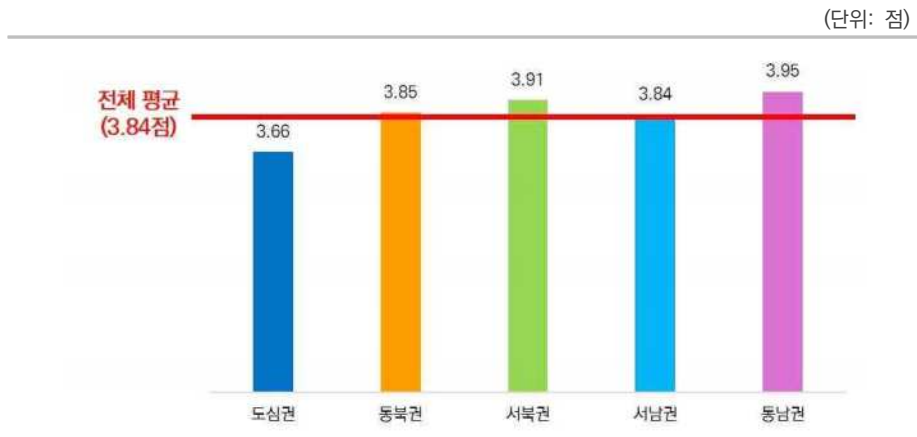
구분		도심권 (n=384)	동북권 (n=877)	서북권 (n=521)	서남권 (n=921)	동남권 (n=732)	전체 (n=3,435)	p ¹⁾
성별	남성	184(47.6)	406(48.0)	234(46.6)	412(48.7)	331(47.5)	1,567(47.9)	0.979
	여성	200(52.4)	471(52.0)	287(53.4)	509(51.3)	401(52.5)	1,868(52.1)	
연령	18~29세	61(18.8)	51(18.8)	57(19.4)	74(19.2)	49(16.1)	292(18.4)	0.727
	30대	78(17.9)	156(15.4)	132(17.1)	210(18.4)	154(17.4)	730(17.1)	
	40대	65(15.3)	156(16.0)	69(16.8)	116(16.2)	163(19.8)	569(16.9)	
	50대	54(17.7)	152(18.4)	97(17.8)	164(17.0)	150(18.5)	617(17.9)	
	60대	89(18.2)	279(19.8)	135(18.7)	248(18.5)	176(22.1)	927(19.7)	
	≥70대	37(12.1)	83(11.6)	31(10.2)	109(10.7)	40(6.2)	300(10.1)	
학력	≤고졸	134(37.6)	441(45.7)	260(42.9)	418(38.6)	321(35.9)	1,574(40.7)	0.079
	≥대학 입학	250(62.4)	436(54.3)	261(57.1)	503(61.4)	411(64.1)	1,861(59.3)	
가구 형태	1인 가구	77(25.7)	154(22.0)	145(22.2)	192(22.9)	138(18.7)	706(21.8)	0.683
	다인 가구	307(74.3)	723(78.0)	376(77.8)	729(77.1)	594(81.3)	2,729(78.2)	
직업	근로자	249(64.5)	633(63.6)	374(67.4)	629(70.2)	563(72.5)	2,448(68.0)	0.005
	학생	43(15.3)	24(12.2)	12(4.3)	19(5.6)	21(7.9)	119(8.5)	
	주부/무직/기타	92(20.2)	220(24.2)	135(28.4)	273(24.2)	148(19.6)	868(23.6)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14(8.4)	61(10.4)	34(9.3)	50(6.1)	16(3.5)	175(7.4)	<0.001
	200~350만원 미만	128(32.7)	205(19.4)	159(22.6)	232(25.7)	105(14.7)	829(21.4)	
	350~500만원 미만	115(22.8)	303(26.1)	165(35.4)	207(18.3)	148(17.5)	938(22.9)	
	500~700만원 미만	83(20.2)	225(26.4)	116(17.4)	259(26.0)	233(25.6)	916(24.7)	
	≥700만원	44(15.9)	83(17.7)	47(15.3)	173(23.9)	230(38.6)	577(23.6)	

본 표의 수치는 복합표본분석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일부 합계가 100%와 미세하게 차이 날 수 있음.

¹⁾라오-스콧 χ^2 검정

2) 서울시민의 권역별 식품환경만족도

- ❖ 서울시민의 식품환경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84점으로 평가됨.
- ❖ 식품환경만족도를 권역별로 비교한 결과, 동남권이 3.95점으로 가장 높으며, 도심권이 3.66점으로 가장 낮음($p<0.001$) (그림 2-1).



복합표본분석, 5점 만점

[그림 2-1] 서울시민의 권역별 식품환경만족도

- ❖ 식품환경만족도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영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가용성이 3.97점으로 가장 높고, 가격적정성(3.76점), 편의성(3.77점)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표 2-3).
- ❖ 권역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가용성($p<0.001$), 물리적 접근성($p<0.001$), 가격적정성($p=0.001$), 편의성($p=0.001$), 수용성($p<0.001$)의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 도심권은 편의성을 제외한 가용성, 물리적 접근성, 가격적정성, 수용성 측면 모두에서 식품환경만족도가 가장 낮으며, 편의성(3.71점) 역시 동북권(3.65점) 다음으로 낮은 수준임.
 - 동남권은 도심권과 반대로 가용성, 물리적 접근성, 편의성, 수용성 측면에서의 식품환경만족도가 가장 높음. 그러나, 가격적정성 만족도는 3.68점으로 도심권(3.60점)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임.
 - 동북권은 편의성 측면에서의 식품환경만족도가 3.65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임.

〈표 2-3〉 서울시민의 권역에 따른 영역별 식품환경만족도

평균 (표준오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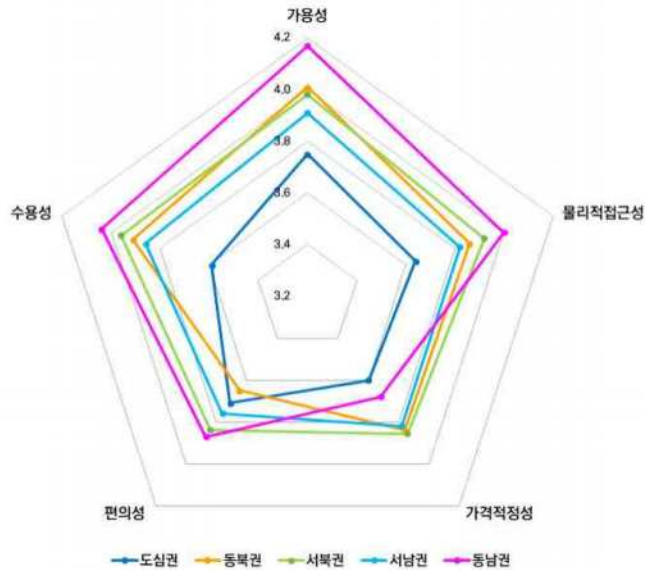
구분	도심권 (n=370)	동북권 (n=869)	서북권 (n=521)	서남권 (n=902)	동남권 (n=703)	전체 (n=3,365)	p ¹⁾
가용성	3.75 (0.06)	4.01 (0.05)	3.98 (0.06)	3.91 (0.05)	4.17 (0.05)	3.97 (0.04)	<0.001
물리적 접근성	3.64 (0.07)	3.86 (0.06)	3.92 (0.09)	3.82 (0.06)	4.00 (0.06)	3.85 (0.05)	<0.001
가격적정성	3.60 (0.06)	3.84 (0.05)	3.86 (0.07)	3.82 (0.05)	3.68 (0.07)	3.76 (0.04)	0.001
편의성	3.71 (0.06)	3.65 (0.06)	3.84 (0.07)	3.76 (0.06)	3.87 (0.05)	3.77 (0.04)	0.001
수용성	3.59 (0.06)	3.91 (0.06)	3.96 (0.08)	3.86 (0.06)	4.04 (0.07)	3.87 (0.05)	<0.001
총점	3.66 (0.05)	3.85 (0.04)	3.91 (0.05)	3.84 (0.04)	3.95 (0.04)	3.84 (0.03)	<0.001

복합표본분석, 5점 만점

¹⁾공분산분석(성별, 연령, 학력, 가구형태,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 보정)

- ❖ 각 권역별로 식품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시각적으로 비교한 결과는 그림 2-2와 같음.
 - 모든 영역에서 만족도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 도심권은 특히 수용성 측면에서 만족도가 매우 낮음. 수용성은 동네 식료품점에서 파는 식품의 신선도와 질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하며, 이는 도심권에서 신선식품에 대한 접근성이 낮을 가능성을 보여줌. 도심권은 상업 지역과 업무 지구가 밀집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신선식품을 확보하기 어려운 환경일 가능성이 큼.
 - 동북권은 특히 편의성에서 낮은 만족도를 보임. 편의성은 동네 식료품점의 서비스 이용 편리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동북권에서 특히 편의성이 낮게 평가된 영향 요인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임.
 - 서북권과 서남권은 유사한 경향을 보이며, 모든 영역에서의 만족도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음.
 - 동남권은 특히 가용성과 물리적 접근성에서 가장 양호한 수준임. 이는 대형마트, 프리미엄 식품 매장 등 식품 관련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지역적 특성 때문인 것으로 해석이 가능함. 반면, 가격적정성 측면에서 낮은 만족도는 동남권의 평균적인 식재료 가격이 다른 권역보다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단위: 점)



복합표본분석, 5점 만점

[그림 2-2] 서울시민의 권역에 따른 영역별 식품환경만족도

3) 서울시민의 권역별 먹거리 물가 인식 및 식품비 부담

- ❖ 권역에 따라 먹거리 물가 인식에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p<0.001$)(표 2-4).
 - 먹거리 물가가 올랐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모든 권역에서 80% 이상으로 높으며, 특히 서북권이 96.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물가가 내렸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전체적으로 1.1%로 매우 낮으나, 권역에 따라 0.4~2.7% 수준으로 차이가 있으며, 서남권이 2.7%로 가장 높음.
 - 물가가 그대로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동남권이 15.6%로 다른 권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2-4〉 서울시민의 권역에 따른 먹거리 물가 인식

명 (%)							p ¹⁾
구분	도심권 (n=384)	동북권 (n=877)	서북권 (n=521)	서남권 (n=921)	동남권 (n=732)	전체 (n=3,435)	
내림	5 (0.8)	8 (0.6)	3 (0.4)	18 (2.7)	2 (0.4)	36 (1.1)	<0.001
그대로임	24 (6.7)	73 (9.5)	13 (2.9)	89 (10.5)	116 (15.6)	315 (10.1)	
오름	355 (92.6)	796 (90.0)	505 (96.7)	814 (86.9)	614 (84.0)	3,084(88.7)	

본 표의 수치는 복합표본분석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일부 합계가 100%와 미세하게 차이 날 수 있음.

¹⁾라오-스콧 χ^2 검정

- ❖ 권역에 따라 식품비 부담 인식에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p<0.001$)(표 2-5).
 - 물가가 올랐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던 서북권에서는 식품비가 부담된다는 비율 역시 96.9%로, 해당 비율이 90% 미만인 다른 권역에 비해 높은 수준임.
 - 도심권에서는 식품비가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23.2%로 다른 권역보다 높음.

〈표 2-5〉 서울시민의 권역에 따른 식품비 부담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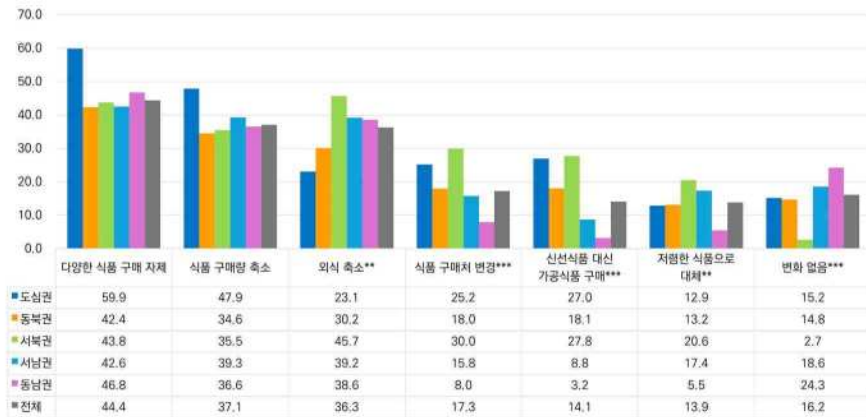
							명 (%)
구분	도심권 (n=384)	동북권 (n=877)	서북권 (n=521)	서남권 (n=921)	동남권 (n=732)	전체 (n=3,435)	p ¹⁾
부담되지 않음	58 (23.2)	66 (11.0)	15 (3.1)	153 (18.2)	86 (15.3)	378 (13.8)	<0.001
부담됨	326 (76.8)	811 (89.0)	506 (96.9)	768 (81.8)	646 (84.7)	3,057 (86.2)	

복합표본분석

¹⁾라오-스콧 χ^2 검정

- ❖ 식품비가 부담된다고 응답한 3,057명을 대상으로 식품비 부담에 따른 먹거리 소비 변화를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권역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그림 2-3).
 - 전체적으로 ‘다양한 식품 구매 자제’(44.4%)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식품 구매량 축소’(37.1%), ‘외식 축소’(36.3%) 순으로 나타남.
 - 도심권에서는 ‘다양한 식품 구매 자제’(59.9%), ‘식품 구매량 축소’(47.9%), ‘신선식품 대신 가공식품 구매’(27.0%)와 같은 변화 비율이 높게 나타남. 이러한 경향은 도심권의 월평균 가구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식품비 부담이 식생활의 양적·질적 수준을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다른 권역보다 높음을 보여줌. 또한, ‘외식 축소’(23.1%) 비율은 다른 권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도심권 거주자의 외식 의존도가 식품비 부담에 의해 큰 영향을 받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신선식품 대신 가공식품 구매’는 특히 도심권(27.0%)과 서북권(27.8%)에서 다른 권역보다 높은 비율을 보임.
 - 서북권은 그 밖에도 ‘외식 축소’(45.7%), ‘식품 구매처 변경(30.0%)’, ‘저렴한 식품으로 대체’(20.6%) 등의 변화가 다른 권역보다 높으며,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2.7%로 다른 권역에 비해 매우 낮아 식품비 부담에 따른 먹거리 소비 변화가 큰 지역임을 알 수 있음.
 - 월평균 가구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동남권에서는 식품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먹거리 소비에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24.3%로, 4명 중 1명꼴로 높음. 또한, ‘신선식품 대신 가공식품 구매’와 같이 식생활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어, 식품비 부담이 식생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낮을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결과는 식품비 부담에 따른 먹거리 소비 변화가 권역별로 다르게 나타나며, 식생활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 특히 ‘식품 구매량 축소’, ‘다양한 식품 구매 자제’, ‘신선식품 대신 가공식품 구매’와 같은 변화는 식생활의 양적·질적 수준을 직접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음.

(단위: %)



복합표본분석, 복수응답, 라오-스콧 χ^2 검정

** $p<0.01$, *** $p<0.001$

[그림 2-3] 서울시민의 권역에 따른 식품비 부담 대응 행동

4. 주요 결과 2: 서울시민의 권역별 식생활 특성

1) 서울시민의 권역별 영양지수

- ❖ 영양지수 종합 점수에 따른 서울시민의 등급 분포를 분석한 결과, ‘하’, ‘중’, ‘상’의 비율이 각각 25.6%, 52.5%, 21.9%로 나타남(표 2-6).
 - 전국조사결과의 백분위 기준과 비교했을 때, ‘상’ 등급 비율이 다소 낮은 수준임.
 - 영역별로 살펴보면, 균형 영역에서는 ‘상’ 등급 비율이 30.2%로 전국조사결과의 백분위 기준보다 높고, ‘하’ 등급 비율이 11.1%로 낮아 양호한 상태를 보인 반면, 절제 영역에서는 ‘상’ 등급 비율이 매우 낮고(11.1%) ‘하’ 등급 비율(47.1%)이 매우 높아 권역과 관계 없이 식생활의 절제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함.
- ❖ 영양지수를 권역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식생활의 균형($p<0.001$), 절제($p<0.001$), 실천($p<0.001$) 영역 및 종합 점수($p<0.001$)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 균형 영역에서는 서남권의 ‘하’ 등급 비율이 17.0%로 다른 권역보다 높고, ‘상’ 등급 비율이 19.3%로 다른 권역보다 낮음. 이는 서남권 거주 시민이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영양적으로 균형 있게 섭취하는 식생활 실천이 미흡함을 의미함.
 - 절제 영역에서는 도심권과 동북권의 ‘하’ 등급 비율이 각각 59.5%로, 다른 권역보다 높음. 이는 이 두 권역에서 건강에 좋지 않은 식품을 적게 섭취하는 절제 측면이 미흡함을 의미함.

- 실천 영역에서는 도심권의 '하' 등급 비율이 23.3%로 다른 권역보다 높고, 동북권의 '상' 등급 비율이 16.5%로 다른 권역보다 낮음. 이는 도심권과 동북권 거주 시민이 건강을 위한 안전한 식행동 실천이 부족함을 의미함.
- 종합 점수에 따른 등급을 분석한 결과, 도심권의 '하' 등급 비율이 40.8%로 다른 권역에 비해 매우 높으며, 동북권의 '상' 등급 비율이 16.7%로 다른 권역보다 낮아 우선적인 개선이 필요함.

〈표 2-6〉 서울시민의 권역에 따른 영양지수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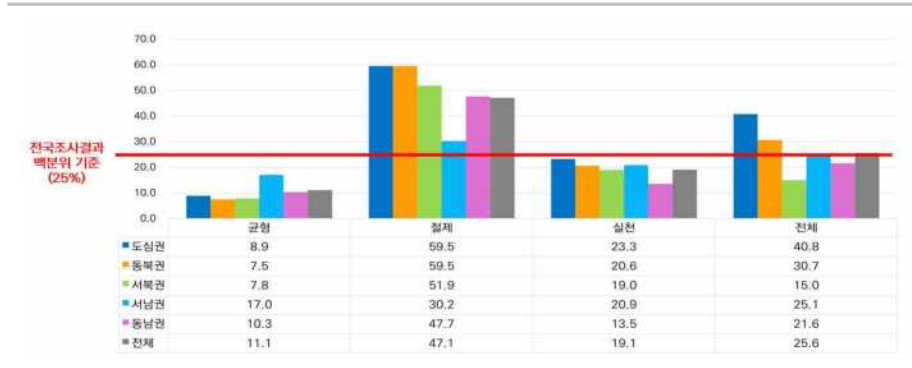
구분		도심권 (n=384)	동북권 (n=877)	서북권 (n=521)	서남권 (n=921)	동남권 (n=732)	전체 (n=3,435)	p ¹⁾
균형	하	31 (8.9)	73 (7.5)	63 (7.8)	193 (17.0)	84 (10.3)	444 (11.1)	<0.001
	중	163 (50.1)	478 (47.6)	270 (52.1)	532 (55.7)	388 (48.2)	1,831 (50.9)	
	상	133 (25.1)	312 (37.1)	184 (37.2)	199 (19.3)	249 (33.1)	1,077 (30.2)	
절제	하	225 (59.5)	500 (59.5)	242 (51.9)	246 (30.2)	324 (47.7)	1,537 (47.1)	<0.001
	중	128 (31.6)	304 (33.0)	216 (40.3)	482 (52.7)	324 (42.0)	1,454 (41.8)	
	상	31 (8.9)	73 (7.5)	63 (7.8)	193 (17.0)	84 (10.3)	444 (11.1)	
실천	하	81 (23.3)	171 (20.6)	96 (19.0)	136 (20.9)	77 (13.5)	561 (19.1)	<0.001
	중	176 (51.8)	531 (62.9)	286 (59.9)	459 (50.7)	397 (54.3)	1,849 (56.4)	
	상	127 (24.9)	175 (16.5)	139 (21.1)	326 (28.4)	258 (32.2)	1,025 (24.4)	
종합 점수	하	121 (40.8)	244 (30.7)	95 (15.0)	177 (25.1)	124 (21.6)	761 (25.6)	<0.001
	중	180 (41.9)	460 (52.6)	309 (64.4)	480 (52.9)	375 (47.0)	1,804 (52.5)	
	상	83 (17.4)	173 (16.7)	117 (20.6)	264 (22.0)	233 (31.4)	870 (21.9)	

본 표의 수치는 복합표본분석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일부 합계가 100%와 미세하게 차이 날 수 있음.

¹⁾라오-스콧 χ^2 검정

❖ 그림 2-4에는 균형, 절제, 실천 및 종합 점수에서 ‘하’ 등급 비율의 권역별 비교 결과를 제시함.

(단위: %)



복합표본분석

[그림 2-4] 서울시민의 권역별 영양지수 ‘하’ 등급 비율

❖ 영양지수와 권역의 관련성을 보다 명확히 도출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2-7).

- 동남권에 비해 서북권은 균형 등급 ‘하’일 가능성이 0.41배($p=0.002$)로 낮음.
- 동남권에 비해 절제 등급 ‘하’일 가능성이 도심권은 1.71배($p=0.011$), 동북권은 1.87배($p=0.001$) 높고, 서남권은 0.42배($p<0.001$)로 낮게 나타남.
- 동남권에 비해 실천 등급 ‘하’일 가능성이 도심권은 1.81배($p=0.044$), 서남권은 1.76배($p=0.014$) 높음.
- 동남권에 비해 종합 점수 등급 ‘하’일 가능성이 도심권은 2.25배($p=0.001$)인 반면, 서북권은 0.56배($p=0.017$)로 낮음.

〈표 2-7〉 서울시민의 권역과 영양지수 ‘하’ 등급의 관련성

구분	균형 등급 ‘하’	절제 등급 ‘하’	실천 등급 ‘하’	전체 등급 ‘하’
	OR (95% CI) ¹⁾			
도심권	1.06 (0.59-1.90)	1.71 (1.13-2.59)*	1.81 (1.02-3.21)*	2.25 (1.37-3.67)**
동북권	0.62 (0.37-1.06)	1.87 (1.28-2.73)**	1.48 (0.95-2.32)	1.46 (0.94-2.26)
서북권	0.41 (0.23-0.72)**	1.20 (0.76-1.90)	1.54 (0.83-2.86)	0.56 (0.35-0.90)*
서남권	1.32 (0.81-2.16)	0.42 (0.30-0.61)***	1.76 (1.12-2.74)*	1.14 (0.75-1.73)
동남권 [기준]	1	1	1	1

복합표본분석

* $p<0.05$, ** $p<0.01$

¹⁾로지스틱 회귀분석

2) 서울시민의 권역별 아침식사 및 식품별 섭취 행태

- ❖ 권역은 아침식사 및 식품별 섭취 행태와도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2-8).
 - 아침식사 및 섭취가 권장되는 식품(과일, 채소, 우유 및 유제품)의 섭취 행태를 살펴보면, 서북권은 아침식사(매일 섭취 38.5%), 과일(하루 1회 이상 섭취 46.0%), 우유 및 유제품(하루 1회 이상 섭취 30.4%) 섭취에서 상대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보인 반면, 서남권은 과일(하루 1회 이상 섭취 20.4%), 채소 반찬류(하루 1회 이상 섭취 21.0%), 우유 및 유제품(하루 1회 이상 섭취 19.0%) 섭취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
 - 과다 섭취 제한이 필요한 식품(맵고 짠 국물음식, 패스트푸드, 단맛 간식, 가당음료)의 섭취 행태를 살펴보면, 서남권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반면, 동남권은 맵고 짠 국물 음식(하루 1회 이상 섭취 36.7%), 도심권과 동북권은 패스트푸드(주 1회 이상 섭취 도심권 43.4%, 동북권 46.2%), 서북권은 단맛 간식(하루 1회 이상 섭취 52.3%), 동북권은 가당음료(주 3회 이상 섭취 38.2%) 섭취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과일의 경우, 하루 1회 이상 섭취 비율이 가장 낮은 서남권(20.4%)과 가장 높은 서북권(46.0%) 사이에는 2배 이상의 차이가 나타났고, 채소 반찬류도 하루 1회 이상 섭취 비율이 가장 낮은 서남권(21.0%)과 가장 높은 동남권(55.6%) 간에 2배 이상의 차이가 확인됨
 - 패스트푸드의 경우, 주 1회 이상 섭취 비율이 가장 낮은 서남권(22.0%)과 가장 높은 동북권(46.2%) 사이에 2배 이상의 차이가 나타났고, 가당음료 또한 주 3회 이상 섭취 비율이 가장 낮은 서남권(15.1%)과 가장 높은 동북권(38.2%)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확인됨.
 - 이러한 결과는 권역별로 식품 섭취 빈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며, 이를 반영한 맞춤형 식생활 개선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함.
- ❖ 권역과 아침식사 및 식품별 섭취 행태와의 연관성을 보다 명확히 도출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유의적인 연관성이 확인됨(표 2-9).
 - 동남권에 비해 서북권은 아침식사를 매일 섭취할 가능성이 2.28배($p=0.001$) 높음.
 - 동남권에 비해 서남권은 과일을 매일 1회 이상 섭취할 가능성이 1.92배 높으나, 서남권은 0.49배로 낮음($p<0.001$).
 - 동남권에 비해 채소 반찬류를 매일 1회 이상 섭취할 가능성은 도심권($p<0.001$), 서북권($p=0.013$), 서남권($p<0.001$)에서 각각 0.32배, 0.56배, 0.22배로 낮음.
 - 동남권에 비해 패스트푸드를 주 1회 이상 섭취할 가능성은 도심권, 동북권에서 각각 2.39배($p=0.001$), 2.94배($p<0.001$) 높음.
 - 동남권에 비해 가당음료를 주 1회 이상 섭취할 가능성은 동북권이 2.24배 높음($p=0.001$).

〈표 2-8〉 서울시민의 권역에 따른 아침식사 및 식품별 섭취 행태

명 (%)

구분	도심권 (n=384)	동북권 (n=877)	서북권 (n=521)	서남권 (n=921)	동남권 (n=732)	전체 (n=3,435)	p ¹⁾
아침식사 (매일)	102 (25.3)	249 (30.3)	186 (38.5)	244 (27.6)	192 (24.4)	973 (29.0)	0.036
과일 (일 1회 이상)	125 (25.5)	311 (33.3)	277 (46.0)	218 (20.4)	266 (36.3)	1,197 (31.1)	<0.001
채소 반찬류 (일 1회 이상)	140 (26.7)	452 (50.6)	218 (39.8)	197 (21.0)	369 (55.6)	1,376 (40.0)	<0.001
우유 및 유제품 (일 1회 이상)	115 (23.9)	241 (30.8)	137 (30.4)	180 (19.0)	131 (21.6)	804 (24.9)	0.001
맵고 짠 국물음식 (일 1회 이상)	157 (34.0)	261 (32.6)	116 (25.2)	163 (20.6)	199 (36.7)	896 (28.9)	<0.001
패스트푸드 (주 1회 이상)	170 (43.4)	370 (46.2)	145 (32.0)	183 (22.0)	143 (24.8)	1,011 (32.4)	<0.001
단맛 간식 (일 1회 이상)	126 (26.8)	410 (44.3)	267 (52.3)	234 (27.1)	323 (46.4)	1,360 (39.5)	<0.001
가당음료 (주 3회 이상)	56 (19.5)	335 (38.2)	29 (5.9)	113 (15.1)	114 (20.4)	647 (22.5)	<0.001

복합표본분석

¹⁾라오-스콧 χ^2 검정

〈표 2-9〉 서울시민의 권역과 아침식사 및 식품별 섭취 행태와의 관련성

권역	OR (95% CI) ¹⁾			
	아침식사 (매일)	과일 (일 1회 이상)	채소 반찬류 (일 1회 이상)	우유 및 유제품 (일 1회 이상)
도심권	1.13 (0.66-1.93)	0.69 (0.43-1.17)	0.32 (0.20-0.20)***	1.29 (0.78-2.11)
동북권	1.30 (0.87-1.96)	1.02 (0.70-1.49)	0.88 (0.61-1.26)	1.81 (1.19-2.76)**
서북권	2.28 (1.42-3.66)**	1.92 (1.23-2.99)**	0.56 (0.36-0.88)*	1.48 (1.06-2.86)*
서남권	1.19 (0.81-1.74)	0.49 (0.34-0.71)***	0.22 (0.15-0.31)***	0.92 (0.61-1.37)
동남권 [기준]	1	1	1	1
권역	맵고 짠 국물음식 (일 1회 이상)	패스트푸드 (주 1회 이상)	단맛 간식 (일 1회 이상)	가당음료 (주 3회 이상)
도심권	0.89 (0.56-1.41)	2.39 (1.44-3.96)**	0.35 (0.23-0.55)***	0.77 (0.42-1.41)
동북권	0.80 (0.54-1.18)	2.94 (1.87-4.63)***	0.80 (0.56-1.12)	2.24 (1.42-3.53)**
서북권	0.51 (0.31-0.83)**	1.37 (0.81-2.30)	1.12 (0.70-1.77)	0.24 (0.12-0.47)***
서남권	0.40 (0.27-0.59)***	0.80 (0.51-1.26)	0.40 (0.29-0.57)***	0.69 (0.43-1.10)
동남권 [기준]	1	1	1	1

복합표본분석

*p<0.05, **p<0.01, ***p<0.001

¹⁾로지스틱 회귀분석

3) 서울시민의 권역별 외식 행태

- ❖ 권역은 외식 행태와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2-10).
 - 서북권은 음식점 음식을 주 4회 이상 섭취하는 비율이 16.6%로 낮은 수준이나, 동북권은 39.6%로 2배 이상임($p<0.001$).
 - 도심권과 동북권은 배달 음식을 주 1회 이상 섭취하는 비율이 각각 38.4%, 37.9%로 상대적으로 높으며, 동남권은 10.7%로 낮음($p<0.001$).
 - 편의점 음식을 주 1회 이상 섭취하는 비율은 동북권이 30.3%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서북권(24.1%)과 도심권(22.6%)도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동남권은 8.0%로 편의점 음식 섭취 빈도가 낮음($p<0.001$).
 - 식품비 부담 비율이 가장 높은 서북권은 음식점 음식 섭취 빈도가 가장 낮은 반면, 편의점 음식 섭취 빈도는 비교적 높은 특성을 보임.
 - 동북권에 거주하는 시민은 외식·간편식 의존도가 높으며, 가정 내 조리 빈도가 낮을 가능성을 보인 반면, 동남권은 음식점 음식 섭취 빈도는 비교적 높지만 배달 음식과 편의점 음식 이용률이 가장 낮아 편의식 의존도가 낮음.
 - 이러한 결과는 권역이 외식 행태에 매우 유의적인 영향력을 나타냄을 보여주며, 권역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 생활 패턴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 또한, 건강 식생활 정책 수립 시 권역별 맞춤형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함.

〈표 2-10〉 서울시민의 권역에 따른 외식 행태

구분	명 (%)						p ¹⁾
	도심권 (n=384)	동북권 (n=877)	서북권 (n=521)	서남권 (n=921)	동남권 (n=732)	전체 (n=3,435)	
음식점 음식 (주 4회 이상)	97 (20.4)	308 (39.6)	112 (16.6)	161 (22.4)	179 (30.2)	857 (28.5)	<0.001
배달 음식 (주 1회 이상)	164 (38.4)	311 (37.9)	103 (18.7)	170 (20.3)	90 (10.7)	838 (24.5)	<0.001
편의점 음식 (주 1회 이상)	118 (22.6)	262 (30.3)	127 (24.1)	73 (11.0)	70 (8.0)	650 (18.5)	<0.001

복합표본분석

¹⁾라오-스콧 χ^2 검정

- ❖ 권역과 외식 행태의 관련성을 보다 명확히 도출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유의적인 연관성이 확인됨(표 2-11).
 - 동남권에 비해 음식점 음식을 주 4회 이상 섭취할 가능성은 동북권에서 1.77배($p=0.012$)로 높고, 도심권, 서북권, 서남권은 각각 0.57배($p=0.040$), 0.43배($p=0.004$), 0.61배($p=0.033$)로 낮음.
 - 동남권에 비해 배달 음식을 주 1회 이상 섭취할 가능성은 도심권과 동북권에서 각각 5.76배($p<0.001$), 5.82배($p<0.001$)로 매우 높고, 서북권, 서남권에서도 각각 2.06배

($p=0.019$), 2.23배($p=0.004$)로 높음.

- 동남권에 비해 편의점 음식을 주 1회 이상 섭취할 가능성은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에서 각각 3.10배($p=0.001$), 5.17배($p<0.001$), 3.78배($p<0.001$)임.

〈표 2-11〉 서울시민의 권역과 외식 행태의 관련성

권역	OR (95% CI) ¹⁾		
	음식점 음식 (주 4회 이상)	배달 음식 (주 1회 이상)	편의점 음식 (주 1회 이상)
도심권	0.57 (0.33-0.98)*	5.76 (3.13-10.62)***	3.10 (1.59-6.07)**
동북권	1.77 (1.14-2.75)*	5.82 (3.35-10.11)***	5.17 (2.85-9.37)***
서북권	0.43 (0.24-0.77)**	2.06 (1.13-3.77)*	3.78 (2.06-6.97)***
서남권	0.61 (0.39-0.96)*	2.23 (1.30-3.84)**	1.38 (0.75-2.53)
동남권 [기준]	1	1	1

복합표본분석

* $p<0.05$, ** $p<0.01$, *** $p<0.001$

¹⁾로지스틱 회귀분석

4) 서울시민의 권역별 식생활 관련 인식, 주관적 건강상태 및 행복도

- ❖ 식생활 관련 인식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식생활중요도(3.81점)에 비해 식생활만족도(3.58점)와 건강식생활 노력(3.41점)은 낮은 수준으로 평가됨(표 2-12).
- ❖ 권역에 따른 차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 건강식생활 노력 정도($p<0.001$)와 식생활중요도($p<0.001$)는 유의한 차이가 있으나, 식생활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
 - 건강식생활 노력 정도와 식생활중요도는 동남권에서 높은 수준인 반면, 도심권에서 낮게 나타남.

〈표 2-12〉 서울시민의 권역에 따른 식생활 관련 인식

구분	평균 (표준오차)						$p^1)$
	도심권 (n=384)	동북권 (n=877)	서북권 (n=521)	서남권 (n=921)	동남권 (n=732)	전체 (n=3,435)	
건강식생활 노력	3.30 (0.07)	3.34 (0.05)	3.43 (0.06)	3.39 (0.06)	3.59 (0.06)	3.41 (0.05)	<0.001
식생활만족도	3.56 (0.06)	3.51 (0.05)	3.61 (0.06)	3.59 (0.05)	3.65 (0.07)	3.58 (0.04)	0.118
식생활중요도	3.64 (0.06)	3.80 (0.05)	3.72 (0.06)	3.84 (0.05)	4.05 (0.06)	3.81 (0.04)	<0.001

복합표본분석, 5점 만점

¹⁾공분산분석(성별, 연령, 학력, 가구형태,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 보정)

- ❖ 권역에 따라 주관적 건강상태($p<0.001$)와 행복도($p<0.001$) 역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표 2-13).

- 주관적 건강상태는 동남권(3.97점)이 가장 높고 서북권(3.50점)과 동북권(3.55점)이 낮은 수준임.
- 행복도는 서북권(6.87점)이 가장 높고 도심권(5.87점)이 가장 낮음.

〈표 2-13〉 서울시민의 권역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 및 행복도

구분	평균 (표준오차)						p ³⁾
	도심권 (n=384)	동북권 (n=877)	서북권 (n=521)	서남권 (n=921)	동남권 (n=732)	전체 (n=3,435)	
주관적 건강상태 ¹⁾	3.74 (0.06)	3.55 (0.06)	3.50 (0.06)	3.71 (0.06)	3.97 (0.06)	3.69 (0.04)	<0.001
행복도 ²⁾	5.87 (0.13)	6.62 (0.10)	6.87 (0.11)	6.06 (0.09)	6.19 (0.09)	6.32 (0.07)	<0.001

복합표본분석

¹⁾5점 만점, ²⁾10점 만점, ³⁾공분산분석(성별, 연령, 학력, 가구형태,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 조정)

5. 요약 및 정책 제언

1) 요약

- ❖ 서울시 다섯 개 권역의 식품환경만족도 및 주요 식생활 특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표 2-14와 같음.
- ❖ 각 권역별 식품환경만족도 및 식생활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도심권**: 학생 비율이 높고 월평균 가구소득이 낮으며, 가용성, 물리적 접근성, 가격적정성, 수용성 측면 모두에서 식품환경만족도가 가장 낮은 권역임. 식품비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으나, 식품비 부담에 따라 식품 구매량 축소 및 다양한 식품 구매 자제, 신선식품 대신 가공식품 구매 경향이 나타나 식생활의 양적·질적 수준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음. 식사의 질이 전반적으로 낮고, 건강에 해로운 식품을 적게 섭취하는 절제 수준, 건강하고 안전한 식행동을 실천하는 수준도 낮음. 패스트푸드 섭취가 많고, 과일·채소 섭취는 충분하지 않은 반면 배달 음식, 편의점 음식 의존도가 높아 영양 불균형 위험이 존재함에도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노력이 충분하지 않음.
 - **동북권**: 학생 비율이 도심권 다음으로 높고, 편의성 측면에서 식품환경만족도가 가장 낮은 권역임. 식사의 질이 전반적으로 낮고, 건강에 해로운 식품 섭취를 자제하는 절제 수준과 건강하고 안전한 식행동을 실천하는 수준이 미흡함. 특히 가공음료 섭취가 많고, 단맛 간식 섭취 수준도 높아 당류 과다 섭취의 위험이 있음. 또한, 패스트푸드를 비롯해 음식점 음식, 배달 및 편의점 음식 등 편의식 의존도가 높은 것이 특징적임.
 - **서북권**: 주부·무직자 비율이 높고, 식품비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는 권역임. 식품비 부담으로 인해 외식 축소, 구매처 변경, 가공식품 구매, 저가식품 구매 경향이 두드러져, 결과적으로 식품비 부담이 식생활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아침식사 섭취율과 과일 섭취율이 높고 식사의 질은 비교적 양호하나, 단맛 간식 섭취율이 가장 높아 당류 과다 섭취 위

힘이 존재함. 음식점과 배달 음식 이용은 적지만, 편의점 음식 섭취가 많은 특징이 있음.

- **서남권:** 필요한 식품을 골고루 다양하게 먹는 균형 측면의 식생활 실천이 미흡하며, 과일·채소 등 신선식품 섭취율이 낮아 영양 불균형 위험이 있음. 그러나, 맵고 짠 음식 및 패스트푸드 섭취율이 낮은 점은 긍정적인. 유제품 섭취율이 낮아 칼슘 섭취 부족 가능성이 있음.
- **동남권:** 소득 수준이 높은 권역으로, 가용성, 물리적 접근성, 수용성 측면에서 식품환경만족도가 높으나, 가격적정성 측면의 만족도는 낮음. 음식점 이용은 많지만 배달 및 편의점 음식 이용이 적어 가정식 중심의 건강한 식생활 유지 가능성이 높음. 채소 섭취율이 높고 균형 잡힌 식생활을 실천하는 편이나, 유제품 섭취율이 낮아 칼슘 섭취 부족 가능성이 있음. 또한, 맵고 짠 국물음식과 단맛 간식 섭취가 많아 나트륨과 당류 과다 섭취 가능성이 있음.

〈표 2-14〉 서울시민의 권역에 따른 식품환경만족도 및 주요 식생활 특성 요약

구분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인구사회학적 특성	학생△ 월평균 가구소득▼	학생△	주부/무직/기타△		월평균 가구소득△
식품환경만족도	▼				△
-가용성	▼				△
-물리적 접근성	▼				△
-가격적정성	▼				▼
-편의성	▼	▼			
-수용성	▼				△
물가 상승 인식			△	▼	▼
식품비 부담	▼		△		
식품비 부담 대응 행동	대형 식품 구매 자제△ 구매량 축소△ 구매처 변경△ 가공식품 구매△		외식 축소△ 구매처 변경△ 가공식품 구매△ 저가식품 구매△ 변화 없음▼		변화 없음△
영양지수	종합▼ 절제▼ 실천▼	종합▼ 절제▼ 실천▼		균형▼	
권장식품 섭취	과일▼ 채소▼	채소△	아침식사△ 과일△	과일▼ 채소▼ 우유▼	채소△ 우유▼
제한식품 섭취	국물음식△ 패스트푸드△	국물음식△ 패스트푸드△ 단맛 간식△ 가당음료△	단맛 간식△		국물음식△ 단맛 간식△
외식 행동	배달 음식△ 편의점 음식△	음식점 음식△ 배달 음식△ 편의점 음식△	음식점 음식▼ 편의점 음식△	편의점 음식▼	음식점 음식△ 배달 음식▼ 편의점 음식▼
건강식생활 노력	▼				△

△: 다른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다른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2) 정책 제언

- ❖ 서울시민의 식품환경만족도 및 식생활 패턴은 권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며, 이를 반영한 맞춤형 식생활 개선 전략이 필요함. 이를 위해 다섯 가지 핵심 전략을 제안함.

가. 지역 맞춤형 식품환경 개선

- ❖ 가용성, 물리적 접근성, 가격적정성, 편의성, 수용성 등이 확보된 물리적 식품환경은 건강한 식생활 유지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임.
- ❖ 서울시민의 식품환경 만족도는 권역별로 차이를 보이므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식품환경 개선 정책이 요구됨.
 - 전반적인 식품환경 만족도가 낮고, 수용성에 대한 만족도가 특히 낮은 도심권에서는 편의점 등 물리적 접근이 용이한 소규모 상점에서 채소·과일을 비롯한 다양한 식품을 판매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함.
 - 동북권은 이동식 시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 소량 배달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 ❖ 동남권은 저소득층 대상 가격적정성 개선 대책이 필요함.
 - 동남권은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권역이나 가격적정성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 이에 따라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신선식품 공급망 구축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함.
- ❖ 특히, 서울시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식품 사막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식품 사막화란 신선하고 건강한 식품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식품 사막(food desert)’이 확산되는 현상을 의미하며, 서울시에서는 특히 신선식품을 취급하는 식료품점이 감소하는 반면, 가공식품을 주로 판매하는 편의점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¹⁾. 따라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식품 사막화 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식 마트 운영, 지역 내 소형 슈퍼마켓 지원 등 식품 접근성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함.

나. 식품비 부담 완화 및 가격 안정화 정책

- ❖ 서울시 물가정보(sftc.seoul.go.kr/mulga) 서비스에 식품 가격 변동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개선하여, 가격 정보 비교 후 최적의 구매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민 맞춤형 정보 제공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음.
 - 더불어 해당 서비스에 대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보다 적극적인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1) 성태경, 이수기(2021). 서울시 근린지역 식품환경의 접근성 변화와 식품사막 현상 분석: 저소득 고령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56(1), 137-155.

- ❖ 대형마트, 편의점 등과 협력하여 서민형 장바구니 상품(기본 식재료 패키지)을 개발하고, '서울형 공공 마트'를 시범 운영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신선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 구축을 검토할 수 있음. 이때 일본 돗토리현 사례²⁾를 참고할 수 있음.

다. 건강 식행동 장려 프로그램 강화

- ❖ 서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건강에 해로운 식품을 절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교육 프로그램 및 캠페인이 필요함.
 - 패스트푸드, 단맛 간식, 맵고 짠 국물 음식 등의 섭취 절제를 유도하는 교육 프로그램 및 캠페인이 필요하며, 특히 학생 비율이 높은 도심권과 동북권을 중심으로 대학생 대상 프로그램 우선 도입이 필요함.
- ❖ 권역별 식생활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맞춤형 식습관 개선 캠페인을 제안함.
 - 도심권: '매일 채소·과일', '패스트푸드 줄이기'
 - 동북권: '가당음료 적게 마시기', '패스트푸드와 단맛 간식 줄이기'
 - 서북권: '단맛 간식 줄이기'
 - 서남권: '매일 채소·과일', '하루 한컵 우유'
 - 동남권: '맵고 짠 국물음식과 단맛 간식 줄이기', '하루 한컵 우유'

라. 현명한 외식 및 간편식 선택 지원

- ❖ 배달 음식과 편의점 음식 소비가 높은 도심권과 동북권을 중심으로, 특히 청년이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지원해야 함.
 - 편의점에서 건강 도시락, 한 컵 과일, 샐러드 등의 건강식 옵션 확대가 필요하며, 건강식 구매 시 포인트 적립,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프로모션 강화가 필요함.
 - 배달 앱 기업과 협력하여 배달 앱에 건강 메뉴 추천 기능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음.
 - 건강한 배달 및 편의점 음식 선택 가이드 제공도 도움이 될 수 있음.
- ❖ 음식점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동북권과 동남권을 중심으로 의무 대상이 아닌 음식점까지 영양정보 표기를 유도하고, 건강한 메뉴 개발 및 판매 지원이 필요함.
 - 학생 비율이 높은 동북권은 가성비 건강 메뉴 개발, 소득 수준이 높은 동남권은 프리미엄 건강 외식 확산 정책 추진을 권장함.
 - 영양정보 표기는 의무 대상 아닌 음식점, 배달 음식 전문점 등으로도 확대를 권장함.

2) 일본 돗토리현은 식품 사막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마트를 도입한 대표적인 사례로, 신선한 식품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지방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마트를 설립하였음. 이를 통해 주민들은 신선한 농산물과 식료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도 기여하였음. 이러한 돗토리현의 공공 마트 모델은 식품 사막화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지역에도 적용 가능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마. 식품환경 모니터링 및 데이터 기반 정책 마련

- ❖ 권역별 식품환경 및 식생활 변화 추이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데이터 기반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선행연구에 따르면, 서울시는 신선식품을 제공하는 슈퍼마켓의 수는 감소하는 반면, 가공 식품 위주의 편의점은 크게 증가하여 신선식품 접근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 고령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식품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음³⁾.
- 따라서 서울시의 식품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자료 수집과 분석을 통해 지역별 식품 접근성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
- ❖ 또한, 시행된 정책의 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정책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 적용하여야 함.

3) 성태경, 이수기(2021). 서울시 근린지역 식품환경의 접근성 변화와 식품사막 현상 분석: 저소득 고령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56(1), 137-155.



03

서울시민의 식품안전신뢰도 및 식품위생 실천 수준

2024 서울시민 먹거리조사 심층 분석 보고서



1. 분석 배경 및 목적

- ❖ 식품안전은 서울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며,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 수준은 소비자의 식품 구매 및 소비 행동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임.
- ❖ 최근 배달음식 이용 증가, 무인판매점 확대 등으로 인해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수입산 농·축·수산물에 대한 불안감, 외식 및 배달음식의 위생 문제 등은 식품안전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 개인의 식품위생 실천은 식중독 예방 및 건강 유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서울시민의 식품위생 실천 수준과 그 결정 요인을 분석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의미를 지님.
- ❖ 이에 본 분석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서울시민의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 수준은 어떠한가, 이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
 - 서울시민의 식품위생 실천 수준은 어떠한가, 이를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 ❖ 이에 따라, 서울시민의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 수준과 식품위생 실천 수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신뢰도 저하의 주요 원인과 식품위생 실천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을 도출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식품안전 정책 수립 및 실행을 위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통해 서울시가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임.

2. 분석 내용 및 방법

1) 분석 변수 및 분석 내용

가. 식품안전신뢰도

- ❖ 전반적인 식품안전신뢰도
 - ‘식품안전신뢰도’는 ‘서울 시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식품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 신뢰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조사 문항 D1을 활용하여 5점 만점으로 분석함.
 - 또한, 해당 문항에 ‘안전하지 않음’(①, ② 응답)으로 응답한 235명, ‘안전함’(③, ④ 응답)으로 응답한 1,830명을 각각 ‘저신뢰군’, ‘고신뢰군’으로 구분함.
- ❖ 식품 유형별 식품안전신뢰도
 - 조사 문항 D2를 활용하여 국내산 농산물, 수입산 농산물, 국내산 수산물, 수입산 수산물, 국내산 축산물, 수입산 축산물 안전에 대한 신뢰 수준을 각각 5점 만점으로 분석함.

나. 식품안전불안 관련 요인

- ❖ 식품안전불안 이유
 - 전반적인 식품안전신뢰도에 대한 문항(조사 문항 D1)에 ‘매우 안전하지 않다’ 또는 ‘안전하지 않다’로 응답한 235명을 대상으로 조사 문항 D1-1을 활용하여 안전하지 않다고 생

각하는 이유를 분석함.

❖ 음식 판매처별 식품안전·위생 우려 요인

- 전체 대상자 3,435명을 대상으로 서울 시내 외식업소(조사 문항 D4), 배달업소(조사 문항 D5), 길거리 음식 판매점(조사 문항 D6), 식품 무인판매점(조사 문항 D7)의 식품안전·위생에 대해 우려하는 요인을 분석함.
- 또한, 조사 문항 D8를 활용하여 서울 시내에서 판매되는 배달음식 중 식품안전·위생에 대해 우려하는 음식의 종류를 분석함.

다. 식품위생 실천 수준

- ❖ ‘식품위생 실천 수준’은 ‘가정에서 개인이 실천하는 식품위생관리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식품 취급, 보관, 조리 및 위생적 식습관 등과 관련된 총 14개 문항(조사 문항 B13, B19-4, D10-1~D10-12) 응답에 대한 총 평균값으로 산출함(5점 만점).
- ❖ 또한, 평균값을 기준으로 두 그룹(저실천군, 고실천군)으로 구분함.

라. 먹거리안정

- ❖ ‘먹거리안정’은 ‘최근 1년간 양적·질적 식생활 충분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조사 문항 B2를 활용하여 최근 1년 동안 서울시민의 먹거리안정 수준을 3개 그룹으로 구분함.
- 양적·질적충분: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먹을 수 있는, 양적·질적 측면 모두에서 식생활이 안정된 상태(조사 문항 B2의 ①번 응답)
- 양적충분/질적부족: 양은 충분하였으나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항상 먹지는 못한, 질적으로 식생활이 안정되지 못한 상태(조사 문항 B2의 ②번 응답)
- 양적·질적부족: 가끔 또는 자주 먹을 것이 충분하지 못한, 양적·질적 측면 모두에서 식생활이 안정하지 못한 상태(조사 문항 B2의 ③, ④번 응답)

마. 식품환경만족도

- ❖ ‘식품환경만족도’는 ‘지역사회 식품환경의 가용성, 물리적 접근성, 가격적정성, 편의성, 수용성에 대한 만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임.
- ❖ 조사 문항 C5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식품환경의 가용성(C5-1), 물리적 접근성(C5-2), 가격적정성(C5-3), 편의성(C5-4), 수용성(C5-5) 등 5개 문항 응답에 대한 총 평균값으로 산출함.
- ❖ 또한, 평균값을 기준으로 두 그룹(저만족군, 고만족군)으로 구분함.

바. 식품소비행동

- ❖ 식재료 주요 구매 장소
 - 조사 문항 D3을 활용하여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을 구매하는 주요 구매 장소를 분석함.
- ❖ 온라인 식품구매
 - 조사 문항 C4를 활용하여 온라인 식품구매 정도를 ‘미활용’(한번도 없다), ‘저빈도’(한달에 1~2회), ‘고빈도’(한달에 3~4회, 1주일에 2회 이상) 그룹으로 구분함.
- ❖ 식품정보 활용
 - 조사 문항 B18-1을 활용하여 가공식품의 식품정보 이해 정도, 조사 문항 B19-2를 활용하여 가공식품 구매 시 식품정보 확인 정도, 조사 문항 B19-3을 활용하여 식품 구매 시 원산지 확인 정도를 분석함.
- ❖ 외식 행태
 - 조사 문항 A6을 활용하여 음식점 음식 섭취 빈도를 ‘주 4회 미만’과 ‘주 4회 이상’으로, 배달음식 섭취 빈도와 편의점 음식 섭취 빈도는 ‘주 1회 미만’과 ‘주 1회 이상’으로 구분함.

사. 식생활관련 인식, 주관적 건강상태 및 행복도

- ❖ 식생활관련 인식
 - 건강식생활 노력(조사 문항 B4), 식생활만족도(조사 문항 B8), 식생활중요도(조사 문항 B9)를 5점 만점(1~5점)으로 분석함.
- ❖ 주관적 건강상태 및 행복도
 - 주관적 건강상태(조사 문항 B5)는 5점 만점(1~5점)으로, 행복도(조사 문항 B10)는 10점 만점(0~10점)으로 분석함.

아. 인구사회학적 특성

- ❖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구분함.
 - 성별은 남성, 여성으로 구분하고, 연령은 6개 그룹(18~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으로 구분함.
 - 학력은 고졸 이하와 대학 입학 이상으로 구분함.
 - 가구형태는 1인 가구와 다인 가구, 미성년자녀가 있는 가구와 없는 가구로 구분함.
 - 직업은 근로자, 주부, 학생/무직/기타로 구분함.
 - 월평균 가구소득은 5개 그룹(200만원 미만, 200~350만원 미만, 350~500만원 미만, 500~700만원 미만, 700만원 이상)으로 구분함.
 - 권역은 5개 그룹(도심권: 종로구, 중구, 용산구; 동북권: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서북권: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서남권: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동남권: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으로 구분함.

2) 분석 방법

- ❖ 식품안전신뢰도, 식품위생 실천 수준 등의 차이는 교차분석 또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연령, 학력, 가구형태,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을 보정한 공분산분석을 수행하여 분석함.
- 응답자 총 3,435명 중 식품위생 실천 수준에 대한 14개 문항 중 1문항 이상에 응답을 하지 않은 대상자 289명을 제외하고 총 3,146명의 자료를 분석함.
- ❖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기타 요인에 따른 식품안전불안, 식품위생 저실천군의 가능성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성별, 연령, 학력, 가구형태,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 보정)을 실시함.
- ❖ 통계분석은 SPSS 27.0 프로그램(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복합표본분석을 실시함.
- ❖ 분석 결과는 가중되지 않은 빈도와 가중 백분율, 가중 평균과 표준오차, 또는 오즈비(OR)와 95% 신뢰구간(95% CI)으로 제시함.

3. 주요 결과 1: 서울시민의 식품안전신뢰도 및 식품안전불안 관련 요인

1) 서울시민의 식품안전신뢰도

- ❖ 서울 시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식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5.4%이며, 서울시민의 전반적인 식품안전신뢰도는 평균 3.52점(5점 만점 기준)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됨.
- ❖ 식품안전신뢰도를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비교한 결과, 월평균 가구소득($p=0.004$) 및 권역($p<0.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표 3-1, 그림 3-2).
- ❖ 소득 수준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층(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과 고소득층(월평균 가구소득 700만 원 이상)에서 식품안전신뢰도가 각각 3.61점, 3.58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중간 소득층은 이보다 낮으며, 특히 500~700만원 미만 소득층은 3.42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
- 고소득층은 경제적 여유로 인해 프리미엄 브랜드나 친환경, 유기농 등 고가의 식품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식품안전 문제에 대한 불안감을 덜 느끼기 때문으로 해석됨.
- 반면, 중간 소득층은 저소득층보다 기대치가 높지만, 프리미엄 식품에 대한 접근은 제한적일 수 있어 일상적으로 접하는 중저가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결과는 서울시의 식품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중간 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적 대응과 홍보가 필요함을 시사함.
- ❖ 권역별로는 서북권에서 식품안전신뢰도가 3.72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동남권 (3.61점)에서 높은 수준이며, 도심권에서 3.33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
- 이는 권역별로 식품안전신뢰도가 낮은 원인을 심층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이에 따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함.

〈표 3-1〉 서울시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식품안전신뢰도

평균 (표준오차), n=3,435

구분		식품안전신뢰도	p ¹⁾
성별	남성	3.50 (0.04)	0.339
	여성	3.54 (0.04)	
연령	18~29세	3.56 (0.06)	0.304
	30대	3.51 (0.05)	
	40대	3.50 (0.05)	
	50대	3.60 (0.06)	
	60대	3.50 (0.05)	
	≥70대	3.43 (0.08)	
학력	고졸 이하	3.53 (0.04)	0.504
	대학입학 이상	3.50 (0.04)	
가구형태	1인 가구	3.48 (0.05)	0.201
	다인 가구	3.55 (0.03)	
미성년자녀	무	3.51 (0.03)	0.839
	유	3.52 (0.05)	
직업	근로자	3.54 (0.03)	0.462
	주부	3.47 (0.05)	
	학생/무직/기타	3.54 (0.06)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3.61 (0.08)	0.004
	200~350만원 미만	3.53 (0.05)	
	350~500만원 미만	3.45 (0.05)	
	500~700만원 미만	3.42 (0.05)	
	≥700만원 이상	3.58 (0.06)	
권역	도심권	3.33 (0.06)	<0.001
	동북권	3.51 (0.05)	
	서북권	3.72 (0.05)	
	서남권	3.42 (0.05)	
	동남권	3.61 (0.05)	

복합표본분석, 5점 만점

¹⁾공분산분석(성별, 연령, 학력, 가구형태, 미성년자녀 유무,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 권역 보정)

(단위: %)



복합표본분석, 공분산분석(성별, 연령, 학력, 가구형태, 미성년자녀 유무,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 권역 보정)

p<0.01, *p<0.001

[그림 3-1] 서울시민의 월평균 가구소득 및 권역별 식품안전신뢰도

- ❖ 서울 시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식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서울시민의 특성을 보다 명확히 도출하기 위해 저신뢰군(235명)과 고신뢰군(1,830명)을 비교한 결과, 월평균 가구소득($p=0.007$)과 권역($p<0.001$) 이외에 가구 형태($p=0.021$)와 직업($p=0.005$)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표 3-2).
- 저신뢰군은 1인 가구의 비율이 30.4%로 고신뢰군(21.3%)보다 높음.
- 저신뢰군은 주부의 비율이 24.6%로 고신뢰군(17.1%)보다 높고, 학생/무직/기타의 비율은 저신뢰군이 5.1%로 고신뢰군(14.4%)보다 낮음.
-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저신뢰군에서 월평균 가구소득 200~700만원 미만의 비율이 84.4%로 고신뢰군(66.2%)보다 높고, 200만원 미만 저소득자나 7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비율은 고신뢰군에서 높음. 특히, 고신뢰군의 700만원 이상 고소득자 비율이 26.4%로 저신뢰군(10.8%)의 2배 이상임.
- 권역에 따라서는 저신뢰군에서 도심권과 서남권의 비율이 각각 8.3%, 48.6%로 고신뢰군(도심권 3.4%, 서남권 27.5%)에 비해 높음.

〈표 3-2〉 서울시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식품안전신뢰도 그룹 유형

		명 (%)			
구분		저신뢰군 (n=235)	고신뢰군 (n=1,830)	전체 (n=2,065)	p ¹⁾
성별	남성	104 (42.6)	800 (45.8)	904 (45.5)	0.592
	여성	131 (57.4)	1,030 (54.2)	1,161 (54.5)	
연령	18~29세	17 (11.8)	145 (19.9)	162 (19.1)	0.331
	30대	51 (18.4)	387 (15.7)	438 (16.0)	
	40대	38 (20.1)	310 (16.9)	348 (17.2)	
	50대	40 (14.6)	348 (18.7)	388 (18.3)	
	60대	61 (22.0)	492 (19.2)	553 (19.5)	
	≥70대	28 (13.2)	148 (9.5)	176 (9.9)	
학력	고졸 이하	122 (46.3)	862 (42.2)	984 (42.6)	0.483
	대학입학 이상	113 (53.7)	968 (57.8)	1,081 (57.4)	
가구 형태	1인 가구	61 (30.4)	362 (21.3)	423 (22.1)	0.021
	다인 가구	174 (69.6)	1,468 (78.7)	1,642 (77.9)	
미성년 자녀	무	194 (73.3)	1,570 (76.5)	1,764 (76.2)	0.489
	유	41 (26.7)	260 (23.5)	301 (23.8)	
직업	근로자	165 (70.3)	1,332 (68.5)	1,497 (68.7)	0.005
	주부	57 (24.6)	367 (17.1)	424 (17.8)	
	학생/무직/기타	13 (5.1)	131 (14.4)	144 (13.5)	
가구 소득 (월)	〈200만원	8 (4.9)	88 (7.5)	96 (7.2)	0.007
	200~350만원 미만	69 (28.7)	418 (21.6)	487 (22.2)	
	350~500만원 미만	74 (30.1)	470 (22.1)	544 (22.9)	
	500~700만원 미만	65 (25.6)	491 (22.5)	556 (22.8)	
	≥700만원	19 (10.8)	363 (26.4)	382 (24.9)	
권역	도심권	30 (8.3)	175 (3.4)	205 (3.9)	〈0.001
	동북권	35 (17.9)	455 (28.6)	490 (27.6)	
	서북권	21 (5.7)	326 (14.8)	347 (13.9)	
	서남권	101 (48.6)	422 (27.5)	523 (29.4)	
	동남권	48 (19.5)	452 (25.8)	500 (25.2)	

본 표의 수치는 복합표본분석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일부 합계가 100%와 미세하게 차이 날 수 있음.

저신뢰군: 서울 시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식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그룹

고신뢰군: 서울 시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식품이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그룹

¹⁾라오-스콧 χ^2 검정

❖ 저신뢰군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다 명확히 도출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구형태, 미성년자녀 유무,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표 3-3).

- 다인 가구보다 1인 가구가 저신뢰군일 가능성이 2.04배 높고($p<0.001$),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저신뢰군일 가능성이 2.28배 높음($p<0.001$). 이는 1인 가구

의 경우 외식·배달 의존도가 높아 불안감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며,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건강한 먹거리 선택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보임.

- 학생/무직/기타에 비해 근로자는 저신뢰군일 가능성이 2.38배($p=0.049$), 주부는 3.59배($p=0.006$) 높음. 이는 가정 내 식품을 주로 담당하는 주부가 식품 안전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을 보여줌. 한편, 근로자는 바쁜 생활로 인해 외식·배달 의존도가 높아 불안감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월평균 가구소득 700만원 이상에 비해 350~500만원 미만, 500~700만원 미만의 경우 저신뢰군일 가능성이 각각 3.48배($p=0.002$), 2.45배($p=0.014$) 높음. 고소득층의 경우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성별, 연령, 학력, 권역에 따라서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음.

〈표 3-3〉 서울시민의 식품안전불안과 관련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OR (95% CI) ¹⁾
성별	남성	1.04 (0.64~1.70)
	여성 [기준]	1
연령	18~29세	0.45 (0.15~1.41)
	30대	0.46 (0.14~1.49)
	40대	0.51 (0.17~1.55)
	50대	0.50 (0.16~1.59)
	60대	0.70 (0.29~1.72)
	≥70대 [기준]	1
학력	고졸 이하	0.98 (0.56~1.71)
	대학입학 이상 [기준]	1
가구형태	1인 가구	2.04 (1.38~3.00)***
	다인 가구 [기준]	1
미성년자녀	유	2.28 (1.46~3.56)***
	무[기준]	1
직업	근로자	2.38 (1.00~5.62)*
	주부	3.59 (1.45~8.89)**
	학생/무직/기타 [기준]	1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0.80 (0.19~3.40)
	200~350만원 미만	2.25 (0.95~5.32)
	350~500만원 미만	3.48 (1.57~7.68)**
	500~700만원 미만	2.45 (1.20~5.01)*
	≥700만원 [기준]	1
권역	도심권	2.89 (0.96~8.66)
	동북권	0.64 (0.26~1.54)
	서북권	0.42 (0.15~1.19)
	서남권	2.18 (0.97~4.93)
	동남권 [기준]	1

복합표본분석

* $p<0.05$, *** $p<0.001$

¹⁾식품안전신뢰도 그룹(고신뢰군=0, 저신뢰군=1)을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 ❖ 식품안전불안과 관련하여 인구사회학적 변수 이외 기타 요인의 영향력을 도출하기 위해 먹거리안정, 식품환경만족도, 식품위생 실천 수준, 식중독 경험 유무를 활용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먹거리안정 및 식품위생 실천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표 3-4).
- 먹거리안정 수준이 양적·질적충분인 경우에 비해 양적·질적부족인 경우 저신뢰군일 가능성이 2.54배 높음($p=0.004$). 이는 먹거리안정 수준이 낮은 경우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식품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저렴한 저품질 식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해석됨.
- 식품위생 실천 수준이 높은 사람에 비해 낮은 사람이 저신뢰군일 가능성이 1.81배 높음($p=0.011$). 이는 위생에 신경 쓰는 사람일수록 식품 안전 정보에 관심이 많고, 신뢰할 수 있는 식품을 구매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됨. 그러나 반대로 위생에 대한 높은 관심이 오히려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높일 수도 있으므로 보다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함.
- 식품환경만족도, 식중독 경험 유무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표 3-4〉 서울시민의 식품안전불안과 관련한 기타 요인

구분		OR (95% CI) ¹⁾
먹거리안정	양적·질적부족	2.54 (1.35~4.80)**
	양적충분/질적부족	0.94 (0.44~2.00)
	양적·질적충분 [기준]	1
식품환경만족도	낮음	0.92 (0.59~1.43)
	높음 [기준]	1
식품위생 실천 수준	낮음	1.81 (1.15~2.86)*
	높음 [기준]	1
식중독 경험	유	1.03 (0.31~3.41)
	무 [기준]	1

복합표본분석

* $p<0.05$, *** $p<0.001$

¹⁾식품안전신뢰도 그룹(고신뢰군=0, 저신뢰군=1)을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 ❖ 저신뢰군과 고신뢰군의 식품 유형별 안전에 대한 신뢰도를 비교한 결과, 모든 식품 유형에서 저신뢰군의 신뢰도가 고신뢰군보다 유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표 3-5).
- 이는 식품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가 높은 사람이 다양한 식품 유형에 대해서도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줌.
- 전반적으로 수입산 식품에 대한 신뢰도가 더 낮은 경향을 보여, 모든 식품 유형에서 국내산 대비 수입산 식품에 대한 신뢰도가 0.6~0.8점 낮음.
- 저신뢰군의 경우 국내산 농산물과 국내산 축산물을 제외한 모든 식품 유형에서 3점 미만의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수입산 수산물과 수입산 축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각각 2.23점,

2.61점으로 특히 낮게 평가됨.

- 이러한 결과는 수입산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관리, 품질 검증, 유통 투명성 강화 등을 통해 서울시민의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표 3-5〉 서울시민의 식품안전신뢰도 그룹에 따른 식품 유형별 신뢰도

평균 (표준오차)

구분	저신뢰군 (n=235)	고신뢰군 (n=1,830)	전체 (n=2,065)	p ¹⁾
국내산 농산물	3.85 (0.08)	4.03 (0.04)	3.94 (0.05)	0.017
수입산 농산물	2.99 (0.10)	3.37 (0.06)	3.18 (0.07)	<0.001
국내산 수산물	2.89 (0.08)	3.80 (0.04)	3.34 (0.05)	<0.001
수입산 수산물	2.23 (0.09)	3.12 (0.07)	2.68 (0.07)	<0.001
국내산 축산물	3.26 (0.07)	3.90 (0.04)	3.58 (0.04)	<0.001
수입산 축산물	2.61 (0.09)	3.35 (0.06)	2.98 (0.07)	<0.001

복합표본분석, 5점 만점

저신뢰군: 서울 시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식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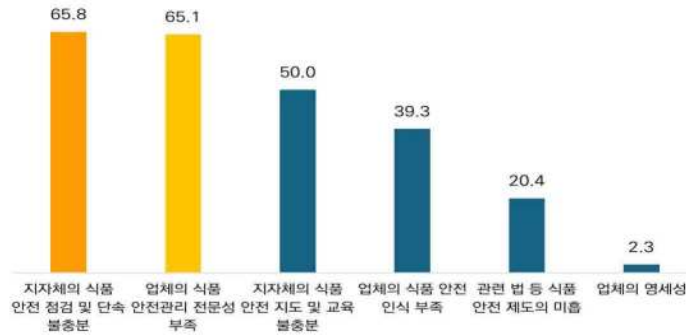
고신뢰군: 서울 시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식품이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그룹

¹⁾공분산분석(성별, 연령, 학력, 가구형태,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 권역 조정)

2) 서울시민의 식품안전불안 이유

- ❖ 저신뢰군 235명을 대상으로 식품안전불안 이유를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지자체의 식품 안전 점검 및 단속 불충분’에 대한 응답이 65.8%로 가장 높고, ‘업체의 식품 안전관리 전문성 부족’에 대한 응답이 65.1%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지자체의 식품 안전 지도 및 교육 불충분’에 대한 응답도 50.0%로 높음(그림 3-2).
- 한편, ‘관련 법 등 식품 안전 제도의 미흡’에 대한 응답은 20.4%로 낮았으며, ‘업체의 영세성’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2.3%에 불과함.
- 이러한 결과는 서울시민이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관련 법 등 식품 안전 제도가 미흡하거나 업체가 영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나, 지자체의 식품 안전 점검 및 단속이 불충분하며 업체의 식품 안전관리 전문성에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줌.

(단위: %)



복합표본분석, 복수응답

[그림 3-2] 서울시민의 식품안전불안 이유

- ❖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식품안전불안 이유를 비교 분석한 결과, 권역에 따라 일부 항목에 대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표 3-6).
- 도심권은 ‘지자체의 식품 안전 점검 및 단속 불충분’에 대한 응답이 95.3%로 높은 반면, 동북권에서는 19.9%로 다른 권역에 비해 매우 낮음($p < 0.001$).
 - ‘관련 법 등 식품 안전 제도의 미흡’에 대한 응답은 서북권(43.3%)에서 높고 동북권(7.1%)에서 낮게 나타남.
 - 그밖에 다른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는 다인 가구(23.9%)가 1인 가구(12.4%)에 비해 ‘관련 법 등 식품 안전 제도의 미흡’에 대한 응답이 높은 경향성을 보였고($p = 0.079$), 근로자(44.6%)와 학생/무직/기타(46.1%)가 주부(22.8%)에 비해 ‘업체의 식품 안전 인식 부족’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경향성을 보임($p = 0.056$).

〈표 3-6〉 서울시민의 권역에 따른 식품안전불안 이유

구분	명 (%)						p ¹⁾
	도심권 (n=30)	동북권 (n=35)	서북권 (n=21)	서남권 (n=101)	동남권 (n=48)	전체 (n=235)	
지자체의 식품 안전 점검 및 단속 불충분	28 (95.3)	11 (19.9)	18 (86.3)	65 (67.0)	35 (86.0)	157(65.8)	<0.001
업체의 식품 안전관리 전문성 부족	9 (48.4)	19 (51.5)	16 (79.2)	67 (63.6)	39 (84.3)	150(65.1)	0.099
지자체의 식품 안전 지도 및 교육 불충분	9 (43.9)	20 (68.0)	11 (67.5)	50 (50.5)	19 (29.9)	109(50.0)	0.068
업체의 식품 안전 인식 부족	17 (51.0)	4 (14.5)	11 (45.4)	42 (45.9)	23 (38.7)	97(39.3)	0.135
관련 법 등 식품 안전 제도의 미흡	16 (36.5)	4 (7.1)	7 (43.3)	18 (20.2)	12 (19.8)	57(20.4)	0.033
업체의 영세성	3 (6.3)	0 (0.0)	0 (0.0)	4 (3.7)	0 (0.0)	7(2.3)	0.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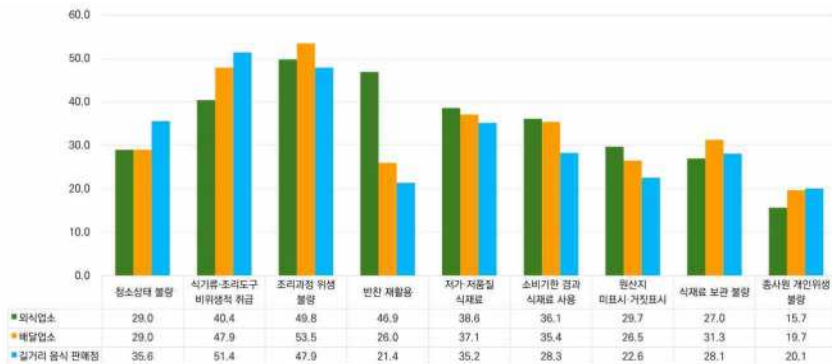
복합표본분석, 복수응답

¹⁾라오-스콧 χ^2 검정

3) 서울시민의 음식 판매처별 식품안전·위생 우려 요인

- ❖ 외식업소, 배달업소, 길거리 음식 판매점에 대한 전체 대상자의 식품안전·위생 우려 요인을 비교한 결과, 전체적으로 ‘식기류·조리도구의 비위생적 취급’과 ‘조리과정 위생 불량’이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조사됨. 특히, ‘식기류·조리도구의 비위생적 취급’은 길거리 음식 판매점(51.4%)에서, ‘조리과정 위생 불량’은 배달업소(53.5%)에서 가장 큰 우려 요인인 것으로 나타남(그림 3-3).
- 외식업소의 경우 다른 장소에 비해 ‘반찬 재활용’(46.9%)에 대한 우려가 크며, 이는 ‘조리과정 위생 불량’ 다음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함.
- 배달업소에서는 ‘식재료 보관 불량’(31.3%)에 대한 우려 역시 다른 장소에 비해 높게 나타남.
- 길거리 음식 판매점의 경우 ‘청소상태 불량’(35.6%)에 대한 우려 역시 주요 우려 요인 중 하나로 조사됨.
- 이러한 결과는 서울시민이 식재료 사용·보관 상태 등 식재료 관리보다 조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품안전·위생 문제에 더욱 민감함을 보여줌.
- 특히, 배달음식의 경우 소비자가 직접 조리 과정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길거리 음식 판매점은 소비자가 직접 경험한 비위생적 조리 과정이나 청소 불량 등이 우려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됨.
- 이를 식품안전불안 요인 분석 결과(그림 3-2)와 연결해 보면, 판매처와 관계없이 조리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식품 안전 및 위생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자체 차원의 식품 안전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업체가 식품 안전관리 전문성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요구됨.

(단위: %)



복합표본분석, 복수응답

[그림 3-3] 서울시민의 음식 판매처별 식품안전·위생 우려 요인

- ❖ 외식업소, 배달업소, 길거리 음식 판매점, 식품 무인 판매점의 식품안전·위생 우려 요인 1~3순위를 저신뢰군과 고신뢰군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두 그룹 모두에서 '조리과정 위생 불량'이 특히 중요한 우려 요인으로 나타남(표 3-7).
- 외식업소에 대한 우려 요인을 살펴보면, 저신뢰군은 '저가·저품질 식재료'를 1순위, 고신뢰군은 '조리과정 위생 불량'을 1순위로 응답함.
- 배달업소에 대한 우려 요인은 저신뢰군이 '저가·저품질 식재료'를 1순위, 고신뢰군이 '조리과정 위생 불량'을 1순위로 응답함.
- 길거리 음식 판매점의 경우, 저신뢰군은 '조리과정 위생 불량'을 1순위, 고신뢰군은 '식기류 및 조리도구 비위생적 취급'을 1순위로 응답함.
- 식품 무인 판매점에 대해서는 두 그룹 모두 '자판기 위생 불량'을 1순위로 응답함.
- 이러한 결과는 서울시민이 음식의 조리 위생 관리를 식품안전·위생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함.
- 또한, 서울시의 전반적인 식품안전에 신뢰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경우, 식재료 품질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것을 보여줌.
- 한편, 고신뢰군에서도 '조리과정 위생 불량'에 대한 우려가 49~55% 수준으로 저신뢰군보다 높아, 전반적인 식품안전신뢰도가 높은 시민들조차 조리과정 위생을 주요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냄. 더불어, 고신뢰군에서 '식기류 및 조리도구 비위생적 취급'에 대한 우려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여,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도가 높더라도 음식 취급 방식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함을 알 수 있음.

〈표 3-7〉 서울시민의 식품안전신뢰도 그룹에 따른 음식 판매처별 식품안전·위생 주요 우려 요인

구분		저신뢰군(n=235)		고신뢰군(n=1,830)	
		우려 요인	%	우려 요인	%
외식업소	1순위	저가·저품질 식재료	52.2	조리과정 위생 불량	49.9
	2순위	반찬 재활용	50.9	반찬 재활용	46.5
	3순위	조리과정 위생 불량	48.9	식기류·조리도구 비위생적 취급	41.9
배달업소	1순위	저가·저품질 식재료	44.6	조리과정 위생 불량	55.1
	2순위	반찬 재활용	41.2	식기류·조리도구 비위생적 취급	49.5
	3순위	조리과정 위생 불량	38.5	저가·저품질 식재료	36.4
길거리 음식 판매점	1순위	조리과정 위생 불량	46.7	식기류·조리도구 비위생적 취급	53.3
	2순위	저가·저품질 식재료	40.5	조리과정 위생 불량	48.0
	3순위	소비기한 경과 식재료 사용	38.0	청소상태 불량	35.6
식품 무인 판매점	1순위	자판기 위생 불량	48.2	자판기 위생 불량	52.0
	2순위	식품 표시 사항 위반	42.6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42.9
	3순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40.6	청소상태 불량	33.0

복합표본분석, 복수응답

저신뢰군: 서울 시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식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그룹

고신뢰군: 서울 시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식품이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그룹

- ❖ 저신뢰군과 고신뢰군이 외식업소의 식품안전·위생에 대해 우려하는 요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식기류 및 조리도구 비위생적 취급’에 대한 응답은 고신뢰군($p<0.001$)이, ‘저가·저품질 식재료’에 대한 응답은 저신뢰군($p=0.003$)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남(표 3-8).

〈표 3-8〉 서울시민의 식품안전신뢰도 그룹에 따른 외식업소 식품안전·위생 우려 요인

구분	저신뢰군 (n=235)	고신뢰군 (n=1,830)	전체 (n=2,065)	n (%)
				p ¹⁾
청소상태 불량	65 (28.6)	568 (29.1)	633 (29.0)	0.931
식기류·조리도구 비위생적 취급	70 (26.4)	768 (41.9)	838 (40.4)	<0.001
조리과정 위생 불량	114 (48.9)	926 (49.9)	1,040 (49.8)	0.836
반찬 재활용	131 (50.9)	751 (46.5)	882 (46.9)	0.378
저가·저품질 식재료	110 (52.2)	710 (37.2)	820 (38.6)	0.003
소비기한 경과 식재료 사용	77 (36.1)	636 (36.1)	713 (36.1)	0.996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	64 (29.1)	561 (29.7)	625 (29.7)	0.878
식재료 보관 불량	69 (24.4)	469 (27.2)	538 (27.0)	0.479
종사원 개인위생 불량	43 (16.5)	294 (15.6)	337 (15.7)	0.759
우려되는 것이 없음	4 (2.1)	50 (2.8)	54 (2.7)	0.658

복합표본분석, 복수응답

저신뢰군: 서울 시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식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그룹

고신뢰군: 서울 시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식품이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그룹

¹⁾라오-스콧 χ^2 검정

- ❖ 배달업소 우려 요인에서는 저신뢰군과 고신뢰군 간의 유의적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 ‘식기류 및 조리도구 비위생적 취급’($p<0.001$), ‘조리과정 위생 불량’($p=0.001$)에 대한 응답은 고신뢰군이, ‘청소상태 불량’($p=0.048$), ‘반찬 재활용’($p<0.001$)에 대한 응답은 저신뢰군이 유의적으로 높음(표 3-9).

〈표 3-9〉 서울시민의 식품안전신뢰도 그룹에 따른 배달업소 식품안전·위생 우려 요인

n (%)

구분	저신뢰군 (n=235)	고신뢰군 (n=1,830)	전체 (n=2,065)	p ¹⁾
청소상태 불량	94 (37.1)	540 (28.2)	634 (29.0)	0.048
식기류·조리도구 비위생적 취급	85 (32.4)	840 (49.5)	925 (47.9)	<0.001
조리과정 위생 불량	88 (38.5)	972 (55.1)	1,060 (53.5)	0.001
반찬 재할용	88 (41.2)	524 (24.4)	612 (26.0)	<0.001
저가 저품질 식재료	96 (44.6)	694 (36.4)	790 (37.1)	0.058
소비가한 경과 식재료 사용	83 (28.4)	661 (36.1)	744 (35.4)	0.107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	70 (26.7)	517 (26.5)	587 (26.5)	0.963
식재료 보관 불량	67 (34.1)	476 (31.0)	543 (31.3)	0.507
종사원 개인위생 불량	66 (31.8)	308 (18.4)	374 (19.7)	0.001
우려되는 것이 없음	10 (3.8)	63 (3.8)	73 (3.8)	0.989

복합표본분석, 복수응답

저신뢰군: 서울 시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식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그룹

고신뢰군: 서울 시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식품이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그룹

¹⁾라오-스콧 χ^2 검정

- ❖ 길거리 음식 판매점에 대한 우려 요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식기류·조리도구 비위생적 취급’에 대해서는 고신뢰군($p<0.001$), ‘소비가한 경과 식재료 사용’에 대해서는 저신뢰군($p=0.019$)의 응답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남(표 3-10).

〈표 3-10〉 서울시민의 식품안전신뢰도 그룹에 따른 길거리 음식 판매점 식품안전·위생 우려 요인

n (%)

구분	저신뢰군 (n=235)	고신뢰군 (n=1,830)	전체 (n=2,065)	p ¹⁾
청소상태 불량	83 (35.4)	633 (35.6)	716 (35.6)	0.951
식기류·조리도구 비위생적 취급	81 (32.7)	901 (53.3)	982 (51.4)	<0.001
조리과정 위생 불량	122 (46.7)	887 (48.0)	1,009 (47.9)	0.791
반찬 재할용	53 (27.2)	448 (20.8)	501 (21.4)	0.094
저가 저품질 식재료	94 (40.5)	623 (34.6)	717 (35.2)	0.186
소비가한 경과 식재료 사용	80 (38.0)	540 (27.3)	620 (28.3)	0.019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	54 (20.0)	449 (22.9)	503 (22.6)	0.453
식재료 보관 불량	64 (26.1)	501 (28.3)	565 (28.1)	0.637
종사원 개인위생 불량	49 (16.4)	363 (20.4)	412 (20.1)	0.244
우려되는 것이 없음	5 (1.4)	62 (3.9)	67 (3.7)	0.081

복합표본분석, 복수응답

저신뢰군: 서울 시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식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그룹

고신뢰군: 서울 시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식품이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그룹

¹⁾라오-스콧 χ^2 검정

- ❖ 식품 무인판매점에 대한 가장 큰 우려 요인은 ‘자판기 위생 불량’(51.7%)이며, 그 다음으로 ‘소비가한 경과 제품 판매’(42.7%), ‘청소상태 불량’(33.5%) 순으로 나타남(표 3-11).
- 고신뢰군과 저신뢰군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식품 표시 사항 위반’에 대한 우려가 저신뢰군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남($p=0.003$).
- 한편, ‘우려되는 것이 없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적으로 11.7%로, 외식업소(2.7%), 배달업소(3.8%), 길거리 음식 판매점(3.7%)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점이 특징적임. 이는 식품 무인판매점이 사람의 개입이 필요한 직접적인 조리 과정 없이 소비자가 개별 포장된 제품을 선택하는 방식이므로, 위생 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을 시사함. 즉, 외식업소나 배달업소, 길거리 음식 판매점에서는 조리 및 취식 과정에서 청결 상태, 조리 도구 위생, 원재료 상태 등이 변수로 작용하지만, 무인판매점은 식품 자체의 보존 상태가 핵심 문제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됨.
- 그러나 무인판매점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보관 및 유통 과정에서 위생 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신선식품이나 조리식품 판매가 증가할 경우 위생 및 보관 기준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3-11〉 서울시민의 식품안전신뢰도 그룹에 따른 식품 무인판매점 식품안전·위생 우려 요인

n (%)

구분	저신뢰군 (n=235)	고신뢰군 (n=1,830)	전체 (n=2,065)	p ¹⁾
청소상태 불량	75 (38.3)	615 (33.0)	690 (33.5)	0.274
자판기 위생 불량	125 (48.2)	1006 (52.0)	1,131 (51.7)	0.486
소비가한 경과 제품 판매	94 (40.6)	779 (42.9)	873 (42.7)	0.606
식품 표시 사항 위반	87 (42.6)	583 (29.1)	670 (30.4)	0.003
제품 보관 불량	79 (34.6)	489 (27.3)	568 (27.9)	0.083
우려되는 것이 없음	20 (7.6)	186 (12.1)	206 (11.7)	0.142

복합표본분석, 복수응답

저신뢰군: 서울 시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식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그룹

고신뢰군: 서울 시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식품이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그룹

¹⁾ 라오-스콧 χ^2 검정

- ❖ 식품 안전·위생이 우려되는 배달 음식 종류를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수산물(60.2%)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고, 치킨(20.8%)이 가장 낮게 나타남(표 3-12).
- 육류($p=0.011$), 수산물($p=0.001$), 김밥($p=0.038$), 샐러드($p=0.035$)에 대해서는 고신뢰군의 응답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은 반면, 중식($p<0.001$), 서양식 패스트푸드($p<0.001$)에 대해서는 저신뢰군의 응답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음.

- 식품안전신뢰도가 낮은 서울시민이 특정 음식에 대해 높은 우려를 보이는 만큼, 해당 음식군을 취급하는 배달 음식점소에 대해 위생 점검을 강화하고, 위생 관리 및 홍보를 통해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또한, 식품안전신뢰도가 높은 서울시민도 특히 수산물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고신뢰군이 식품안전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최근 몇 년간 수산물 관련 문제가 자주 보도되면서 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해석됨. 이러한 결과는 수산물에 대한 식품안전신뢰도가 농산물이나 축산물에 비해 낮게 평가된 결과(표 3-5)와도 연관됨.
- 따라서 수산물 안전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표 3-12〉 서울시민의 식품안전신뢰도 그룹에 따른 식품 안전·위생 우려 배달 음식 종류

구분	n (%)			
	저신뢰군 (n=235)	고신뢰군 (n=1,830)	전체 (n=2,065)	p ¹⁾
육류	65 (22.8)	638 (34.6)	703 (33.5)	0.011
수산물	113 (45.6)	1,082 (61.7)	1,195 (60.2)	0.001
치킨	59 (25.8)	432 (20.2)	491 (20.8)	0.165
중식	140 (65.5)	609 (35.2)	749 (38.1)	<0.001
서양식 패스트푸드	111 (49.0)	474 (24.7)	585 (27.0)	<0.001
김밥	42 (21.6)	554 (31.5)	596 (30.6)	0.038
도시락	58 (24.3)	511 (31.8)	569 (31.1)	0.054
샐러드	42 (16.7)	461 (25.5)	503 (24.6)	0.035

복합표본분석, 복수응답

저신뢰군: 서울 시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식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그룹

고신뢰군: 서울 시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식품이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그룹

¹⁾라오-스콧 χ^2 검정

4. 주요 결과 2: 서울시민의 식품안전신뢰도에 따른 식품소비행동

1) 서울시민의 식품안전신뢰도에 따른 식재료 주요 구매 장소

- ❖ 식품안전신뢰도에 따라 식재료 주요 구매 장소를 3순위까지 비교해 본 결과, 고신뢰군과 저신뢰군 모두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 구매 시 대형마트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표 3-13).
- 특히, 저신뢰군은 고신뢰군보다 대형마트 의존도가 높은 특징을 보여, 수산물(50.0%), 축산물(51.0%)의 경우 과반 수준으로 높게 나타남.
- 또한, 저신뢰군은 가공식품의 주요 구매 장소로 종합 온라인 쇼핑몰을 활용하는 비율(25.5%)이 높은 것 역시 특징적임.

〈표 3-13〉 서울시민의 식품안전신뢰도 그룹에 따른 식재료 주요 구매 장소

구분	저신뢰군(n=235)			고신뢰군(n=1,830)			전체(n=2,065)		
	구매장소		%	구매장소		%	구매장소		%
농산물	1순위	대형마트	37.8	1순위	대형마트	33.3	1순위	대형마트	33.7
	2순위	동네 슈퍼마켓	17.4	2순위	동네 슈퍼마켓	21.3	2순위	동네 슈퍼마켓	20.9
	3순위	전통시장	13.8	3순위	중소형 슈퍼마켓	17.7	3순위	중소형 슈퍼마켓	17.0
수산물	1순위	대형마트	50.9	1순위	대형마트	36.9	1순위	대형마트	38.2
	2순위	전통시장	16.7	2순위	전통시장	21.8	2순위	전통시장	21.3
	3순위	동네 슈퍼마켓	11.0	3순위	중소형 슈퍼마켓	16.8	3순위	중소형 슈퍼마켓	16.3
축산물	1순위	대형마트	51.0	1순위	대형마트	36.0	1순위	대형마트	37.4
	2순위	동네 슈퍼마켓	11.1	2순위	전문 판매점	16.1	2순위	전문판매점	15.4
	3순위	전통시장	10.3	3순위	중소형 슈퍼마켓	15.8	3순위	중소형 슈퍼마켓	15.2
가공식품	1순위	대형마트	29.5	1순위	대형마트	34.5	1순위	대형마트	34.0
	2순위	종합 온라인 쇼핑몰	25.5	2순위	중소형 슈퍼마켓	19.3	2순위	중소형 슈퍼마켓	18.5
	3순위	동네 슈퍼마켓	17.4	3순위	동네 슈퍼마켓	18.3	3순위	동네 슈퍼마켓	18.2

복합표본분석

저신뢰군: 서울 시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식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그룹

고신뢰군: 서울 시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식품이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그룹

2) 서울시민의 식품안전신뢰도에 따른 온라인 식품구매 및 영양표시 확인

- ❖ 식품안전신뢰도에 따른 온라인 식품구매 빈도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표 3-14).
- 이러한 결과는 식품안전신뢰도가 온라인 식품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표 3-14〉 서울시민의 식품안전신뢰도 그룹에 따른 온라인 식품구매

구분	저신뢰군 (n=235)	고신뢰군 (n=1,830)	전체 (n=2,065)	명 (%)
				p ¹⁾
미활용	102 (41.7)	605 (33.0)	707 (33.8)	0.091
저빈도(한달에 1~2회)	91 (39.2)	918 (50.4)	1,009 (49.4)	
고빈도(한달에 3~4회 이상)	42 (19.1)	307 (16.6)	349 (16.9)	

복합표본분석

저신뢰군: 서울 시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식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그룹

고신뢰군: 서울 시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식품이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그룹

¹⁾ 라오-스콧 χ^2 검정

- ❖ 식품안전신뢰도에 따른 영양표시 이해 및 확인 정도를 분석한 결과, 식품정보 이해, 식품정보 확인 수준에서는 유의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원산지 확인 수준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확인됨(표 3-15).
- 저신뢰군의 원산지 확인 점수는 5점 만점에 3.12점으로, 고신뢰군(3.52점)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남($p<0.001$).
- 이러한 결과는 소비기한 및 성분표시 확인 등 식품정보를 확인하는 행위가 식품안전신뢰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줌.
- 그러나, 식품안전신뢰도가 높을수록 원산지 정보를 신뢰하고 이를 더 자주 확인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함.

〈표 3-15〉 서울시민의 식품안전신뢰도 그룹에 따른 영양표시 이해 및 확인 정도

평균 (표준오차)

구분	저신뢰군 (n=235)	고신뢰군 (n=1,830)	전체 (n=2,065)	p ¹⁾
식품정보 이해	3.57 (0.08)	3.52 (0.04)	3.54 (0.06)	0.556
식품정보 확인	3.19 (0.10)	3.27 (0.08)	3.23 (0.07)	0.494
원산지 확인	3.12 (0.11)	3.52 (0.07)	3.32 (0.07)	<0.001

복합표본분석, 5점 만점

저신뢰군: 서울 시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식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그룹

고신뢰군: 서울 시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식품이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그룹

¹⁾공분산분석(성별, 연령, 학력, 가구형태, 미성년자녀유무,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 권역 보정)

3) 서울시민의 식품안전신뢰도에 따른 외식 행태

- ❖ 식품안전신뢰도에 따른 외식 행태를 비교 분석한 결과, 배달음식 섭취 빈도는 유의적 차이가 없으나, 음식점 음식($p=0.002$), 편의점 음식($p=0.026$) 섭취 빈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확인됨(표 3-16).
- 저신뢰군은 주 4회 이상 음식점 음식 섭취 비율이 44.3%로 고신뢰군(29.2%)보다 높으나, 주 1회 이상 편의점 음식 섭취 비율은 9.1%은 고신뢰군(17.9%)보다 낮음.
- 이러한 결과는 식품안전신뢰도가 낮은 서울시민이 음식점을 더 많이 이용하며, 편의점 음식 소비는 적게 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함. 따라서 음식점의 위생관리가 식품안전신뢰도 형성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배달 음식 이용 빈도는 식품안전신뢰도와 관계없이 유사하여 배달 음식의 위생 및 안전 관리 강화가 모든 소비자 그룹에서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

〈표 3-16〉 서울시민의 식품안전신뢰도 그룹에 따른 외식 행태

		명 (%)			
구분		저신뢰군 (n=235)	고신뢰군 (n=1,830)	전체 (n=2,065)	p ¹⁾
음식점 음식	<주 4회	144 (55.7)	1350 (70.8)	1,494 (69.3)	0.002
	≥주 4회	91 (44.3)	480 (29.2)	517 (30.7)	
배달 음식	<주 1회	184 (77.9)	1392 (76.7)	1,579 (76.8)	0.792
	≥주 1회 이상	51 (22.1)	438 (23.3)	489 (23.2)	
편의점 음식	<주 1회	211 (90.9)	1474 (82.1)	1,685 (83.0)	0.026
	≥주 1회 이상	24 (9.1)	356 (17.9)	380 (17.0)	

복합표본분석

저신뢰군: 서울 시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식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그룹

고신뢰군: 서울 시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식품이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그룹

¹⁾라오-스콧 χ^2 검정

- ❖ 식품안전신뢰도와 외식 행태와의 관련성을 보다 명확히 도출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신뢰군에 비해 저신뢰군은 주 4회 이상 음식점 음식 섭취 가능성이 2.8배($p<0.001$) 높으나, 배달 음식, 편의점 음식 섭취에서는 유의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표 3-17).

〈표 3-17〉 서울시민의 식품안전신뢰 그룹과 외식 행태와의 관련성

구분	OR (95% CI) ¹⁾		
	음식점 음식 (주 4회 이상)	배달 음식 (주 1회 이상)	편의점 음식 (주 1회 이상)
저신뢰군	2.79 (1.77-4.40)***	0.86 (0.48-1.55)	0.47 (0.22-1.03)
고신뢰군 [기준]	1	1	1

복합표본분석

저신뢰군: 서울 시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식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그룹

고신뢰군: 서울 시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식품이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그룹

* $p<0.05$, ** $p<0.01$, *** $p<0.001$

¹⁾식품안전신뢰 그룹(고신뢰군=0, 저신뢰군=1)을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4) 서울시민의 식품안전신뢰도에 따른 식생활 관련 인식, 주관적 건강상태 및 행복도

- ❖ 식품안전신뢰도에 따른 식생활 관련 인식을 분석한 결과, 건강식생활 노력 정도와 식생활충요도는 두 그룹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식생활만족도는 저신뢰군이 5점 만점에 4.12점으로 고신뢰군(3.69점)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남($p=0.001$) (표 3-18).
- 보통 식품안전신뢰도가 높을수록 더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고, 이에 따라 식생활만족도

가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분석 결과 반대로 나타남.

〈표 3-18〉 서울시민의 식품안전신뢰도 그룹에 따른 식생활 관련 인식

평균 (표준오차)

구분	저신뢰군 (n=235)	고신뢰군 (n=1,830)	전체 (n=2,065)	p ¹⁾
건강식생활 노력	3.72 (0.11)	3.58 (0.05)	3.65 (0.07)	0.200
식생활만족도	4.12 (0.13)	3.69 (0.05)	3.91 (0.08)	0.001
식생활중요도	4.05 (0.10)	3.90 (0.04)	3.98 (0.06)	0.128

복합표본분석, 5점 만점

저신뢰군: 서울 시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식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그룹

고신뢰군: 서울 시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식품이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그룹

¹⁾공분산분석(성별, 연령, 학력, 가구형태, 미성년자녀유무,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 권역 보정)

- ❖ 행복도 역시 저신뢰군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p=0.006), 주관적 건강상태는 유의적 차이가 없음(표 3-19).

〈표 3-19〉 서울시민의 식품안전신뢰도 그룹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 및 행복도

평균 (표준오차)

구분	저신뢰군 (n=235)	고신뢰군 (n=1,830)	전체 (n=2,065)	p ³⁾
주관적 건강상태 ¹⁾	3.91 (0.12)	3.72 (0.06)	3.81 (0.07)	0.107
행복도 ²⁾	6.94 (0.14)	6.54 (0.09)	6.74 (0.09)	0.006

복합표본분석

저신뢰군: 서울 시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식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그룹

고신뢰군: 서울 시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식품이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그룹

¹⁾5점 만점, ²⁾10점 만점, ³⁾공분산분석(성별, 연령, 학력, 가구형태, 미성년자녀유무,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 권역 보정)

5. 주요 결과 3: 서울시민의 식품위생 실천 수준

1) 서울시민의 식품위생 실천 수준 및 관련 요인

- ❖ 서울시민의 전반적인 식품위생 실천 수준은 5점 만점에 평균 3.82점임.
- ❖ 식품위생 실천 수준은 성별(p<0.001), 학력(p=0.014), 월평균 가구소득(p=0.001), 권역(p<0.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표 3-20).
 - 여성이 3.90점으로 남성(3.74점)보다 높으며, 고졸 이하가 3.85점으로 대학 입학 이상(3.78점)보다 높음.
 -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은 경향을 보여 700만원 이상 고

- 소득자가 3.92점으로 가장 높고, 200만원 이하 저소득자가 3.64점으로 가장 낮음.
- 권역에 따라서는 서북권이 3.93점으로 가장 높고, 서남권이 3.53점으로 가장 낮음.
 - 연령, 가구형태, 미성년자녀 유무, 직업에 따라서는 유의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 이러한 결과는 특정 집단(성별, 교육수준, 월평균 가구소득, 거주지 등)에 따라 식품위생 실천 수준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표 3-20〉 서울시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식품위생 실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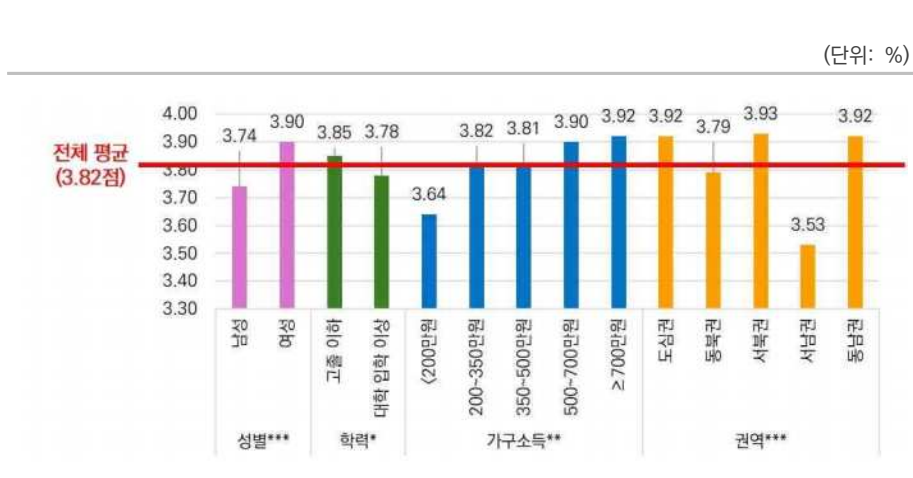
평균 (표준오차), n=3,146

구분		식품위생 실천 수준	p ¹⁾
성별	남성	3.74 (0.03)	<0.001
	여성	3.90 (0.03)	
연령	18~29세	3.83 (0.05)	0.313
	30대	3.87 (0.04)	
	40대	3.85 (0.04)	
	50대	3.78 (0.04)	
	60대	3.82 (0.04)	
	≥70대	3.74 (0.06)	
학력	고졸 이하	3.85 (0.03)	0.014
	대학입학 이상	3.78 (0.03)	
가구형태	1인 가구	3.82 (0.04)	0.723
	다인 가구	3.81 (0.02)	
미성년자녀	무	3.83 (0.03)	0.522
	유	3.80 (0.04)	
직업	근로자	3.88 (0.03)	0.058
	주부	3.82 (0.04)	
	학생/무직/기타	3.76 (0.06)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3.64 (0.07)	0.001
	200~350만원 미만	3.82 (0.04)	
	350~500만원 미만	3.81 (0.04)	
	500~700만원 미만	3.90 (0.03)	
	≥700만원 이상	3.92 (0.04)	
권역	도심권	3.92 (0.04)	<0.001
	동북권	3.79 (0.04)	
	서북권	3.93 (0.05)	
	서남권	3.53 (0.04)	
	동남권	3.92 (0.03)	

복합표본분석, 5점 만점

¹⁾공분산분석(성별, 연령, 학력, 가구형태,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 권역 보정)

- 유익한 차이를 나타낸 성별, 학력, 월평균 가구소득 및 권역별로 식품위생 실천 수준을 전체 평균값(3.82점)과 비교한 그래프를 그림 3-3에 제시함.
- 남성,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저소득자, 동북권 및 서남권 거주자의 식품위생 실천 수준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으며, 특히 서남권에서의 식품위생 실천 수준이 눈에 띄게 낮음.



복합표본분석, 5점 만점, 공분산분석(성별, 연령, 학력, 가구형태, 미성년자녀 유무,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 권역 보정)

p<0.01, *p<0.001

[그림 3-4] 서울시민의 성별, 학력, 소득수준 및 권역별 식품위생 실천 수준

- ❖ 식품위생 실천 수준이 낮은 서울시민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식품위생 실천 수준 평균값을 기준으로 저실천군과 고실천군으로 구분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성별($p<0.001$), 연령($p=0.038$), 권역($p<0.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표 3-21).
- 저실천군의 여성 비율은 44.8%, 고실천군은 62.0%로 고실천군에서 여성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저실천군은 18~29세 비율이 20.2%로 고실천군(16.0%)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고실천군(38.6%)은 30~40대 비율이 저실천군(29.7%)보다 높음. 이는 30대 미만 젊은 청년에서 식품위생 실천이 미흡할 가능성을 시사함.
- 저실천군의 서남권 비율은 43.7%로 고실천군(21.2%)의 2배 이상임. 반면, 고실천군은 동남권과 서북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이는 서남권에서 상대적으로 식품위생 실천이 미흡할 가능성이 큼을 의미함.
- 이러한 결과는 식품위생 실천이 성별, 연령, 지역적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특히 남성, 청년, 서남권 거주자의 경우 실천 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이에 따

라, 이들 그룹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식품위생 교육 및 홍보 강화가 필요함.

〈표 3-21〉 서울시민의 식품위생 실천 수준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

					명 (%)
구분		저실천군 (n=1,383)	고실천군 (n=1,763)	전체 (n=3,146)	p ¹⁾
성별	남성	726 (55.2)	647 (38.0)	1373 (46.1)	<0.001
	여성	657 (44.8)	1116 (62.0)	1773 (53.9)	
연령	18~29세	127 (20.2)	127 (16.0)	254 (18.0)	0.038
	30대	278 (15.5)	406 (19.1)	684 (17.4)	
	40대	200 (14.2)	315 (19.2)	515 (16.9)	
	50대	252 (18.8)	318 (17.0)	570 (17.8)	
	60대	368 (19.5)	484 (20.4)	852 (19.9)	
	≥70대	158 (11.8)	113 (8.3)	271 (9.9)	
학력	고졸 이하	638 (39.9)	818 (42.0)	1456 (41.0)	0.490
	대학입학 이상	745 (60.1)	945 (58.0)	1690 (59.0)	
가구 형태	1인 가구	321 (25.0)	355 (20.5)	676 (22.6)	0.083
	다인 가구	1062 (75.0)	1408 (79.5)	2470 (77.4)	
미성년 자녀	무	1208 (79.5)	1488 (75.2)	2696 (77.2)	0.111
	유	175 (20.5)	275 (24.8)	450 (22.8)	
직업	근로자	981 (67.5)	1253 (68.2)	2234 (67.9)	0.241
	주부	269 (17.1)	404 (19.9)	673 (18.6)	
	학생/무직/기타	133 (15.3)	106 (11.8)	239 (13.5)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94 (8.7)	67 (6.3)	161 (7.4)	0.319
	200~350만원 미만	376 (24.1)	405 (20.4)	781 (22.2)	
	350~500만원 미만	402 (23.3)	474 (24.5)	876 (24.0)	
	500~700만원 미만	331 (23.5)	506 (25.1)	837 (24.4)	
	≥700만원 이상	180 (20.4)	311 (23.7)	491 (22.1)	
권역	도심권	90 (2.9)	197 (4.6)	287 (3.8)	<0.001
	동북권	409 (30.6)	387 (30.2)	796 (30.4)	
	서북권	187 (9.0)	327 (17.3)	514 (13.4)	
	서남권	504 (43.7)	369 (21.2)	873 (31.8)	
	동남권	193 (13.8)	483 (26.6)	676 (20.6)	

본 표의 수치는 복합표본분석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일부 합계가 100%와 미세하게 차이 날 수 있음.

¹⁾라오-스콧 χ^2 검정

- ❖ 식품위생 실천 수준과 관련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다 명확히 도출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 권역에서 유의적 차이가 나타남(표 3-22).
- 여성에 비해 남성은 저실천군일 가능성이 2.28배 높음($p<0.001$).

- 동남권에 비해 동북권은 저실천군일 가능성이 1.79배($p=0.004$), 서남권은 3.83배($p<0.001$) 높음.
- 결론적으로 성별, 연령, 학력, 월평균 가구소득, 거주 지역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식품 위생 실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특히 성별과 거주 지역을 고려한 맞춤형 개인 위생 실천 교육 및 정책이 우선되어야 함을 시사함.

〈표 3-22〉 서울시민의 식품위생 실천 수준과 관련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OR (95% CI) ¹⁾
성별	남성	2.28 (1.71-3.05)***
	여성 [기준]	1
연령	18~29세	1.12 (0.60-2.12)
	30대	0.64 (0.35-1.15)
	40대	0.66 (0.35-1.22)
	50대	1.14 (0.65-1.99)
	60대	0.90 (0.58-1.39)
	≥70대 [기준]	1
학력	고졸 이하	0.78 (0.58-1.06)
	대학 입학 이상 [기준]	1
가구형태	1인 가구	1.28 (0.90-1.82)
	다인 가구 [기준]	1
미성년자녀	무	0.88 (0.61-1.26)
	유[기준]	1
직업	근로자	0.88 (0.53-1.45)
	주부	1.17 (0.67-2.03)
	학생/기타/무직 [기준]	1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1.86 (0.88-3.92)
	200~350만원 미만	1.45 (0.90-2.34)
	350~500만원 미만	1.31 (0.88-1.95)
	500~700만원 미만	1.17 (0.82-1.67)
	≥700만원 [기준]	1
권역	도심권	1.13 (0.65-1.95)
	동북권	1.79 (1.20-2.65)**
	서북권	0.88 (0.55-1.40)
	서남권	3.83 (2.63-5.59)***
	동남권 [기준]	1

복합표본분석

* $p<0.05$, *** $p<0.001$

¹⁾식품위생 실천 수준(고실천군=0, 저실천군=1)을 독립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 식품위생 실천 수준을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3-23과 같음.

- 전체적으로 '육류·가금류 충분한 가열 조리'(4.25점), '냉장·냉동 식품 보관 온도 준수'(4.15점), '식사전 손씻기'(4.10점)가 4점 이상으로 높으며, '식재료 구매 순서 준수'(3.32점), '식재료 세척 순서 준수'(3.36점), '생채소류 소독·세척'(3.38점)이 3.5점 미만으로 낮은 수준임.
- 고실천군이 모든 항목에서 실천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남(모든 항목에 대해 $p < 0.001$).
- '칼·도마·행주 소독'에서 두 그룹간의 차이(0.96점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 위생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조리 도구의 위생 관리에서의 차이가 두드러짐.
- 그밖에 '식재료 구매 순서 준수', '식재료 세척 순서 준수' 등도 각각 0.92점, 0.91점 차이로 두 그룹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 이는 식품을 안전하게 구매하고 세척하는 습관도 식품위생 실천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을 보여줌.
- '식사 전 손씻기', '조리 전 손씻기'는 두 그룹의 점수 차이가 0.4점 미만으로 차이가 적어 손씻기 습관은 일반화된 것으로 해석됨.
- 저실천군의 경우 '생채소류 소독·세척'(2.94점), '식재료 구매 순서 준수'(2.86점), '식재료 세척 순서 준수'(2.90점)에 대한 점수가 3점 미만으로 우선적인 개선이 필요함.

〈표 3-23〉 서울시민의 식품위생 실천 수준에 따른 항목별 실천 수준

평균 (표준오차)

구분	저실천군 (n=1,383)	고실천군 (n=1,763)	전체 (n=3,146)	p ¹⁾
생채소류 소독·세척	2.94 (0.07)	3.82 (0.08)	3.38 (0.07)	<0.001
칼·도마 구분 사용	3.39 (0.05)	4.19 (0.04)	3.79 (0.04)	<0.001
칼·도마·행주 소독	3.32 (0.05)	4.28 (0.05)	3.80 (0.05)	<0.001
냉장·냉동 식품 보관 온도 준수	3.81 (0.05)	4.49 (0.04)	4.15 (0.04)	<0.001
상온 해동 금지	3.40 (0.05)	4.23 (0.05)	3.82 (0.05)	<0.001
해동한 음식 재냉동 금지	3.42 (0.06)	4.22 (0.05)	3.82 (0.05)	<0.001
육류·가금류 충분한 가열 조리	3.95 (0.05)	4.55 (0.04)	4.25 (0.04)	<0.001
조리한 음식 2시간 이내 섭취	3.33 (0.05)	4.05 (0.05)	3.69 (0.05)	<0.001
조리한 음식과 생고기·생채소 구분 보관	3.53 (0.05)	4.35 (0.05)	3.94 (0.05)	<0.001
달걀 적절한 보관	3.59 (0.05)	4.33 (0.04)	3.96 (0.04)	<0.001
식재료 구매 순서 준수	2.86 (0.07)	3.78 (0.06)	3.32 (0.06)	<0.001
식재료 세척 순서 준수	2.90 (0.07)	3.81 (0.06)	3.36 (0.06)	<0.001
식사 전 손 씻기	3.92 (0.05)	4.27 (0.05)	4.10 (0.04)	<0.001
조리 전 손 씻기	3.63 (0.06)	4.02 (0.05)	3.82 (0.05)	<0.001

복합표본분석, 5점 척도

¹⁾공분산분석(성별, 연령, 학력, 가구형태,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 권역 보정)

2) 서울시민의 식품위생 실천 수준과 식품안전신뢰도

- ❖ 식품위생 실천 수준에 따른 식품안전신뢰도를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p<0.001$) (표 3-24).
- 고실천군의 경우 서울시 식품이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2.6%로 저실천군(44.8%)에 비해 높음.
- 식품안전신뢰도를 5점 만점으로 비교한 결과에서도 식품위생 실천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여, 고실천군이 3.60점으로 저실천군(3.47점)보다 유의적으로 높음($p<0.001$).
- 이러한 결과는 서울시민의 식품위생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며, 식품위생 실천을 장려하는 정책 및 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함.

〈표 3-24〉 서울시민의 식품위생관리 수준에 따른 식품안전신뢰도

		명 (%)			
구분		저실천군 (n=1,383)	고실천군 (n=1,763)	전체 (n=3,146)	p ¹⁾
구분	불안전	112 (6.8)	90 (4.1)	202 (5.4)	<0.001
	보통	668 (44.8)	582 (33.3)	1,250 (38.7)	
	안전	603 (48.4)	1,091 (62.6)	1,694 (55.9)	
점수(5점 만점)		3.47 (0.04)	3.60 (0.04)	3.54 (0.04)	0.001

복합표본분석

¹⁾ 라오-스콧 χ^2 검정 또는 공분산분석(성별, 연령, 학력, 가구형태,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 권역 보정)

- ❖ 식품위생 실천 수준에 따른 식품 유형별 식품안전신뢰도를 비교한 결과, 수입산 수산물과 수입산 축산물을 제외한 모든 식품 유형에서 고실천군의 식품안전신뢰도가 저실천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남(표 3-25).
- 수입산 수산물과 수입산 축산물에 대한 신뢰도는 식품위생 실천 수준과 무관하게 낮은 경향을 보임.
- 이는 서울시민들이 수입산 수산물과 축산물에 대해 전반적으로 불신이 높으며, 식품위생 실천과 별개로 수입산 육류와 해산물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을 시사함. 따라서 수입산 수산물과 축산물의 안전성 관리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표 3-25〉 서울시민의 식품위생 실천 수준에 따른 식품 유형별 식품안전신뢰도

평균 (표준오차)

구분	저실천군 (n=1,383)	고실천군 (n=1,763)	전체 (n=3,146)	p ¹⁾
국내산 농산물	3.95 (0.04)	4.16 (0.04)	4.06 (0.03)	<0.001
수입산 농산물	3.29 (0.05)	3.43 (0.05)	3.36 (0.05)	0.001
국내산 수산물	3.59 (0.04)	3.78 (0.04)	3.68 (0.04)	<0.001
수입산 수산물	2.79 (0.06)	2.84 (0.07)	2.82 (0.06)	0.337
국내산 축산물	3.77 (0.04)	3.89 (0.04)	3.83 (0.03)	0.001
수입산 축산물	3.25 (0.05)	3.24 (0.05)	3.24 (0.04)	0.774

복합표본분석, 5점 만점

¹⁾공분산분석(성별, 연령, 학력, 가구형태,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 권역 보정)

3) 서울시민의 식품위생 실천 수준과 식생활 인식, 주관적 건강상태 및 행복도

- ❖ 식품위생 실천 수준에 따른 식생활 인식을 비교한 결과, 건강식생활 노력($p<0.001$), 식생활만족도($p<0.001$), 식생활중요도($p=0.029$) 모두 고실천군의 점수가 유의적으로 높음(표 3-26).
- 이러한 결과는 식품위생 실천 수준이 높은 사람이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려는 노력도 더 많이 기울이는 경향이 있으며, 식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식생활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줌.
- 따라서 식품위생 실천이 부족한 저실천군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뿐 아니라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표 3-26〉 서울시민의 식품위생 실천 수준에 따른 식생활 인식

평균 (표준오차)

구분	저실천군 (n=1,383)	고실천군 (n=1,763)	전체 (n=3,146)	p ¹⁾
건강식생활 노력	3.35 (0.05)	3.74 (0.05)	3.55 (0.04)	<0.001
식생활만족도	3.53 (0.05)	3.73 (0.04)	3.63 (0.04)	<0.001
식생활중요도	3.88 (0.04)	3.96 (0.04)	3.92 (0.04)	0.029

복합표본분석, 5점 만점

¹⁾공분산분석(성별, 연령, 학력, 가구형태,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 권역 보정)

- ❖ 식품위생 실천 수준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 및 행복도를 비교한 결과, 주관적 건강상태($p=0.002$), 행복도($p=0.032$) 역시 고실천군의 점수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남(표 3-27).

〈표 3-27〉 서울시민의 식품위생 실천 수준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 및 행복도

평균 (표준오차)

구분	저실천군 (n=1,383)	고실천군 (n=1,763)	전체 (n=3,146)	p ³⁾
주관적 건강상태 ¹⁾	3.65 (0.05)	3.78 (0.05)	3.71 (0.04)	0.002
행복도 ²⁾	6.38 (0.08)	6.52 (0.07)	6.45 (0.07)	0.032

복합표본분석

¹⁾5점 만점, ²⁾10점 만점, ³⁾공분산분석(성별, 연령, 학력, 가구형태,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 권역 보정)

6. 요약 및 정책 제언

1) 요약

가. 서울시민의 식품안전신뢰도

- ❖ 서울 시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식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시민은 5.4%이며, 전체적인 식품안전신뢰도는 평균 3.52점(5점 만점)임.
 - 식품안전신뢰도는 가구 형태, 직업, 소득수준 및 권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1인 가구, 미성년자녀가 있는 시민, 주부, 중간 소득층(월평균 가구소득 350~700만원 미만), 도심권 및 서남권 거주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먹거리안전 수준이 양적·질적으로 부족하거나, 식품위생 실천 수준이 낮은 경우에도 식품안전신뢰도가 낮은 경향이 있음.
- ❖ 식품 유형별 신뢰도의 경우 전체적으로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은 반면, 수입산 수산물과 축산물에 대한 신뢰도는 3점 미만(5점 만점)으로 낮은 수준임.
 - 식품안전신뢰도가 낮은 시민은 국내산 농산물과 축산물을 제외한 모든 식품 유형에서 3점 미만의 낮은 점수를 보임.
- ❖ 서울시민이 식품안전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지자체의 식품 안전 점검 및 단속 부족(65.8%)과 업체의 식품 안전관리 전문성 부족(65.1%)으로 나타남.
 - 반면, 관련 법·제도의 미흡(20.4%)이나 업체의 영세성(2.3%)은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지 않음.
 - 이는 서울시민이 식품안전과 관련한 법·제도의 문제보다는 실질적인 관리 체계 부족에 대한 불만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러한 경향은 식품안전신뢰도 수준과 관계 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남.
- ❖ 음식 판매처에 대한 가장 큰 식품안전·위생 불안 요인은 식기류 및 조리도구의 비위생적 취급과 조리과정 중의 위생 불량인 것으로 조사됨.
 - 외식업소는 반찬 재활용, 배달업소는 식재료 보관 불량, 길거리 음식 판매점은 청소상태 불량이 추가적인 주요 불안 요인으로 나타남.
 - 식품안전신뢰도가 낮은 시민일수록 식재료 품질에 대한 불안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 식품안전신뢰도와 식품소비행동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는 식품안전신뢰도와 관계없이 가장 많이 이용되는 식품 구매처이지만, 식품안전신뢰도가 낮은 시민의 대형마트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또한, 식품안전신뢰도가 낮은 시민은 동네슈퍼마켓, 전통시장 등 소규모 유통업체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용하는 경향을 보임.
- ❖ 식품안전 신뢰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원산지 정보를 확인하는 경향이 강하며, 음식점 이용이 적은 경향이 있음.

나. 서울시민의 식품위생 실천 수준

- ❖ 서울시민의 전반적인 식품위생 실천 수준은 평균 3.82점(5점 만점)임.
 - 성별과 권역은 식품위생 실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남성과 서남권 거주자의 실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
 - 이외에도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 30대 미만 청년에서도 식품위생 실천 수준이 낮은 경향이 확인됨.
- ❖ 항목별 식품위생 실천 수준을 분석한 결과, 식재료 구매 순서 준수, 식재료 세척 순서 준수, 생채소류 소독·세척 등에서 전반적으로 실천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칼·도마·행주 소독의 경우 고실천군과 저실천군간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남.
 - 식품위생 실천 수준이 낮은 저실천군에서는 특히 생채소류 소독·세척, 식재료 구매 순서 준수, 식재료 세척 순서 준수 실천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우선적인 개선이 필요함.
- ❖ 식품위생 실천 수준이 높은 시민일수록 전반적인 식품안전신뢰도가 높은 경향이 있으며, 건강식생활 노력, 식생활만족도, 식생활중요도 역시 높게 나타남.

2) 정책 제언

가. 식품안전신뢰도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 ❖ 식품 안전관리 및 단속 강화
 - 식품 안전 점검 및 단속 체계를 강화하고, 특히 배달업소, 길거리 음식 판매점, 식품 무인 판매점에 대한 정기적인 위생 점검 및 사후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소비자 참여형 위생 점검 시스템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직접 신고 및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현재 주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는 위생등급제를 배달 전문점, 길거리 음식 판매점, 식품무인 판매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 식품 안전관리 전문성 강화 및 지원 확대
 - 중소 식품업체 및 외식업소, 배달업소, 길거리 음식 판매점, 식품 무인판매점 등을 대상으

로 위생·안전관리 교육 및 컨설팅 지원 확대가 필요함.

❖ 음식 판매처별 위생 신뢰도 제고

- 공통적인 주요 불안 요인인 식기류·조리도구의 비위생적 취급, 조리과정 위생 불량뿐 아니라, 반찬 재활용(외식업소), 식재료 보관 불량(배달업소) 등 음식 판매처별 주요 불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및 관리 강화가 필요함.
- 음식점: 조리 과정 등 위생 관리 실태를 소비자가 보다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오픈 키친' 문화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 배달업소: 고스트 키친(오프라인 매장 없이 배달 전문으로 운영되는 배달 전문점)의 위생 관리 기준과 정기 점검을 강화하고, 개인 위생 관리, 음식 운반 시 위생 관리, 차량 위생 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 배달원 대상 위생 관리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식품 무인 판매점: 식품 보관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방지 시스템 도입이 필요함.

❖ 스마트 식재료 관리 시스템 도입

- 저품질·소비기한 경과 식재료 사용 방지를 위해 음식점 및 배달업소, 길거리 음식 판매점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의 소비기한 및 품질을 추적하는 스마트 식재료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배달 앱 등에서 주요 식재료 원산지 및 소비기한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소비자 대상 신뢰도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 확대

- 수입산 농·축·수산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력 추적 시스템 및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식품의 안전성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해야 함.
-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식품 표시 사항 이해 교육을 강화하고, QR코드 등을 활용하여 관련 정보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나. 식품위생 실천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

❖ 식품위생 취약 계층 대상 위생 교육 강화

- 남성, 서남권 거주자, 저소득층(200만 원 미만), 30대 미만 청년을 우선적 대상으로 한 맞춤형 식품위생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단순한 식중독 예방 정보 제공 수준에서 더 나아가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식품위생 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1인 가구 대상 '안전한 배달음식 보관법', 청년을 위한 온라인·SNS 홍보 캠페인 등을 예시로 들 수 있음.

❖ 위생 실천 미흡 항목 개선을 위한 캠페인 실시

- 식재료 구매 및 세척 순서 준수, 생채소류 소독·세척, 칼·도마·행주 소독 등 특히 실천이 부족한 항목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소비자 대상 안전한 식재료 구매 가이드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식품구매처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소비자들이 식재료를 구매할 때 안전한 구매 순서를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전략적 상품 배치 구성 제안도 도움이 될 수 있음.

- 식품위생 실천 챌린지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자에게 서울사랑상품권 등 인센티브(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다. 안전한 식품 선택을 위한 구매 환경 개선 및 원산지 정보 활용 확대

- ❖ 대형마트 중심의 소비 행태 개선 및 소규모 유통업체 위생 관리 강화
 - 대형마트에 집중된 소비 행태를 완화하고 다양한 구매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및 소규모 유통업체의 위생 관리 강화가 필요함.
 -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마켓 등에 대한 식품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위생 우수 매장 인증제를 적극 활용하여 신뢰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 원산지 정보 제공 강화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
 - 소비자의 원산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표시제도를 강화하고 인증제를 확대하며, 전자 메 뉴판이나 QR코드를 활용한 원산지 정보 제공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배달음식 및 길거리 음식 판매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적용하여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라. 신뢰할 수 있는 식품위생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 ❖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포털(<https://fsi.seoul.go.kr>)의 기능 개선 및 홍보 강화
 - 식품위생 점검 데이터를 보다 상세히 공개하여 지역별·업종별 위생 관리 현황 정보를 확대 제공할 수 있음.
 - ‘우리동네 먹거리 지도정보’ 서비스에 현재 제공하고 있는 채식음식점과 우리동네 모범정 육점 외에도 ‘우리동네 안전한 식당 찾기’ 기능을 추가하여 위생 우수 업소 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포털을 적극 홍보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식품위생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함.



04

서울시 먹거리 취약계층의 식생활 실태

2024 서울시민 먹거리조사 심층 분석 보고서



1. 분석 배경 및 목적

- ❖ 현대 사회에서 개인적 노력만으로는 건강한 식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어려워, 식생활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 ❖ 인구밀도가 높고, 소득 불균형이 큰 도시인 서울시에는 건강한 식생활을 하지 못하는 먹거리 취약계층이 많음.
- ❖ 제한된 자원으로 식생활 정책의 효과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먹거리 취약계층을 선별하고, 각 계층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식생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 이에 본 분석은 서울 시민 중 먹거리 취약계층을 선별하고, 이들의 식생활 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각 계층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식생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분석내용 및 방법

1) 분석 대상

- ❖ 청년 675명과 노인 733명을 분석 대상으로 함.
 - 19세 이상에서 34세 이하의 사람을 “청년”으로 구분하고 있는 『청년기본법』을 참고하여, 만 18세~34세를 청년으로 구분함.
 - 65세 이상의 사람을 “노인”으로 구분하고 있는 『노인복지법』을 참고하여, 만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구분함.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 & 한국영양학회, 2020)을 참고하여 만 65세~74세 노인을 전기노인, 만 75세 이상 노인을 후기노인으로 구분함.
- ❖ 서울시민 중 먹거리 취약계층을 선별하기 위해 ‘영양지수(Nutrition Quotient, NQ)’를 산출한 후, 영양지수가 ‘하’ 등급인 시민들을 먹거리 취약계층으로 정의함.
 - 「2023 서울시 먹거리 통계조사」 심층 분석 보고서에서는 먹거리 취약계층을 ‘먹거리 안정’ 수준에 따라 선별함. 먹거리 안정 조사 문항에 대한 답변에 따라 시민을 세 그룹(양적·질적으로 충분한 식생활을 한 그룹, 양적으로 충분하나 질적으로 부족한 식생활을 한 그룹, 양적·질적 모두 부족한 식생활을 한 그룹)으로 분류함. 이 중 ‘양적으로 충분하나 질적으로 부족한 식생활’을 한 그룹을 먹거리 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식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제안함. 양적·질적으로 모두 부족한 식생활을 한 그룹은 식생활 정책 보다는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으로 분류함.
 - 본 보고서에서는 먹거리 취약계층의 선별에 식생활의 양과 질을 종합적으로 측정, 평가하는 타당도가 검증된 도구인 ‘영양지수’(식품의약품안전처, 2021)를 이용하여 먹거리 취약계층을 선별함.
- ❖ 영양지수는 성인(19~64세)과 노인(65세 이상)에 대하여 다른 평가 항목으로 산출되고 판정 기준도 다르므로, 성인과 노인 각 연령층에서의 먹거리 취약계층을 따로 선별함.
 - 성인은 청년(19~34세)과 중장년(35~64세)으로 구분하여 영양지수 분포를 분석한 결과,

청년에서 영양지수가 ‘하’인 비율(40.8%)이 중장년(20.5%)의 두 배로 파악되어, 청년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선정함.

- 노인은 전기노인(65~74세)과 후기노인(75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영양지수 분포를 분석한 결과, 후기노인에서 영양지수가 ‘하’인 비율(22.5%)이 전기노인(17.7%)보다 높은 경향이 파악되어, 후기노인 집단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선정함. 단, 후기노인만을 대상으로 분석하기에는 그 사례수가 충분하지 않아 초기 분석은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수행함.

2) 분석 변수 및 분석 내용

가. 영양지수

- ❖ 영양지수(Nutrition Quotient, NQ)는 균형, 절제, 실천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됨 (표 4-1). 이 문항의 답을 이용하여 영양지수 산출 프로그램을 통해 영양지수 점수를 도출함.
- 설문지 응답자가 5점 척도 기준으로 응답한 값을 영양지수 프로그램 내 설문지 시트에 입력하면, 해당 값이 자동으로 영양지수 점수 산출 시트에서 각 항목별 점수(균형, 절제, 실천)와 최종 영양지수 점수가 도출됨.
- 균형 점수와 실천 점수는 응답값에서 1을 뺀 후 100을 곱하고 4로 나누는 방식으로, 절제 점수는 5에서 응답값을 뺀 후 100을 곱하고 4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출됨. 이를 통해 변환된 개별 점수들로부터 최종 영양지수 점수가 계산됨.
- 19세 이상 64세 이하 대상자의 경우 성인 영양지수의 문항(18개)을, 65세 이상 대상자의 경우 노인 영양지수의 문항(17개)을 활용함.
- ‘**균형**’은 ‘**필요한 식품을 골고루 다양하게 먹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임. 성인 영양지수의 균형 영역은 채소, 과일, 우유 및 유제품, 콩이나 두부, 견과류, 생선, 전곡 및 잡곡류의 섭취와 아침식사에 대한 8개 항목으로 평가함. 노인 영양지수의 균형 영역은 과일, 우유 및 유제품, 달걀, 콩이나 두부, 견과류, 생선이나 조개류, 전곡 및 잡곡류, 물 섭취에 대한 8개 항목으로 평가함.
- ‘**절제**’는 ‘**건강에 좋지 않은 식품을 적게 섭취하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임. 성인 영양지수의 절제 영역은 기름진 빵이나 과자류, 패스트푸드, 맵고 짭 짜게나 탕류, 붉은색 고기, 가공육의 섭취와 과식·폭식에 대한 6개 항목으로 평가함. 노인 영양지수의 절제 영역은 기름진 빵이나 과자류, 믹스커피 등 설탕이 많이 든 간식 섭취에 대한 2개 항목으로 평가함.
- ‘**실천**’은 ‘**건강을 위해 권장하는 안전한 식행동을 실천하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임. 성인 영양지수의 실천 영역은 음주빈도, 건강에 좋은 식생활 노력 정도, 영양표시 확인 정도, 식사 전 손씻기 정도에 대한 4개 항목으로 평가함. 노인 영양지수의 실천 영역은 건강에 좋은 식생활 노력 정도, 소비기한이나 영양표시 확인 정도, 식사 전 손씻기 정도, 음식을 씹는데 불편하지 않은 정도, 평소에 우울하지 않은 정도, 수면의 질,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7개 항목으로 평가함.

〈표 4-1〉 영양지수 영역별 내용 및 조사항목

영역 (내용)	성인 영양지수		노인 영양지수	
	조사항목	문항 번호	조사항목	문항 번호
균형 (영양적으로 균형된 식사를 하는가,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는가)	귀하는 한 번 식사할 때 김치를 제외한 채소류를 몇 가지나 드십니까?	A3	귀하는 과일을 얼마나 자주 드십니까?	A2-1
	귀하는 과일을 얼마나 자주 드십니까?	A2-1	귀하는 우유 또는 유제품(치즈, 요거트 등)을 얼마나 자주 드십니까?	A2-5
	귀하는 우유 또는 유제품을 얼마나 자주 드십니까?	A2-5	귀하는 생선이나 조개류(오징어, 굴, 새우 등 포함)를 얼마나 자주 드십니까?	A2-12
	귀하는 생선류를 얼마나 자주 드십니까?	A2-12	귀하는 달걀(메추리알 등)을 얼마나 자주 드십니까?	A2-11
	귀하는 콩이나 두부를 얼마나 자주 드십니까?	A2-6	귀하는 콩이나 두부(두유 포함)를 얼마나 자주 드십니까?	A2-6
	귀하는 견과류를 얼마나 자주 드십니까?	A2-13	귀하는 견과류(호두, 잣, 아몬드 등)를 얼마나 자주 드십니까?	A2-13
	귀하는 전곡이나 잡곡류(현미밥, 잡곡밥, 통밀밥 등)를 얼마나 자주 드십니까?	A2-8	귀하는 전곡이나 잡곡류(현미밥, 잡곡밥, 통밀밥 등)를 얼마나 자주 드십니까?	A2-8
	귀하는 일주일 동안 아침식사를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A1	귀하는 하루에 물을 얼마나 자주 드십니까?	A2-17
절제 (건강에 좋지 않은 식품의 섭취를 절제하는가)	귀하는 기름진 튀김(튀김패티, 생크림빵 등)이나 스낵 과자류(감자칩, 고구마칩 등)를 얼마나 자주 드십니까?	A2-14	귀하는 믹스커피, 가당음료, 강정, 사탕 등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간식을 얼마나 자주 드십니까?	A2-16
	귀하는 피자, 햄버거, 프라이드치킨 등의 패스트푸드를 얼마나 자주 드십니까?	A2-15		
	귀하는 맵고 짠 국물 음식(라면, 찌개류, 탕류, 국물 떡볶이 등)을 얼마나 자주 드십니까?	A2-7		
	귀하는 쇠고기, 돼지고기 같은 붉은색 고기를 얼마나 자주 드십니까?	A2-9	귀하는 기름진 튀김(튀김패티, 생크림빵 등)이나 스낵 과자류(감자칩, 고구마칩 등)를 얼마나 자주 드십니까?	A2-14
	귀하는 햄, 소시지, 베이컨 등의 가공육을 얼마나 자주 드십니까?	A2-10		
	귀하는 과식이나 폭식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A5		
실천 (건강을 위해 권장하는 식행동을 실천하는가)	귀하는 평소에 건강에 좋은 식생활을 하려고 노력하십니까?	B4	귀하는 평소에 건강에 좋은 식생활을 하려고 노력하십니까?	B4
	귀하는 외식 시 또는 가공식품을 구입할 때 음식의 영양표시를 확인하십니까?	B14	귀하는 (가공식품을 구입할 때) 소비기한이나 영양표시를 확인하십니까?	B15
	귀하는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으십니까?	B13	귀하는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으십니까?	B13
	귀하는 남자의 경우 7잔(또는 맥주 5캔 정도), 여자의 경우 5잔(또는 맥주 3캔 정도) 이상의 술을 얼마나 자주 드십니까?	A4	귀하는 현재 치아나 틀니, 잇몸 문제로 음식을 씹는 것이 어느 정도 불편하십니까?	B16
			귀하는 평소에 우울함을 어느 정도로 느끼십니까?	B6
			귀하는 잠을 잘 주무시는 편입니까?	B7
			귀하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얼마나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B5

- ❖ 영양지수 점수의 백분위 분포에 따른 기준(표 4-2)에 따라 평가 결과는 ‘상’(양호), ‘중’(보통), ‘하’(불량)의 세 등급으로 판정됨.
 - **상(양호)**: 전국 조사 결과의 백분위 분포의 75.0% 이상에 해당하는 영양지수 점수로 식생활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며 바람직한 식생활을 실천하고 있는 경우
 - **중(보통)**: 전국 조사 결과의 백분위 분포의 25.0~74.9%에 해당하는 영양지수 점수로 식생활 행동이 보통이지만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 **하(불량)**: 전국 조사 결과의 백분위 분포의 0~24.9%에 해당하는 영양지수 점수로 전반적으로 식생활이 불량하여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 ❖ 본 연구에서는 영양지수 등급이 ‘하(불량)’인 사람들을 먹거리 취약계층으로, 영양지수 등급이 ‘상(양호)’ 또는 ‘중(보통)’인 사람들은 먹거리 비취약계층으로 정의함.

〈표 4-2〉 영양지수 판정 기준

구분		‘하’ 등급	‘중’ 등급	‘상’ 등급
		(0~24.9%)	(25.0~74.9%)	(75.0~100%)
성인	균형	0 ~ 30.862	30.863 ~ 55.799	55.800 ~ 100
	절제	0 ~ 66.122	66.123 ~ 85.299	85.300 ~ 100
	실천	0 ~ 51.804	51.805 ~ 74.494	74.495 ~ 100
	종합 점수	0 ~ 52.737	52.738 ~ 68.482	68.483 ~ 100
노인	균형	0 ~ 34.187	34.188 ~ 54.649	54.650 ~ 100
	절제	0 ~ 44.723	44.724 ~ 58.545	58.546 ~ 100
	실천	0 ~ 53.524	53.525 ~ 71.224	71.225 ~ 100
	종합 점수	0 ~ 44.723	44.724 ~ 58.545	58.546 ~ 100

영양지수 프로그램(식품의약품안전처, 2021)

나. 식생활 실태

- ❖ 식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식생활 특성 변수를 분석함(표 4-3).
- ❖ 아침 결식
 - 조사 문항 A1에서 최근 1주일 동안의 아침식사 횟수를 0회, 1~2회, 3~4회, 5~6회, 매일로 구분함.
- ❖ 식품군별 섭취 행태
 - 조사 문항 A2를 활용하여 과일류, 우유 및 유제품류, 콩이나 두부, 전곡류의 섭취 빈도는 각각 ‘주 4회 미만’, ‘주 4회 이상’으로 구분함.
 - 생선류(65세 미만), 생선이나 조개류(65세 이상), 견과류, 달걀류의 섭취 빈도는 각각 ‘주 1회 미만’, ‘주 1회 이상’으로 구분함(조사 문항 A2).
 - 김치를 제외한 채소류 가짓 수는 ‘한 끼 2가지 미만’, ‘한 끼 2가지 이상’으로 구분함(조사

문항 A3).

- 물의 섭취 빈도는 ‘일 5회 미만’, ‘일 5회 이상’으로 구분함(조사 문항 A2).

❖ 과식이나 폭식 빈도

- 조사 문항 A5를 활용하여 최근 한 달 동안의 과식이나 폭식 빈도를 ‘주 1회 미만’, ‘주 1회 이상’으로 구분함.

❖ 식품유형별 섭취 빈도

- 조사 문항 A2를 활용하여 식품유형별 섭취 빈도를 기름진 빵이나 스낵과자류, 설탕이 많이 들어간 간식, 패스트푸드, 붉은색 고기, 가공육의 섭취 빈도는 ‘주 1회 미만’, ‘주 1회 이상’으로 구분하고 맵고 짠 국물 음식의 섭취 빈도는 ‘주 4회 미만’, ‘주 4회 이상’으로 구분함.

❖ 음주 빈도

- 조사 문항 A4를 활용하여 남자의 경우 7잔, 여자의 경우 5잔 이상의 음주 빈도를 ‘월 2회 미만’, ‘월 2회 이상’으로 구분함.

❖ 건강하고 안전한 식행동 실천 정도

- 건강하고 안전한 식행동 실천 정도는 건강에 좋은 식생활 노력 정도(조사 문항 B4), 영양 표시 확인 정도(조사 문항 B14), 소비기한 및 영양표시 확인 정도(조사 문항 B15), 식사 전 손 씻기 정도(조사 문항 B13), 음식을 씹는데 불편하지 않은 정도(조사 문항 B16), 평소에 우울하지 않은 정도(조사 문항 B6), 수면의 질(조사 문항 B7), 주관적 건강상태(조사 문항 B5) 등을 각각 5점 만점으로 분석함.

❖ 외식 행태

- 조사 문항 A6을 활용하여 음식점음식, 배달음식, 편의점음식, 간편조리세트 섭취 빈도는 ‘주 1회 미만’, ‘주 1회 이상’으로 구분함.

❖ 식품환경만족도

- 조사 문항 C5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식생활환경의 가용성(조사 문항 C5-1), 물리적 접근성(조사 문항 C5-2), 가격적정성(조사 문항 C5-3), 편의성(조사 문항 C5-4), 수용성(조사 문항 C5-5)의 총 5개 문항 응답의 평균값(5점 만점)을 산출하여 분석함.

❖ 식생활역량

- 식생활역량은 “개인의 생명 유지 및 건강한 생활을 위한 식품 선택과 관리, 조리 능력뿐만 아니라 음식의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음식이 가진 공동체, 농업, 생태환경의 가치를 고려하는 먹거리 관련 역량”을 말함. 건강한 식생활(조사 문항 B17~19), 즐거운 식생활(조사 문항 B20), 가치있는 식생활(조사 문항 B21~23)의 세 가지 역량을 100점 만점으로 표준화한 값의 평균을 산출하여 분석함.

❖ 식품디지털역량

- 식품디지털역량은 식품과 관련된 디지털 기기의 이용 능력 수준을 측정한 것으로, 식생활

영역 조사 문항 B24를 이용하여 온라인 쇼핑물 식품 구매 능력(조사 문항 B24-1), 음식 점 무인기기 이용 능력(조사 문항 B24-2), 음식 배달 앱 이용 능력(조사 문항 B24-3) 총 3개 문항 응답의 평균값(5점 만점)을 산출하여 분석함.

❖ 식품안전 인식 및 식생활에 대한 인식

- 식품안전 인식도는 조사 문항 D1을 활용하여 서울 시내 유통·판매되는 식품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 인식도를 5점 만점으로 분석함.
- 식생활만족도(조사 문항 B8), 식생활중요도(조사 문항 B9)는 각각 5점 만점으로 분석함.

❖ 식품비 부담 정도

- 조사 문항 C2를 활용하여 올해 식품비 부담 정도를 ‘부담되지 않음’과 ‘부담됨’으로 구분함.

〈표 4-3〉 식생활 실태 변수의 답항 및 코딩

변수	내용	설문지 답항	결과 분석 시 코딩
아침 결식	아침식사 횟수	① 0회, ② 1~2회, ③ 3~4회, ④ 5~6회, ⑤ 매일	
식품군별 섭취 행태	과일 섭취 빈도	① 2주일에 1번 이하 ② 1주일에 1~3번 ③ 1주일에 4~6번 ④ 하루에 1번 ⑤ 하루에 2번 이상	1: 주 4회 미만 0: 주 4회 이상
	우유 또는 유제품(치즈, 요거트 등) 섭취 빈도		
	콩이나 두부(두유 포함) 섭취 빈도		
	전곡이나 잡곡류(현미밥, 잡곡밥, 통밀빵 등) 섭취 빈도	① 거의 먹지 않았다 ② 1주일에 1~3번 ③ 1주일에 4~6번 ④ 하루에 1번 ⑤ 하루에 2번 이상	1: 주 4회 미만 0: 주 4회 이상
	달걀(메추리알 등 포함) 섭취 빈도		
	생선류(65세 미만)/생선이나 조개류(65세 이상) 섭취 빈도	① 거의 먹지 않았다 ② 2주일에 1번 ③ 1주일에 1~3번 ④ 1주일에 4~6번 ⑤ 하루에 1번 이상	1: 주 1회 미만 0: 주 1회 이상
	견과류(호두, 잣, 아몬드 등) 섭취 빈도		
	한 번 식사할 때 김치를 제외한 채소류 섭취 빈도	① 거의 먹지 않았다 ② 1가지 ③ 2가지 ④ 3가지 ⑤ 4가지 이상	1: 한 끼 2가지 미만 0: 한 끼 2가지 이상
	물 섭취 빈도	① 거의 마시지 않았다 ② 하루에 1~2잔 ③ 하루에 3~4잔 ④ 하루에 5~6잔 ⑤ 하루에 7~8잔 이상	1: 일 5회 미만 0: 일 5회 이상

변수	내용	설문지 답항	결과 분석 시 코딩
과식이나 폭식 빈도	과식이나 폭식 빈도	① 거의 하지 않았다 ② 한 달에 1번 ③ 2주일에 1번 ④ 1주일에 1번 ⑤ 1주일에 3~4번 ⑥ 하루에 1번 이상	1: 주 1회 미만 0: 주 1회 이상
식품유형별 섭취 빈도	맵고 짠 국물 음식(라면, 찌개류, 탕류, 국물 떡볶이 등) 섭취 빈도	① 2주일에 1번 이하 ② 1주일에 1~3번 ③ 1주일에 4~6번 ④ 하루에 1번 ⑤ 하루에 2번 이상	1: 주 4회 미만 0: 주 4회 이상
	쇠고기, 돼지고기 같은 붉은색 고기 섭취 빈도	① 거의 먹지 않았다 ② 1주일에 1~3번 ③ 1주일에 4~6번 ④ 하루에 1번 ⑤ 하루에 2번 이상	1: 주 1회 미만 0: 주 1회 이상
	햄, 소시지, 베이컨 등의 가공육 섭취 빈도	① 거의 먹지 않았다 ② 1주일에 1~3번 ③ 1주일에 4~6번 ④ 하루에 1번 ⑤ 하루에 2번 이상	
	피자, 햄버거, 프라이드 치킨 등의 패스트푸드 섭취 빈도	① 거의 먹지 않았다 ② 1주일에 1~3번 ③ 1주일에 4~6번 ④ 하루에 1번 ⑤ 하루에 2번 이상	
음주 빈도	남자의 경우 7잔(또는 맥주 5캔 정도), 여자의 경우 5잔(또는 맥주 3캔 정도) 이상의 술을 마시는 빈도	①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았다 ② 한 달에 1번 미만 ③ 한 달에 1번 정도 ④ 한 달에 2~4번 ⑤ 1주일에 2~3번 정도 ⑥ 1주일에 4번 이상	1: 월 2회 미만 0: 월 2회 이상
외식 행태	음식점 음식(방문포장 포함) 섭취 빈도	① 거의 먹지 않았다 ② 한 달에 1번 이하 ③ 한 달에 2~3번 ④ 1주일에 1~3번 ⑤ 1주일에 4~6번 ⑥ 하루에 1번 이상	1: 주 1회 미만 0: 주 1회 이상
	배달음식 섭취 빈도		
	편의점음식(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등 즉석 섭취 식품) 섭취 빈도		
	간편조리세트(밀키트: 집에서 직접 조리할 수 있는 식품 패키지) 섭취 빈도		
식품비 부담 정도	식품비 부담 정도	①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 ② 부담이 되지 않는 편이다 ③ 부담이 되는 편이다 ④ 매우 부담이 된다	1: 부담되지 않음 0: 부담됨

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다음의 변수를 사용함.

- 성별은 남성, 여성으로 구분함.
- 학력의 경우, 청년에서는 고졸 이하, 대학입학 이상으로 구분하고, 노인에서는 중졸 이하, 고졸 이상으로 구분함.
- 가구형태는 1인 가구, 다인 가구로 구분함.
- 연령의 경우, 청년에서는 변수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노인에서는 2개 그룹(65~74세, 75세 이상)으로 구분함.
- 직업의 경우, 청년에서는 3개 그룹(근로자, 학생, 주부/무직/기타)으로 구분하고, 노인에서는 2개 그룹(근로자, 주부/무직/기타)으로 구분함.

- 가구소득의 경우, 청년과 노인에서 모두 각 3개 그룹으로 구분하였으나 청년과 노인의 월 평균 가구소득의 분포가 유의하게 다른 점을 고려하여 소득범위를 다르게 설정하였음. 청년에서는 월 300만원 미만, 월 300~500만원 미만, 월 500만원 이상의 3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노인에서는 월 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50만원 이상의 3개 그룹으로 구분함.

3) 분석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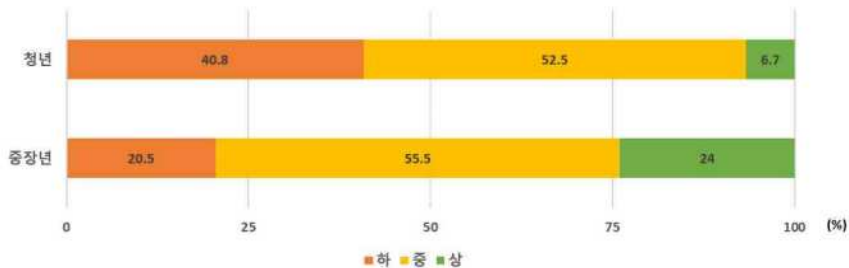
- ❖ 서울시 먹거리 취약계층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 연령층(청년/노인)별로 영양지수 등급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학력, 가구형태, 연령,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 분포 차이의 유의성을 라오-스콧(Rao-Scott) χ^2 검정으로 검증함. 먹거리 취약계층(영양지수 '하')과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함.
- ❖ 서울시 먹거리 취약계층의 식생활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영양지수 등급별로 주요 식생활 특성(아침 결식, 식품군별 섭취 빈도, 과식·폭식 빈도, 식품유형별 섭취 빈도, 음주 빈도, 건강하고 안전한 식행동 실천 정도, 외식 행태, 식품환경만족도, 식생활역량, 식품디지털역량, 식품안전 인식 및 식생활에 대한 인식, 식품비 부담 정도)을 라오-스콧(Rao-Scott) χ^2 검정 또는 공분산분석(ANCOVA)을 통해 비교함. 공분산분석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연령, 학력, 가구형태,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을 공변량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으며,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경우 본페로니(Bonferroni) 사후검정을 실시하여 다중 비교를 수행함.
- ❖ 청년에서는 남성 청년과 여성 청년, 학생 청년과 근로자 청년 간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노인에서는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 후기노인과 전기노인 간 차이를 분석함. 학생 청년과 근로자 청년 간 차이를 비교할 때, 본 연구에서는 학생 청년의 식생활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기존의 직업 구분(근로자, 학생, 주부/무직/기타) 중 표본수가 적은 주부/무직/기타 집단은 분석에서 제외하고 근로자와 학생 집단을 비교 분석함.
- ❖ 모든 통계분석은 SPSS 29.0 프로그램(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복합표본분석을 적용하여 수행함.
- ❖ 기술 통계의 경우, 가중치지 않은 빈도와 가중한 백분율 또는 가중한 평균과 표준오차로 제시함.

3. 주요 결과 1: 서울시 먹거리 취약계층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 서울시의 먹거리 취약계층은 누구인가?

- ❖ 서울시 성인 중에서는 청년(18~34세)이 먹거리 취약계층임(그림 4-1).
 - 먹거리 취약계층을 선별하기 위해 성인 영양지수를 분석한 결과, 청년 5명 중 2명(40.8%)의 영양지수가 '하' 등급이었음. 이는 중장년(35~64세, 20.5%)의 약 두 배에 해당하며, 서울시 성인 중 청년이 먹거리 취약계층 비율이 높은 집단임을 보여줌.
 - 영양지수가 '하' 등급으로 판정되는 성인은 대한민국 전체 성인의 영양지수 분포에서 하위 25.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임. 따라서 영양지수가 '하'인 청년이 전체 서울시 청년의 40.8%로 25.0%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 결과를 통해, 대한민국 성인 중 서울시 청년이 먹거리 취약계층 비율이 높은 집단임을 알 수 있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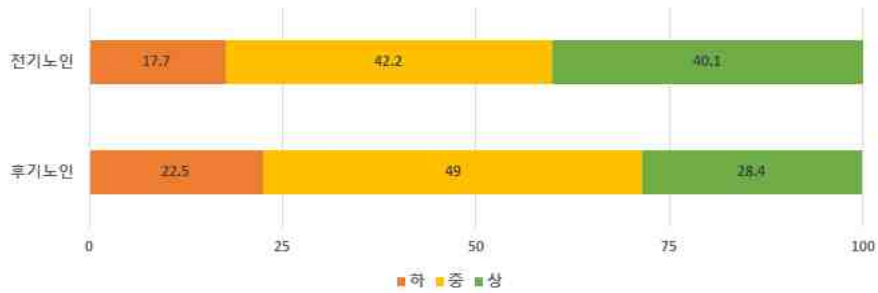
복합표본분석

성인 영양지수: 성인의 식행동과 영양 상태를 평가하는 지수

[그림 4-1] 서울시 청년과 중장년의 영양지수 등급 분포

- ❖ 서울시 노인 중에서는 후기노인(75세 이상)이 먹거리 취약계층임(그림 4-2).
 - 먹거리 취약계층을 선별하기 위해 노인 영양지수를 분석한 결과, 후기노인 5명 중 1명(22.5%)의 영양지수가 '하' 등급이었음. 이는 전기노인(65~74세, 17.7%)보다 높은 비율이며, 서울시 노인 중 후기노인이 먹거리 취약계층 비율이 전기노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임을 보여줌.
 - 영양지수가 '하' 등급으로 판정되는 노인은 대한민국 전체 노인의 영양지수 분포에서 하위 25.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임. 따라서 영양지수가 '하'인 후기노인이 전체 서울시 후기노인의 22.5%로 25.0%보다 낮게 나타난 결과를 통해, 대한민국 노인 중 서울시 후기노인은 먹거리 취약계층 비율이 낮은 집단임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서울시 후기노인은 중앙 정부의 식생활 정책 대상으로서는 긴급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임. 그러나 서울시 민 대상 식생활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본 보고서에서는 서울 시민 중 구성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후기노인 중 영양지수가 '하' 등급인 비율이 전기노인 대비 높은 점에 주목하여 후기노인을 먹거리 취약계층으로 정의함.

(단위: %)



복합표본분석

노인 영양지수: 노인의 식행동과 영양상태를 평가하는 지수

[그림 4-2] 서울시 전기노인과 후기노인의 영양지수 등급 분포

2) 서울시 청년 중 먹거리 취약계층은 어떤 청년인가?

- ❖ 서울시 청년 중 먹거리 취약계층, 즉 영양지수 등급이 '하'인 청년 집단에는 '중' 또는 '상'인 집단보다 남성과 학생의 비율이 높음(표 4-4).

〈표 4-4〉 서울시 청년의 영양지수 등급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

						명 (%)
특성		전체 (n=675)	영양지수 하 (n=254)	영양지수 중 (n=360)	영양지수 상 (n=61)	p ¹⁾
성별	남성	277 (47.1)	148 (62.8)	119 (37.9)	10 (23.7)	<0.001
	여성	398 (52.9)	106 (37.2)	241 (62.1)	51 (76.3)	
학력	고졸 이하	114 (17.1)	38 (12.8)	69 (22.0)	7 (5.5)	0.044
	대학입학 이상	561 (82.9)	216 (87.2)	291 (78.0)	54 (94.5)	
가구 형태	1인 가구	157 (21.5)	67 (25.5)	78 (17.9)	12 (26.1)	0.230
	다인 가구	518 (78.5)	187 (74.5)	282 (82.1)	49 (73.9)	
직업	근로자	513 (63.0)	172 (54.6)	296 (67.6)	45 (77.9)	0.003
	학생	117 (31.2)	77 (43.2)	38 (25.1)	2 (6.6)	
	주부/무직/기타	45 (5.8)	5 (2.2)	26 (7.3)	14 (15.5)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110 (18.3)	58 (17.5)	46 (19.6)	6 (13.0)	0.446
	300~500만원 미만	245 (32.3)	81 (27.3)	142 (35.8)	22 (34.3)	
	≥500만원	320 (49.4)	115 (55.2)	172 (44.5)	33 (52.7)	

복합표본분석

¹⁾ 라오-스콧 χ^2 검정

- ❖ 서울시 청년의 먹거리 취약계층 여부와 관련이 있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과 직업이 관련성이 있음(표 4-5).

- 남성 청년이 여성 청년에 비해 먹거리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2.97배임.
- 학생 청년이 근로자 청년에 비해 먹거리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3.02배임.

〈표 4-5〉 서울시 먹거리 취약계층 청년과 관련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n=675)

특성		OR (95% CI) ¹⁾
성별	남성	2.97 (1.65-5.35)**
	여성 [기준]	1.00
학력	고졸 이하	0.64 (0.24-1.72)
	대학입학 이상 [기준]	1.00
가구형태	1인 가구	2.63 (1.16-5.96)*
	다인 가구 [기준]	1.00
직업	근로자 [기준]	1.00
	학생	3.02 (1.60-5.70)**
	주부/무직/기타	0.60 (0.13-2.78)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0.58 (0.22-1.53)
	300~500만원 미만	0.74 (0.36-1.49)
	≥500만원 [기준]	1.00

복합표본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p<0.05, ** p<0.01, Nagelkerke R²=0.190, Wald F=4.292(p<0.001)

¹⁾서울시 청년의 먹거리 취약계층 여부(영양지수 '중' 또는 영양지수 '상'=0, 영양지수 '하'=1)를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3) 서울시 노인 중 먹거리 취약계층은 어떤 노인인가?

- ❖ 서울시 노인 중 먹거리 취약계층, 즉 영양지수 등급이 '하'인 노인 집단에는 다른 집단보다 남성의 비율과 학력이 중졸 이하의 비율이 높음(표 4-6).
- ❖ 서울시 노인의 먹거리 취약계층 여부와 관련이 있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과 학력이 관련성이 있음(표 4-7).
 - 남성 노인이 여성 노인에 비해 먹거리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6.21배임.
 - 학력이 중졸 이하인 노인이 고졸 이상인 노인에 비해 먹거리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4.27배임.
- ❖ 학력이 중졸 이하인 노인, 즉 저학력 노인이 먹거리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정책 대상 선별에 학력을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어려운 점과 노인의 저학력과 고연령(75세 이상)의 관련성이 매우 높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75세 이상 노인인 후기노인의 식생활 실태를 분석함.

〈표 4-6〉 서울시 노인의 영양지수 등급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

명 (%)

특성		전체 (n=733)	영양지수 하 (n=84)	영양지수 중 (n=326)	영양지수 상 (n=323)	p ¹⁾
성별	남성	348 (45.0)	49 (62.0)	159 (40.9)	140 (41.2)	0.044
	여성	385 (55.0)	35 (38.0)	167 (59.1)	183 (58.8)	
연령	65~74세	618 (75.8)	63 (71.1)	266 (72.9)	289 (81.5)	0.285
	75세 이상	115 (24.2)	21 (28.9)	60 (27.1)	34 (18.5)	
학력	중졸 이하	135 (42.3)	35 (66.6)	60 (40.8)	40 (31.7)	0.001
	고졸 이상	598 (57.7)	49 (33.4)	266 (59.2)	283 (68.3)	
가구 형태	1인 가구	206 (40.9)	37 (49.7)	91 (41.2)	78 (36.0)	0.312
	다인 가구	527 (59.1)	47 (50.3)	235 (58.8)	245 (64.0)	
직업	근로자	340 (42.5)	31 (39.6)	161 (42.5)	148 (44.0)	0.870
	주부/무직/기타	393 (57.5)	53 (60.4)	165 (57.5)	175 (56.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161 (34.2)	39 (49.6)	73 (35.1)	49 (25.3)	0.077
	200~350만원 미만	300 (35.2)	23 (29.0)	149 (37.4)	128 (35.9)	
	≥350만원	272 (30.6)	22 (21.4)	104 (27.5)	146 (38.8)	

복합표본분석

¹⁾라오-스콧 χ^2 검정

〈표 4-7〉 서울시 먹거리 취약계층 노인과 관련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n=733)

특성		OR (95% CI) ¹⁾
성별	남성	6.21 (2.50-15.41)**
	여성 [기준]	1.00
연령	65~74세 [기준]	1.00
	75세 이상	0.58 (0.24-1.39)
학력	중졸 이하	4.27 (1.50-12.15)**
	고졸 이상 [기준]	1.00
가구형태	1인 가구	1.75 (0.71-4.31)
	다인 가구 [기준]	1.00
직업	근로자	0.52 (0.22-1.24)
	주부/무직/기타 [기준]	1.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1.25 (0.31-4.98)
	200~350만원 미만	0.87 (0.30-2.52)
	≥350만원 [기준]	1.00

복합표본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p<0.05, ** p<0.01, Nagelkerke R^2 =0.198, Wald F=4.895(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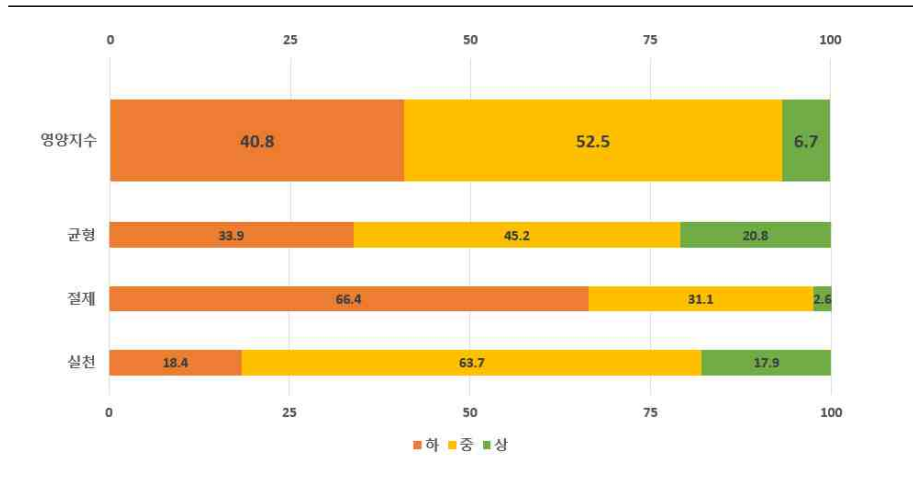
¹⁾서울시 노인의 먹거리 취약계층 여부(영양지수 '중' 또는 영양지수 '상'=0, 영양지수 '하'=1)를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4. 주요 결과 2: 서울시 먹거리 취약계층 청년의 식생활 실태

1) 서울시 청년은 잘 먹고 있는가?

- ❖ 서울시 청년 5명 중 2명이 식생활의 개선이 시급한 먹거리 취약계층이었으며, 매우 소수의 청년만이 바람직한 식생활을 실천하고 있음(그림 4-3).
- 영양지수를 분석한 결과, ‘하’ 등급은 40.8%로 매우 높았으며, ‘상’ 등급은 6.7%로 매우 낮음.
- 영양지수의 영역별로는 ‘절제’ 영역에서 ‘하’ 등급인 청년의 비율이 66.4%로 매우 높음.

(단위: %)



복합표본분석

- ¹영양지수: 타당도가 입증된 간단한 식행동 체크리스트로 성인의 영양상태와 식사의 질을 종합적으로 측정·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평가도구임. 필요한 식품을 골고루 다양하게 먹는가(균형), 건강에 좋지 않은 식품은 적게 섭취하였는가(절제), 건강하고 안전한 식행동을 실천하는가(실천)의 3개 영역을 평가함.
- ²균형: 영양상태와 식사의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도구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영양지수 중, 필요한 식품을 골고루 다양하게 먹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영역임. 성인 영양지수의 균형 영역은 채소, 과일, 우유 및 유제품, 콩이나 두부, 전곡 및 잡곡류, 생선류, 견과류의 섭취와 아침식사에 대한 8가지 항목으로 평가함.
- ³절제: 영양상태와 식사의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영양지수 중, 건강에 좋지 않은 식품을 적게 섭취하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영역임. 성인 영양지수의 절제 영역은 기름진 빵이나 과자류, 패스트푸드, 맵고 짠 찌개나 탕류, 붉은색 고기, 가공육의 섭취와 과식 및 폭식에 대한 6가지 항목으로 평가함.
- ⁴실천: 영양상태와 식사의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도구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영양지수 중, 건강을 위해 권장하는 안전한 식행동을 실천하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영역임. 성인 영양지수의 실천 영역은 건강에 좋은 식생활 노력 정도, 소비기한이나 영양표시 확인, 식사 전 손씻기, 음주 빈도에 대한 4가지 항목으로 평가함.

[그림 4-3] 서울시 청년의 영양지수 영역별 등급 분포

2) 서울시 먹거리 취약계층 청년의 식생활은 어떠한가?

가. 서울시 먹거리 취약계층 청년 식생활의 균형 수준

- ❖ 식생활의 균형 수준은 영양지수를 구성하는 요소이므로, 영양지수를 기준으로 선별된 먹거리 취약계층 청년, 즉 영양지수가 ‘하’ 등급인 청년의 식생활의 균형 수준은 당연히 다른 등급 청년보다 낮을 것임.
- ❖ 따라서 본 장에서는 영양지수 ‘하’ 등급 청년의 식생활의 균형 수준을 영양지수 ‘중’ 또는 ‘상’ 등급 청년과 구체적인 항목별로 비교함(표 4-8).

〈표 4-8〉 서울시 청년의 영양지수 등급에 따른 아침식사 빈도 및 식품군별 섭취 행태

						명 (%)
구분			영양지수 하 (n=254)	영양지수 중 (n=360)	영양지수 상 (n=61)	p ¹⁾
1주일간 아침식사 빈도	0회		106 (42.0)	69 (20.1)	14 (28.9)	<0.001
	1~2회		95 (39.4)	77 (19.4)	4 (5.0)	
	3~4회		41 (13.4)	130 (31.5)	13 (20.7)	
	5~6회		3 (3.6)	34 (12.8)	15 (21.4)	
	매일		9 (1.6)	50 (16.2)	15 (24.0)	
식품군별 섭취 행태	채소(김치 제외)	<한 끼 2가지	105 (41.8)	38 (10.1)	0 (0.0)	<0.001
		≥한 끼 2가지	149 (58.2)	322 (89.9)	61 (100.0)	
	과일	<주 4회	193 (73.3)	107 (35.7)	10 (28.4)	<0.001
		≥주 4회	61 (26.7)	253 (64.3)	51 (71.6)	
	우유 및 유제품류	<주 4회	115 (42.3)	103 (33.8)	8 (14.1)	0.064
		≥주 4회	139 (57.7)	257 (66.2)	53 (85.9)	
	생선류	<주 1회	162 (68.0)	123 (35.9)	11 (28.0)	<0.001
		≥주 1회	76 (32.0)	207 (64.1)	38 (72.0)	
	콩이나 두부	<주 4회	157 (54.8)	152 (46.4)	13 (12.6)	0.003
		≥주 4회	97 (45.2)	208 (53.6)	48 (87.4)	
	견과류	<주 1회	187 (76.6)	174 (50.2)	21 (32.6)	<0.001
		≥주 1회	67 (23.4)	186 (49.8)	40 (67.4)	
	전곡 및 잡곡류	<주 4회	217 (81.0)	156 (37.9)	21 (32.5)	<0.001
		≥주 4회	37 (19.0)	204 (62.1)	40 (67.5)	

복합표본분석

¹⁾ 라오-스콧 χ^2 검정

- ❖ 먹거리 취약계층 청년의 경우, 아침식사를 매일 결식하는 비율이 42.0%로 매우 높았으며, 매일 아침식사를 하는 비율은 1.6% 수준으로 극히 낮음.

- ❖ 먹거리 취약계층 청년의 경우, 평가한 모든 식품군을 적절한 가짓 수 또는 빈도로 섭취하는 비율이 비취약계층 청년보다 낮음.
- 특히 먹거리 취약계층 청년의 채소, 과일, 생선, 전곡 및 잡곡류의 섭취가 비취약계층 청년에 비해 부족함.

나. 서울시 먹거리 취약계층 청년 식생활의 절제 수준

- ❖ 식생활의 절제 수준 또한 영양지수를 구성하는 요소이므로, 영양지수를 기준으로 선별된 먹거리 취약계층 청년, 즉 영양지수가 ‘하’ 등급인 청년의 식생활의 절제 수준은 당연히 다른 등급 청년의 식생활보다 낮을 것임.
- ❖ 따라서 본 장에서는 영양지수 ‘하’ 등급 청년의 식생활의 절제 수준을 영양지수 ‘중’ 또는 ‘상’ 등급 청년과 구체적인 항목별로 비교함(표 4-9).

〈표 4-9〉 서울시 청년의 영양지수 등급에 따른 과식이나 폭식 빈도 및 식품유형별 섭취 빈도

명 (%)

구분		영양지수 하 (n=254)	영양지수 중 (n=360)	영양지수 상 (n=61)	p ¹⁾	
과식이나 폭식 빈도	<주 1회	175 (67.4)	245 (67.3)	59 (97.7)	0.018	
	≥주 1회	79 (32.6)	115 (32.7)	2 (2.3)		
식품유형별 섭취 빈도	기름진 빵이나 스낵과자류	<주 1회	76 (32.7)	153 (34.3)	50 (80.5)	<0.001
		≥주 1회	178 (67.3)	207 (65.7)	11 (19.5)	
	패스트푸드	<주 1회	89 (37.5)	200 (47.9)	56 (92.4)	<0.001
		≥주 1회	165 (62.5)	160 (52.1)	5 (7.6)	
	맵고 짠 국물 음식	<주 4회	49 (17.2)	133 (30.3)	32 (51.4)	0.001
		≥주 4회	205 (82.8)	227 (69.7)	29 (48.6)	
	붉은색 고기	<주 1회	67 (23.2)	68 (14.1)	12 (23.2)	0.174
		≥주 1회	187 (76.8)	292 (85.9)	49 (76.8)	
	가공육	<주 1회	57 (25.0)	168 (48.9)	37 (63.8)	<0.001
		≥주 1회	197 (75.0)	192 (51.1)	24 (36.2)	

복합표본분석

¹⁾ 라오-스콧 χ^2 검정

- ❖ 먹거리 취약계층 청년의 경우, 약 3명 중 1명이 주 1회 이상 과식이나 폭식을 함.
- ❖ 먹거리 취약계층 청년의 경우, 약 3명 중 2명이 기름진 빵이나 스낵과자류, 패스트푸드, 맵고 짠 국물 음식, 붉은색 고기, 가공육 각각을 주 1회 이상 섭취함. 특히 먹거리 취약계층 청년에서 맵고 짠 국물 음식과 가공육을 주 1회 이상 섭취하는 비율이 비취약계층 청년에서보다 높음.

다. 서울시 먹거리 취약계층 청년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행동 실천 수준

- ❖ 건강하고 안전한 식행동의 실천 수준 또한 영양지수를 구성하는 요소이므로, 영양지수를 기준으로 선별된 먹거리 취약계층 청년, 즉 영양지수가 ‘하’ 등급인 청년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행동 실천 수준은 당연히 다른 등급 청년의 식생활보다 낮을 것임.
- ❖ 따라서 본 장에서는 영양지수 ‘하’ 등급 청년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행동의 실천 수준을 영양지수 ‘중’ 또는 ‘상’ 등급 청년과 구체적인 항목별로 비교함(표 4-10).

〈표 4-10〉 서울시 청년의 영양지수 등급에 따른 음주 빈도 및 건강하고 안전한 식행동 실천 정도

명 (%) 또는 평균 (표준오차)

구분		영양지수 하 (n=254)	영양지수 중 (n=360)	영양지수 상 (n=61)	p ¹⁾
음주 빈도	〈월 2회	64 (28.9)	174 (46.9)	50 (82.0)	〈0.001
	≥월 2회	190 (71.1)	186 (53.1)	11 (18.0)	
건강하고 안전한 식행동 실천 정도	건강에 좋은 식생활 노력 정도 ²⁾	3.22 ^c (0.16)	3.97 ^b (0.15)	4.40 ^a (0.19)	〈0.001
	영양표시 확인 정도 ³⁾	3.45 ^c (0.17)	4.00 ^b (0.13)	4.35 ^a (0.18)	〈0.001
	식사 전 손 씻기 정도 ⁴⁾	3.65 ^c (0.19)	4.09 ^b (0.19)	4.40 ^a (0.20)	〈0.001

복합표본분석, 본페로니 사후검정: a)b)c

¹⁾ 라오-스콧 χ^2 검정 또는 공분산분석(성별, 연령, 학력, 가구형태,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 조정)

²⁾ 건강에 좋은 식생활 노력 정도(5점 만점): 평소에 건강에 좋은 식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지를 평가한 지표로 다섯가지 항목의 5점 리커트 척도(전혀 노력하지 않는다=1, 매우 노력한다=5) 점수로 산출함.

³⁾ 영양표시 확인 정도(5점 만점): 외식 시 또는 가공식품을 구입할 때 영양표시를 확인하는지를 평가한 지표로 다섯가지 항목의 5점 리커트 척도(전혀 확인하지 않는다=1, 항상 확인한다=5) 점수로 산출함.

⁴⁾ 식사 전 손씻기 정도(5점 만점):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지를 확인하는 지표로 다섯가지 항목의 5점 리커트 척도(전혀 씻지 않는다=1, 항상 씻는다=5) 점수로 산출함.

- ❖ 먹거리 취약계층 청년의 경우, 70% 이상이 월 2회 이상 음주함.
- ❖ 먹거리 취약계층 청년의 경우, 건강에 좋은 식생활을 하기 위한 노력, 영양표시 확인, 식사 전 손 씻기 정도가 모두 비취약계층 청년보다 낮음.

라. 서울시 먹거리 취약계층 청년 외식 행태

- ❖ 먹거리 취약계층 청년 5명 중 4명이 음식점 음식을 주 1회 이상 이용하였고, 약 3명 중 1명이 배달 음식, 편의점 음식, 간편식을 주 1회 이상 이용함(표 4-11).
- 먹거리 취약계층 청년은 비취약계층 청년보다 잦은 빈도로 외식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특히 영양지수 ‘중’ 등급보다 ‘상’ 등급과 비교해서 그 비율이 높음.

〈표 4-11〉 서울시 청년의 영양지수 등급에 따른 외식 행태

명 (%)

구분		영양지수 하 (n=254)	영양지수 중 (n=360)	영양지수 상 (n=61)	p ¹⁾
음식점음식	〈주 1회	44 (16.3)	82 (18.0)	33 (52.2)	〈0.001
	≥주 1회	210 (83.7)	278 (82.0)	28 (47.8)	
배달음식	〈주 1회	138 (58.5)	229 (60.1)	55 (91.8)	0.014
	≥주 1회	116 (41.5)	131 (39.9)	6 (8.2)	
편의점음식	〈주 1회	182 (69.3)	260 (67.4)	57 (95.5)	0.032
	≥주 1회	72 (30.7)	100 (32.6)	4 (4.5)	
간편조리세트	〈주 1회	185 (68.3)	258 (73.1)	58 (96.3)	0.026
	≥주 1회	69 (31.7)	102 (26.9)	3 (3.7)	

복합표본분석

¹⁾라오-스콧 χ^2 검정

마. 서울시 먹거리 취약계층 청년의 식품환경만족도

- ❖ 먹거리 취약계층 청년의 식품환경만족도는 비취약계층 청년에 비해 낮음(표 4-12).
- ❖ 식품환경만족도를 세부 구성 항목별로 살펴봤을 때, 편의성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먹거리 취약계층 청년의 만족도가 비취약계층 청년보다 유의하게 낮지 않으나, 기타 모든 측면에 대한 만족도에서 낮음.

〈표 4-12〉 서울시 청년의 영양지수 등급에 따른 식품환경만족도

평균 (표준오차)

구분	영양지수 하 (n=245) ²⁾	영양지수 중 (n=354) ²⁾	영양지수 상 (n=58) ²⁾	p ¹⁾
가용성	4.07 ^b (0.12)	4.36 ^a (0.10)	4.32 ^{ab} (0.13)	0.005
물리적 접근성	3.58 ^b (0.11)	3.77 ^b (0.09)	4.02 ^a (0.11)	0.002
가격 적정성	3.89 ^b (0.14)	4.22 ^a (0.12)	4.14 ^{ab} (0.18)	0.007
편의성	3.55 (0.14)	3.75 (0.12)	3.69 (0.19)	0.185
수용성	3.94 ^b (0.12)	4.24 ^a (0.11)	4.27 ^a (0.16)	0.004
식품환경만족도 ³⁾	3.81 ^b (0.08)	4.07 ^a (0.07)	4.09 ^a (0.11)	〈0.001

복합표본분석, 본페로니 사후검정: a)b)c

¹⁾공분산분석(성별, 연령, 학력, 가구형태,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 조정)

²⁾식품환경만족도 문항에 동네 식료품점에서 '구매 경험이 없다'라고 응답한 청년 제외

³⁾식품환경만족도(5점 만점): 가용성, 접근성, 가격적정성, 편의성, 수용성 다섯 가지 항목으로 식생활 환경 만족도를 평가한 지표. 다섯 가지 항목의 5점 리커트 척도(거의 그렇지 않다=1, 거의 그렇다=5) 점수의 평균값으로 산출함.

식품환경만족도 세부 구성 항목(5점 리커트 척도)

- 가용성: 우리 동네에는 다양하고 건강한 식품(과일 및 채소)을 구매할 수 있는 식료품점이 충분하다.
- 접근성: 다양하고 건강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식료품점이 우리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다.
- 가격적정성: 우리 동네 식료품점에서 파는 식품들은 내가 구매할 수 있는 적절한 가격이다.
- 편의성: 우리 동네 식료품점의 서비스(소량 구매, 배달 정도, 영업시간 등)는 이용하기 편리하다.
- 수용성: 우리 동네 식료품점에서 파는 식품들은 신선하고 질이 좋다.

바. 서울시 먹거리 취약계층 청년의 식생활역량

❖ 먹거리 취약계층 청년의 식생활역량은 비취약계층 청년보다 유의하게 낮음(표 4-13).

〈표 4-13〉 서울시 청년의 영양지수 등급에 따른 식생활역량

평균 (표준오차)

구분	영양지수 하 (n=254)	영양지수 중 (n=360)	영양지수 상 (n=61)	p ¹⁾
건강한 식생활역량	67.85 ^b (2.11)	73.76 ^a (1.83)	77.48 ^a (2.50)	<0.001
즐거운 식생활역량	58.55 ^b (2.06)	64.94 ^a (1.78)	64.67 ^a (2.45)	<0.001
가치있는 식생활역량	68.68 ^c (1.84)	77.11 ^b (1.56)	81.85 ^a (2.08)	<0.001
식생활역량 ²⁾	65.03 ^b (1.65)	71.94 ^a (1.40)	74.67 ^a (1.85)	<0.001

복합표본분석, 본페로니 사후검정: a)b)c

¹⁾공분산분석(성별, 연령, 학력, 가구형태,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 보정)

²⁾식생활역량(100점 만점): 식품 선택과 관리, 조리할 수 있는 능력과 음식의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음식이 가진 공동체, 농업, 생태환경의 가치를 고려한 먹거리 관련 지표. 건강한 식생활(14문항), 즐거운 식생활(8문항), 가치 있는 식생활(11문항) 세 가지 영역의 점수를 각각 100점 만점으로 표준화하여 세 값의 평균값으로 산출함.

사. 서울시 먹거리 취약계층 청년의 식품안전 인식 및 식생활에 대한 인식

❖ 먹거리 취약계층 청년의 경우, 비취약계층 청년과 비교하여 식생활안전인식도는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식생활만족도와 식생활중요도는 유의하게 낮음(표 4-14).

〈표 4-14〉 서울시 청년의 영양지수 등급에 따른 식품안전 인식 및 식생활에 대한 인식

평균 (표준오차)

구분	영양지수 하 (n=254)	영양지수 중 (n=360)	영양지수 상 (n=61)	p ¹⁾
식품안전인식도 ²⁾	3.66 (0.13)	3.72 (0.12)	3.47 (0.17)	0.143
식생활만족도 ³⁾	3.59 ^b (0.14)	3.89 ^a (0.12)	4.12 ^a (0.17)	<0.001
식생활중요도 ⁴⁾	3.90 ^b (0.12)	4.19 ^a (0.10)	4.10 ^{ab} (0.16)	0.008

복합표본분석, 본페로니 사후검정: a)b)c

¹⁾공분산분석(성별, 학력, 가구형태,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 보정)

²⁾식품안전인식도(5점 만점): 서울시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식품(식재료, 음식점 음식, 포장 및 배달음식 등 포함)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를 평가한 지표로 다섯 가지 항목의 5점 리커트 척도(매우 안전하지 않다=1, 매우 안전하다=5) 점수로 산출함.

³⁾식생활만족도(5점 만점): 현재 식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평가한 지표로 다섯 가지 항목의 5점 리커트 척도(매우 불만족한다=1, 매우 만족한다=5) 점수로 산출함.

⁴⁾식생활중요도(5점 만점): 본인의 식생활이 행복해지는 데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다섯 가지 항목의 5점 리커트 척도(매우 중요하지 않다=1, 매우 중요하다=5) 점수로 산출함.

아. 서울시 먹거리 취약계층 청년의 식품비 부담 정도

- ❖ 먹거리 취약계층 4명 중 3명이 식품비에 부담을 느낌. 그러나 이러한 비율은 비취약계층 청년보다 높은 수준은 아님. 즉 먹거리 취약계층이 아닌 청년에서도 식품비에 부담을 느끼는 비율이 상당히 높음(표 4-15).

〈표 4-15〉 서울시 청년의 영양지수 등급에 따른 식품비 부담 정도

구분	명 (%)			p ¹⁾
	영양지수 하 (n=254)	영양지수 중 (n=360)	영양지수 상 (n=61)	
부담되지 않음	54 (24.1)	35 (11.8)	6 (17.8)	0.060
부담됨	200 (75.9)	325 (88.2)	55 (82.2)	

복합표본분석

¹⁾라오-스콧 χ^2 검정

3) 서울시 남성 청년의 식생활은 어떠한가?

가. 서울시 남성 청년의 영양지수 영역별 등급 분포

- ❖ 영양지수 등급 분포를 비교한 결과, 서울시 남성 청년은 ‘하’ 등급(54.4%)의 비율이 여성 청년(28.7%)보다 두 배 가까이 높고, ‘상’ 등급(3.4%)의 비율은 여성 청년(9.6%)의 약 1/3 수준임(표 4-16).
 - 서울시 남성 청년의 절반 이상이 전반적인 식생활이 불량한 수준에 해당하여 여성 청년에 비해 식생활 개선이 더욱 시급함.
- ❖ 영양지수를 구성하는 세부 영역별 분석 결과, 균형(필요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가) 영역에서는 남성 청년의 ‘하’ 등급의 비율(45.7%)이 여성 청년(23.5%)보다 약 2배 높으며, ‘상’ 등급 비율(14.9%)은 여성 청년(26.1%)보다 낮음.
 - 남성 청년의 절반 가까이가 식생활의 균형을 실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 절제(건강에 좋지 않은 식품을 적게 섭취하는가) 영역에서는 남성 청년과 여성 청년 간 유의한 차이는 없지만, 남성 청년의 ‘하’ 등급 비율은 66.9%, 여성 청년은 65.8%로 두 집단에서 모두 높은 수준임.
 - 남성 청년과 여성 청년 모두 3명 중 2명에 해당하는 청년이 식생활의 절제를 실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 실천(건강을 위해 권장하는 식행동을 실천하는가) 영역에서는 남성 청년의 ‘하’ 등급 비율이 26.4%로 여성 청년(11.3%)의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임.

〈표 4-16〉 서울시 남성 청년과 여성 청년의 영양지수 영역별 등급 분포

		명 (%)		
구분		남성 청년 (n=277)	여성 청년 (n=398)	p ¹⁾
균형 ²⁾	상	49 (14.9)	93 (26.1)	0.002
	중	109 (39.4)	226 (50.5)	
	하	119 (45.7)	79 (23.5)	
절제 ³⁾	상	1 (1.3)	18 (3.7)	0.584
	중	80 (31.8)	136 (30.5)	
	하	196 (66.9)	244 (65.8)	
실천 ⁴⁾	상	33 (8.4)	129 (26.4)	<0.001
	중	161 (65.2)	232 (62.3)	
	하	83 (26.4)	37 (11.3)	
영양지수 ⁵⁾	상	10 (3.4)	51 (9.6)	<0.001
	중	119 (42.2)	241 (61.7)	
	하	148 (54.4)	106 (28.7)	

복합표본분석, ¹⁾라오-스콧 χ^2 검정

²⁾ 균형: 영양상태와 식사의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도구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영양지수 중, 필요한 식품을 골고루 다양하게 먹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영역임. 성인 영양지수의 균형 영역은 채소, 과일, 우유 및 유제품, 콩이나 두부, 전곡 및 잡곡류, 생선류, 견과류의 섭취와 아침식사에 대한 8가지 항목으로 평가함.

³⁾ 절제: 영양상태와 식사의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영양지수 중, 건강에 좋지 않은 식품을 적게 섭취하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영역임. 성인 영양지수의 절제 영역은 기름진 빵이나 과자류, 패스트푸드, 맵고 짠 찌개나 탕류, 붉은색 고기, 가공육의 섭취와 과식 및 폭식에 대한 6가지 항목으로 평가함.

⁴⁾ 실천: 영양상태와 식사의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도구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영양지수 중, 건강을 위해 권장하는 안전한 식행동을 실천하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영역임. 성인 영양지수의 실천 영역은 건강에 좋은 식생활 노력 정도, 소비 기한이나 영양표시 확인, 식사 전 손씻기, 음주 빈도에 대한 4가지 항목으로 평가함.

⁵⁾ 영양지수: 타당도가 입증된 간단한 식행동 체크리스트로 성인의 영양상태와 식사의 질을 종합적으로 측정·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평가도구임. 필요한 식품을 골고루 다양하게 먹는가(균형), 건강에 좋지 않은 식품은 적게 섭취하였는가(절제), 건강하고 안전한 식행동을 실천하는가(실천)의 3개 영역을 평가함.

나. 서울시 남성 청년 식생활의 균형 수준

- ❖ 남성 청년의 경우, 약 3명 중 1명이 아침식사를 매일 결식함(표 4-17).
- ❖ 남성 청년의 경우, 과일, 콩이나 두부, 견과류, 전곡 및 잡곡류를 적절한 빈도로 섭취하는 비율이 여성 청년보다 낮음.
- 특히 남성 청년이 과일을 주 4회 이상 섭취하는 비율이 여성 청년에 비해 20%p 이상 낮음.

다. 서울시 남성 청년 식생활의 절제 수준

- ❖ 남성 청년의 경우, 약 3명 중 1명이 주 1회 이상 과식이나 폭식을 하고, 약 5명 중 4명이 붉은색 고기를 주 1회 이상 섭취함(표 4-18).
- ❖ 맵고 짠 국물음식을 주 4회 이상 섭취하는 남성 청년의 비율이 80%로, 여성 청년보다 높음.

〈표 4-17〉 서울시 남성 청년과 여성 청년의 아침식사 빈도 및 식품군별 섭취 행태

구분			남성 청년 (n=277)	여성 청년 (n=398)	명 (%) p ¹⁾
1주일간 아침식사 빈도	0회		92 (34.2)	97 (25.6)	0.235
	1~2회		72 (27.0)	104 (26.2)	
	3~4회		66 (18.4)	118 (27.9)	
	5~6회		17 (7.2)	35 (11.8)	
	매일		30 (13.3)	44 (8.5)	
식품군별 섭취 행태	채소(김치 제외)	<한 끼 2가지	72 (26.2)	71 (19.0)	0.174
		≥한 끼 2가지	205 (73.8)	327 (81.0)	
	과일	<주 4회	156 (62.8)	154 (39.7)	<0.001
		≥주 4회	121 (37.2)	244 (60.3)	
	우유 및 유제품류	<주 4회	112 (42.7)	114 (30.0)	0.065
		≥주 4회	165 (57.3)	284 (70.0)	
	생선류	<주 1회	152 (54.9)	144 (42.7)	0.107
		≥주 1회	114 (45.1)	207 (57.3)	
	콩이나 두부	<주 4회	158 (56.7)	164 (39.5)	0.011
		≥주 4회	119 (43.3)	234 (60.5)	
	견과류	<주 1회	172 (69.3)	210 (51.4)	0.006
		≥주 1회	105 (30.7)	188 (48.6)	
	전곡 및 잡곡류	<주 4회	190 (66.4)	204 (45.1)	0.003
		≥주 4회	87 (33.6)	194 (54.9)	

복합표본분석, ¹⁾라오-스콧 χ^2 검정

〈표 4-18〉 서울시 남성 청년과 여성 청년의 과식이나 폭식 빈도 및 식품유형별 섭취 빈도

구분				남성 청년 (n=277)	여성 청년 (n=398)	명 (%) p ¹⁾
과식이나 폭식 빈도		<주 1회	184 (69.4)	295 (69.4)	0.999	
		≥주 1회	93 (30.6)	103 (30.6)		
식품유형별 섭취 빈도	기름진 빵이나 스낵과자류	<주 1회	108 (41.5)	171 (32.4)	0.150	
		≥주 1회	169 (58.5)	227 (67.6)		
	패스트푸드	<주 1회	131 (48.7)	214 (44.7)	0.556	
		≥주 1회	146 (51.3)	184 (55.3)		
	맵고 짠 국물 음식	<주 4회	71 (19.8)	143 (32.3)	0.023	
		≥주 4회	206 (80.2)	255 (67.7)		
	붉은색 고기	<주 1회	56 (17.5)	91 (19.2)	0.762	
		≥주 1회	221 (82.5)	307 (80.8)		
	가공육	<주 1회	88 (36.7)	174 (43.2)	0.345	
		≥주 1회	189 (63.3)	224 (56.8)		

복합표본분석, ¹⁾라오-스콧 χ^2 검정

라. 서울시 남성 청년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행동 실천 수준

- ❖ 남성 청년의 경우, 월 2회 이상 음주하는 비율이 여성 청년에서보다 높았음(표 4-19).
 - 남성 청년의 약 3/4가 월 2회 이상 음주하였으며, 이는 여성 청년에 비해 30%p 이상 높은 비율임.
- ❖ 남성 청년의 경우, 건강에 좋은 식생활을 하기 위한 노력 및 영양표시 확인의 수준이 여성 청년보다 낮음.

〈표 4-19〉 서울시 남성 청년과 여성 청년의 음주 빈도 및 건강하고 안전한 식행동 실천 정도

명 (%) 또는 평균 (표준오차)

구분		남성 청년 (n=277)	여성 청년 (n=398)	p ¹⁾
음주 빈도	〈월 2회	72 (25.8)	216 (56.2)	〈0.001
	≥ 월 2회	205 (74.2)	182 (43.8)	
건강하고 안전한 식행동 실천 정도	건강에 좋은 식생활 노력 정도 ²⁾	3.68 (0.17)	3.91 (0.16)	0.010
	영양표시 확인 정도 ³⁾	3.69 (0.15)	4.07 (0.15)	0.001
	식사 전 손 씻기 정도 ⁴⁾	3.93 (0.19)	4.06 (0.20)	0.132

복합표본분석

¹⁾ 라오-스콧 χ^2 검정 또는 공분산분석(연령, 학력, 가구형태,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 보정)

²⁾ 건강에 좋은 식생활 노력 정도(5점 만점): 평소에 건강에 좋은 식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지를 평가한 지표로 다섯가지 항목의 5점 리커트 척도(전혀 노력하지 않는다=1, 매우 노력한다=5) 점수로 산출함.

³⁾ 영양표시 확인 정도(5점 만점): 외식시 또는 가공식품을 구입할 때 영양표시를 확인하는지를 평가한 지표로 다섯가지 항목의 5점 리커트 척도(전혀 확인하지 않는다=1, 항상 확인한다=5) 점수로 산출함.

⁴⁾ 식사 전 손씻기 정도(5점 만점):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지를 확인하는 지표로 다섯가지 항목의 5점 리커트 척도(전혀 씻지 않는다=1, 항상 씻는다=5) 점수로 산출함.

- ❖ 본 연구에서는 남성 청년의 기타 식생활 실태를 여성 청년과 비교하여 분석하였으나, 정책적으로 고려할 만한 유의한 차이가 없음. 따라서 해당 내용을 보고서에서 제외함.

4) 서울시 학생 청년의 식생활은 어떠한가?

가. 서울시 학생 청년의 영양지수 영역별 등급 분포

- ❖ 영양지수 등급 분포를 비교한 결과, 서울시 학생 청년은 ‘하’ 등급(56.4%)의 비율이 근로자 청년(35.3%)보다 높음(표 4-20).
 - 학생 청년의 절반 이상이 전반적인 식생활이 불량한 수준에 해당하여 근로자 청년에 비해 식생활 개선이 더욱 시급함을 보여줌.
- ❖ 영양지수를 구성하는 세부 영역별 분석 결과, 균형(필요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가) 영역에서는 학생 청년의 ‘하’ 등급의 비율(41.4%)이 근로자 청년(32.1%)보다 10%p

가까이 높음.

- 학생 청년의 약 40%가 균형 잡힌 식생활을 실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절제(건강에 좋지 않은 식품을 적게 섭취하는가) 영역에서 학생 청년의 '하' 등급 비율은 80.2%로 매우 높음. 이는 근로자 청년(59.1%)보다 20%p 이상 높은 수준임.
- 학생 청년의 상당수인 약 80%가 건강에 좋지 않은 식품 섭취를 제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 청년의 식생활의 절제 영역이 특히 취약한 상황임.
- ❖ 실천(건강을 위해 권장하는 식행동을 실천하는가) 영역에서는 학생 청년의 '하' 등급 비율이 27.8%, 근로자 청년은 15.5%로 학생 청년이 근로자 청년에 비해 높음.

〈표 4-20〉 서울시 학생 청년과 근로자 청년의 영양지수 영역별 등급 분포

구분		학생 (n=117)	근로자 (n=513)	p ¹⁾
균형 ²⁾	상	17 (26.5)	107 (17.0)	0.046
	중	40 (32.1)	272 (50.9)	
	하	60 (41.4)	134 (32.1)	
절제 ³⁾	상	2 (1.3)	16 (3.3)	0.011
	중	25 (18.5)	173 (37.5)	
	하	90 (80.2)	324 (59.1)	
실천 ⁴⁾	상	11 (6.4)	129 (20.3)	0.002
	중	66 (65.8)	304 (64.2)	
	하	40 (27.8)	80 (15.5)	
영양지수 ⁵⁾	상	2 (1.4)	45 (8.2)	0.004
	중	38 (42.1)	296 (56.4)	
	하	77 (56.4)	172 (35.3)	

복합표본분석

¹⁾ 라오-스콧 χ^2 검정

²⁾ 균형: 영양상태와 식사의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도구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영양지수 중, 필요한 식품을 골고루 다양하게 먹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영역임. 성인 영양지수의 균형 영역은 채소, 과일, 우유 및 유제품, 콩이나 두부, 전곡 및 잡곡류, 생선류, 견과류의 섭취와 아침식사에 대한 8가지 항목으로 평가함.

³⁾ 절제: 영양상태와 식사의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영양지수 중, 건강에 좋지 않은 식품을 적게 섭취하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영역임. 성인 영양지수의 절제 영역은 기름진 빵이나 과자류, 패스트푸드, 맵고 짠 짜거나 당류, 붉은색 고기, 가공육의 섭취와 과식 및 폭식에 대한 6가지 항목으로 평가함.

⁴⁾ 실천: 영양상태와 식사의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도구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영양지수 중, 건강을 위해 권장하는 안전한 식행동을 실천하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영역임. 성인 영양지수의 실천 영역은 건강에 좋은 식생활 노력 정도, 소비기한이나 영양표시 확인, 식사 전 손씻기, 음주 빈도에 대한 4가지 항목으로 평가함.

⁵⁾ 영양지수: 타당도가 입증된 간단한 식행동 체크리스트로 성인의 영양상태와 식사의 질을 종합적으로 측정·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평가도구임. 필요한 식품을 골고루 다양하게 먹는가(균형), 건강에 좋지 않은 식품은 적게 섭취하였는가(절제), 건강하고 안전한 식행동을 실천하는가(실천)의 3개 영역을 평가함.

나. 서울시 학생 청년의 식생활의 균형 수준

- ❖ 학생 청년의 경우, 매일 아침식사를 하는 비율이 7.6% 수준으로 낮음(표 4-21).
- ❖ 학생 청년의 경우, 채소를 한 끼에 2가지 이상 섭취하는 비율이 근로자 청년보다 낮음.

〈표 4-21〉 서울시 학생 청년과 근로자 청년의 아침식사 빈도 및 식품군별 섭취 행태

			명 (%)	
구분			학생 (n=117)	근로자 (n=513)
1주일간 아침식사 빈도	0회		32 (23.4)	151 (34.4)
	1~2회		51 (39.1)	120 (21.2)
	3~4회		19 (14.8)	150 (25.2)
	5~6회		11 (15.1)	33 (6.9)
	매일		4 (7.6)	59 (12.2)
식품군별 섭취 행태	채소(김치 제외)	<한 끼 2가지	54 (31.2)	87 (18.8)
		≥한 끼 2가지	63 (68.8)	426 (81.2)
	과일	<주 4회	79 (49.0)	219 (53.6)
		≥주 4회	38 (51.0)	294 (46.4)
	우유 및 유제품류	<주 4회	39 (29.0)	181 (41.7)
		≥주 4회	78 (71.0)	332 (58.3)
	생선류	<주 1회	63 (48.1)	224 (51.4)
		≥주 1회	42 (51.9)	248 (48.6)
	콩이나 두부	<주 4회	65 (48.2)	243 (49.5)
		≥주 4회	52 (51.8)	270 (50.5)
	견과류	<주 1회	85 (61.9)	279 (59.5)
		≥주 1회	32 (38.1)	234 (40.5)
	전곡 및 잡곡류	<주 4회	82 (56.0)	289 (55.8)
		≥주 4회	35 (44.0)	224 (44.2)

복합표본분석

¹⁾라오-스콧 χ^2 검정

다. 서울시 학생 청년의 식생활의 절제 수준

- ❖ 학생 청년의 경우, 약 46%가 과식이나 폭식을 주 1회 이상 하였으며, 이는 근로자 청년에 비해 20%p 이상 높은 수준임(표 4-22).
- ❖ 학생 청년의 경우, 약 3명 중 2명 이상이 기름진 빵이나 스낵과자류, 붉은색 고기, 가공육 각각을 주 1회 이상 섭취함. 또한 맵고 짠 국물 음식을 주 4회 이상 섭취하는 비율은 80% 수준으로 높음. 학생 청년에서 기름진 빵이나 스낵과자류를 주 1회 이상 섭취하는 비율은 근로자 청년에서보다 높음.

〈표 4-22〉 서울시 학생 청년과 근로자 청년의 과식이나 폭식 빈도 및 식품유형별 섭취 빈도

명 (%)

구분		학생 (n=117)	근로자 (n=513)	p ¹⁾
과식이나 폭식 빈도	<주 1회	84 (54.2)	359 (75.0)	0.004
	≥주 1회	33 (45.8)	154 (25.0)	
식품유형별 섭취 빈도	기름진 빵이나 스낵과자류	<주 1회	225 (44.4)	0.001
		≥주 1회	288 (55.6)	
	패스트푸드	<주 1회	277 (52.0)	0.075
		≥주 1회	236 (48.0)	
	맵고 짠 국물 음식	<주 4회	164 (29.5)	0.106
		≥주 4회	349 (70.5)	
	붉은색 고기	<주 1회	107 (15.4)	0.069
		≥주 1회	406 (84.6)	
	가공육	<주 1회	211 (45.0)	0.128
		≥주 1회	302 (55.0)	

복합표본분석

¹⁾라오-스콧 χ^2 검정

라. 서울시 학생 청년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행동 실천 수준

- ❖ 학생 청년의 경우, 약 60%가 월 2회 이상 음주함(표 4-23).
- ❖ 학생 청년의 경우, 건강에 좋은 식생활을 하기 위한 노력 및 영양표시 확인의 수준이 근로자 청년보다 낮음.

〈표 4-23〉 서울시 학생 청년과 근로자 청년의 음주 빈도 및 건강하고 안전한 식행동 실천 정도

명 (%)

구분		학생 (n=117)	근로자 (n=513)	p ¹⁾
음주 빈도	<월 2회	50 (40.2)	210 (39.5)	0.926
	≥월 2회	67 (59.8)	303 (60.5)	
건강하고 안전한 식행동 실천 정도	건강에 좋은 식생활 노력 정도 ²⁾	3.28 (0.15)	3.77 (0.15)	<0.001
	영양표시 확인 정도 ³⁾	3.34 (0.15)	3.81 (0.13)	0.006
	식사 전 손 씻기 정도 ⁴⁾	3.99 (0.20)	4.01 (0.19)	0.862

복합표본분석

¹⁾라오-스콧 χ^2 검정 또는 공분산분석(연령, 학력, 가구형태,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 조정)

²⁾건강에 좋은 식생활 노력 정도(5점 만점): 평소 건강에 좋은 식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지를 평가한 지표로 다섯가지 항목의 5점 리커트 척도(전혀 노력하지 않는다=1, 매우 노력한다=5) 점수로 산출함.

³⁾영양표시 확인 정도(5점 만점): 외식시 또는 가공식품을 구입할 때 영양표시를 확인하는지를 평가한 지표로 다섯가지 항목의 5점 리커트 척도(전혀 확인하지 않는다=1, 항상 확인한다=5) 점수로 산출함.

⁴⁾식사 전 손씻기 정도(5점 만점):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지를 확인하는 지표로 다섯가지 항목의 5점 리커트 척도(전혀 씻지 않는다=1, 항상 씻는다=5) 점수로 산출함.

마. 서울시 학생 청년의 식생활역량

- ❖ 학생 청년의 식생활역량은 근로자 청년보다 유의하게 낮음(표 4-24).
- ❖ 세부 영역별로 살펴보면, 식생활역량을 구성하는 세 가지 영역 중 가치있는 식생활역량에서만 학생 청년의 역량이 근로자 청년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4-24〉 서울시 학생 청년과 근로자 청년의 식생활역량

평균 (표준오차)

구분	학생 (n=117)	근로자 (n=513)	p ¹⁾
건강한 식생활역량	66.32 (2.07)	70.34 (1.75)	0.073
즐거운 식생활역량	59.31 (2.00)	62.85 (1.75)	0.082
가치있는 식생활역량	69.38 (1.93)	74.61 (1.58)	0.007
식생활역량 ²⁾	65.00 (1.75)	69.26 (1.40)	0.022

복합표본분석

¹⁾ 공분산분석(성별, 연령, 학력, 가구형태, 월평균 가구소득 보정)

²⁾ 식생활역량(100점 만점): 식품 선택과 관리, 조리할 수 있는 능력과 음식의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음식이 가진 공동체, 농업, 생태환경의 가치를 고려한 먹거리 관련 지표. 건강한 식생활(14문항), 즐거운 식생활(8문항), 가치 있는 식생활(11문항) 세 가지 영역의 점수를 각각 100점 만점으로 표준화하여 세 값의 평균값으로 산출함.

바. 서울시 학생 청년 식품안전 인식 및 식생활에 대한 인식

- ❖ 학생 청년의 경우, 근로자 청년과 비교하여 식생활만족도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식품안전인식도와 식생활중요도는 유의하게 낮음(표 4-25).

〈표 4-25〉 서울시 학생 청년과 근로자 청년의 식품안전 인식 및 식생활에 대한 인식

평균 (표준오차)

구분	학생 (n=117)	근로자 (n=513)	p ¹⁾
식품안전인식도 ²⁾	3.50 (0.12)	3.74 (0.12)	0.021
식생활만족도 ³⁾	3.72 (0.12)	3.76 (0.12)	0.691
식생활중요도 ⁴⁾	3.68 (0.10)	4.05 (0.09)	0.002

복합표본분석

¹⁾ 공분산분석(성별, 학력, 가구형태, 월평균 가구소득 보정)

²⁾ 식품안전인식도(5점 만점): 서울시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식품(식재료, 음식점 음식, 포장 및 배달음식 등 포함)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를 평가한 지표로 다섯 가지 항목의 5점 리커트 척도(매우 안전하지 않다=1, 매우 안전하다=5) 점수로 산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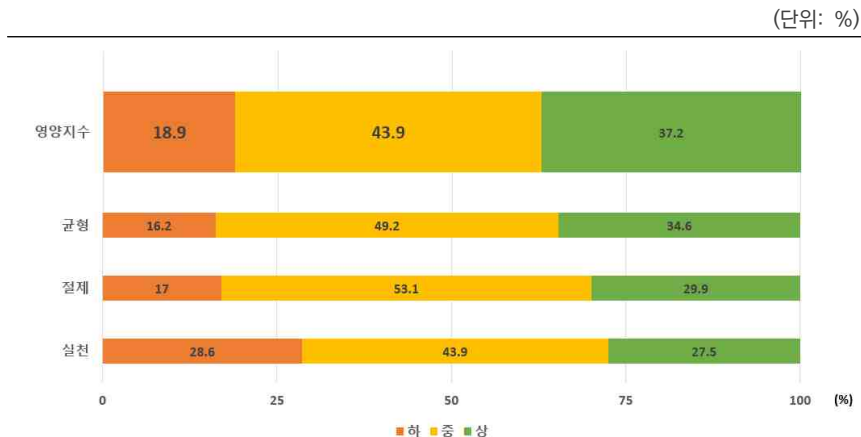
³⁾ 식생활만족도(5점 만점): 현재 식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평가한 지표로 다섯 가지 항목의 5점 리커트 척도(매우 불만족한다=1, 매우 만족한다=5) 점수로 산출함.

⁴⁾ 식생활중요도(5점 만점): 본인의 식생활이 행복해지는 데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다섯 가지 항목의 5점 리커트 척도(매우 중요하지 않다=1, 매우 중요하다=5) 점수로 산출함.

5. 주요 결과 3: 서울시 먹거리 취약계층 노인의 식생활 실태

1) 서울시 노인은 잘 먹고 있는가?

- ❖ 서울시 노인의 영양지수를 분석한 결과 ‘하’ 등급에 해당하여 식생활의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노인은 전체 노인의 18.9%로 많은 편은 아님. 양호한 식생활을 하는 것으로 평가된 ‘상’ 등급에 해당하는 노인이 전체 노인의 37.2%로 ‘하’ 등급 노인의 약 2배에 달함(그림 4-4).
- ❖ 영양지수를 구성하는 세부 영역별 분석 결과, 균형(필요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가), 절제(건강에 좋지 않은 식품을 적게 섭취하는가)영역에서는 ‘하’ 등급이 각각 16.2%, 17.0%였음. 실천(건강을 위해 권장하는 식행동을 실천하는가) 영역에서는 다른 세부 영역 보다 ‘하’등급의 비율이 28.6%로 높음.
- ❖ 실천(건강을 위해 권장하는 식행동을 실천하는가) 영역에서는 다른 세부 영역에 비해 ‘하’ 등급 비율이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남.



복합표본분석

- ¹⁾영양지수: 타당도가 입증된 간단한 식행동 체크리스트로 성인의 영양상태와 식사의 질을 종합적으로 측정·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평가도구임. 필요한 식품을 골고루 다양하게 먹는가(균형), 건강에 좋지 않은 식품은 적게 섭취하였는가(절제), 건강하고 안전한 식행동을 실천하는가(실천)의 3개 영역을 평가함.
- ²⁾균형: 영양상태와 식사의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도구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영양지수 중, 필요한 식품을 골고루 다양하게 먹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영역임. 노인 영양지수의 균형 영역은 과일, 우유 및 유제품, 달걀, 콩이나 두부, 전곡 및 잡곡류, 생선류, 견과류, 물에 대한 8가지 항목으로 평가함.
- ³⁾절제: 영양상태와 식사의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영양지수 중, 건강에 좋지 않은 식품을 적게 섭취하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영역임. 노인 영양지수의 절제 영역은 기름진 빵이나 과자류, 믹스커피 등 설탕이 많이 든 간식 섭취에 대한 27가지 항목으로 평가함.
- ⁴⁾실천: 영양상태와 식사의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도구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영양지수 중, 건강을 위해 권장하는 안전한 식행동을 실천하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영역임. 노인 영양지수의 실천 영역은 건강에 좋은 식생활 노력 정도, 소비기한이나 영양표시 확인, 식사 전 손씻기, 평소 우울감 정도, 수면의 질,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7가지 항목으로 평가함.

[그림 4-4] 서울시 노인의 영양지수 영역별 등급 분포

2) 서울시 먹거리 취약계층 노인은 어떻게 먹고 있는가?

가. 서울시 먹거리 취약계층 노인 식생활의 균형 수준

- ❖ 식생활의 균형 수준은 영양지수를 구성하는 요소이므로, 영양지수를 기준으로 선별된 먹거리 취약계층 노인, 즉 영양지수가 ‘하’ 등급인 노인의 식생활의 균형 수준은 당연히 다른 등급 노인의 식생활보다 낮을 것임.
- ❖ 따라서 본 장에서는 영양지수 ‘하’ 등급 노인의 식생활의 균형 수준을 영양지수 ‘중’ 또는 ‘상’ 등급 노인과 구체적인 항목별로 비교함(표 4-26).
- ❖ 먹거리 취약계층 노인의 경우, 평가한 모든 식품군을 적절한 가짓 수 또는 빈도로 섭취하는 비율이 비취약계층 노인보다 낮음.

〈표 4-26〉 서울시 노인의 영양지수 등급에 따른 식품군별 섭취 빈도

			명 (%)			
구분			영양지수 하 (n=84)	영양지수 중 (n=326)	영양지수 상 (n=323)	p ¹⁾
식품군별 섭취 빈도	과일	<주 4회	76 (91.7)	120 (42.5)	23 (8.5)	<0.001
		≥주 4회	8 (8.3)	206 (57.5)	300 (91.5)	
	우유 및 유제품류	<주 4회	77 (89.2)	177 (55.8)	84 (19.7)	<0.001
		≥주 4회	7 (10.8)	149 (44.2)	239 (80.3)	
	생선이나 조개류	<주 1회	58 (78.8)	128 (41.6)	61 (17.9)	<0.001
		≥주 1회	24 (21.2)	194 (58.4)	262 (82.1)	
	달걀	<주 1회	45 (45.5)	64 (20.4)	19 (3.3)	<0.001
		≥주 1회	39 (54.5)	262 (79.6)	304 (96.7)	
	콩이나 두부	<주 4회	67 (81.5)	108 (35.5)	61 (19.9)	<0.001
		≥주 4회	17 (18.5)	218 (64.5)	262 (80.1)	
	견과류	<주 1회	71 (90.7)	169 (57.3)	112 (30.9)	<0.001
		≥주 1회	13 (9.3)	157 (42.7)	211 (69.1)	
	전곡 및 잡곡류	<주 4회	47 (41.8)	83 (18.1)	25 (10.6)	<0.001
		≥주 4회	37 (58.2)	243 (81.9)	298 (89.4)	
	물	<일 5회	42 (38.3)	131 (47.6)	73 (17.2)	<0.001
		≥일 5회	42 (61.7)	195 (52.4)	250 (82.8)	

복합표본분석

¹⁾ 라오-스콧 χ^2 검정

나. 서울시 먹거리 취약계층 노인 식생활의 절제 수준

- ❖ 식생활의 절제 수준 또한 영양지수를 구성하는 요소이므로, 영양지수를 기준으로 선별된 먹거리 취약계층 노인, 즉 영양지수가 ‘하’ 등급인 노인의 식생활의 절제 수준은 당연히 다른 등급 노인의 식생활보다 낮을 것임(표 4-27).
- ❖ 따라서 본 장에서는 영양지수 ‘하’ 등급 노인의 식생활의 절제 수준을 영양지수 ‘중’ 또는 ‘상’ 등급 노인과 구체적인 항목별로 비교함.
- ❖ 먹거리 취약계층 노인이 다른 등급의 노인보다 주 1회 이상 설탕이 많이 들어간 간식의 섭취 비율이 높음.

〈표 4-27〉 서울시 노인의 영양지수 등급에 따른 식품유형별 섭취 빈도

명 (%)

구분			영양지수 하 (n=84)	영양지수 중 (n=326)	영양지수 상 (n=323)	p ¹⁾
식품유형별 섭취 빈도	설탕이 많이 들어간 간식	〈주 1회	35 (31.9)	79 (25.5)	135 (46.5)	0.005
		≥ 주 1회	49 (68.1)	247 (74.5)	188 (53.5)	
	기름진 빵이나 스낵과자류	〈주 1회	65 (76.1)	218 (69.5)	233 (70.2)	0.644
		≥ 주 1회	19 (23.9)	108 (30.5)	90 (29.8)	

복합표본분석

¹⁾ 라오-스콧 χ^2 검정

다. 서울시 먹거리 취약계층 노인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행동 실천 정도

- ❖ 건강하고 안전한 식행동의 실천 수준 또한 영양지수를 구성하는 요소이므로, 영양지수를 기준으로 선별된 먹거리 취약계층 노인, 즉 영양지수가 ‘하’ 등급인 노인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행동 실천 수준은 당연히 다른 등급 노인의 식생활보다 낮을 것임.
- ❖ 따라서 본 장에서는 영양지수 ‘하’ 등급 노인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행동의 실천 수준을 영양지수 ‘중’ 또는 ‘상’ 등급 노인과 구체적인 항목별로 비교함(표 4-28).
- ❖ 먹거리 취약계층 노인의 경우, 건강하고 안전한 식행동 실천 정도를 측정하는 일곱 가지 모든 항목에서의 수준이 비취약계층 노인보다 낮음.

〈표 4-28〉 서울시 노인의 영양지수 등급에 따른 건강하고 안전한 식행동 실천 정도

평균 (표준오차)

구분		영양지수 하 (n=84)	영양지수 중 (n=326)	영양지수 상 (n=323)	p ¹⁾
건강하고 안전한 식행동 실천 정도	건강에 좋은 식생활 노력 정도 ²⁾	2.97 ^c (0.13)	3.71 ^b (0.06)	4.14 ^a (0.08)	<0.001
	소비가한이나 영양표시 확인 정도 ³⁾	2.52 ^b (0.17)	3.27 ^a (0.12)	3.44 ^a (0.10)	<0.001
	식사 전 손 씻기 정도 ⁴⁾	3.61 ^b (0.11)	3.79 ^b (0.06)	4.07 ^a (0.06)	<0.001
	음식을 씹는데 불편하지 않은 정도 ⁵⁾	2.93 ^c (0.11)	3.25 ^b (0.07)	3.82 ^a (0.08)	<0.001
	평소에 우울하지 않은 정도 ⁶⁾	3.28 ^b (0.14)	3.52 ^b (0.09)	3.83 ^a (0.09)	<0.001
	수면의 질 정도 ⁷⁾	2.93 ^b (0.12)	3.53 ^a (0.08)	3.73 ^a (0.10)	<0.001
	주관적 건강상태 ⁸⁾	2.99 ^c (0.19)	3.41 ^b (0.17)	3.96 ^a (0.17)	<0.001

복합표본분석, 본페로니 사후검정: a)b)c)

¹⁾공분산분석(성별, 연령, 학력, 가구형태,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 보정)

²⁾건강에 좋은 식생활 노력 정도(5점 만점): 평소에 건강에 좋은 식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지를 평가한 지표로 다섯가지 항목의 5점 리커트 척도(전혀 노력하지 않는다=1, 매우 노력한다=5) 점수로 산출함.

³⁾소비가한이나 영양표시 확인 정도(5점 만점): (가공)식품을 구입할 때 소비기한이나 영양표시를 확인하는지를 평가한 지표로 다섯가지 항목의 5점 리커트 척도(전혀 확인하지 않는다=1, 항상 확인한다=5) 점수로 산출함.

⁴⁾식사 전 손씻기 정도(5점 만점):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지를 확인하는 지표로 다섯가지 항목의 5점 리커트 척도(전혀 씻지 않는다=1, 항상 씻는다=5) 점수로 산출함.

⁵⁾음식을 씹는데 불편하지 않은 정도(5점 만점): 현재 치아나 틀니, 잇몸 등의 문제로 음식을 씹는것이 불편한 정도를 확인하는 지표로 다섯가지 항목의 5점 리커트 척도(매우 불편하다=1, 전혀 불편하지 않다=5) 점수로 산출함.

⁶⁾평소에 우울하지 않은 정도(5점 만점): 평소에 우울함을 어느정도 느끼는지를 확인하는 지표로 다섯가지 항목의 5점 리커트 척도(항상 느낀다=1, 전혀 느끼지 않는다=5) 점수로 산출함.

⁷⁾수면의 질 정도(5점 만점): 잠을 잘 자는 편인지를 묻는 지표로 다섯가지 항목의 5점 리커트 척도(매우 못 잔다=1, 매우 잘 잔다=5) 점수로 산출함.

⁸⁾주관적 건강상태(5점 만점): 현재 건강상태를 전반적으로 묻는 지표로 5점 리커트 척도(매우 나쁘다=1, 매우 좋다=5) 점수로 산출함.

라. 서울시 먹거리 취약계층 노인의 외식 행태

- ❖ 먹거리 취약계층 노인에서 주 1회 이상 음식점음식을 섭취하는 사람의 비율은 30%에 가까웠으며, 배달음식, 편의점음식, 간편조리세트를 섭취하는 비율은 10% 미만임(표 4-29).
- ❖ 먹거리 취약계층 노인은 비취약계층 노인보다 간편조리세트를 주 1회 이상 이용하는 비율이 낮음.

〈표 4-29〉 서울시 노인의 영양지수 등급에 따른 외식 행태

명 (%)

구분		영양지수 하 (n=84)	영양지수 중 (n=326)	영양지수 상 (n=323)	p ¹⁾
음식점음식	〈주 1회	59 (72.1)	191 (64.6)	202 (69.2)	0.558
	≥주 1회	25 (27.9)	135 (35.4)	121 (30.8)	
배달음식	〈주 1회	74 (91.8)	278 (88.0)	269 (88.5)	0.665
	≥주 1회	10 (8.2)	48 (12.0)	54 (11.5)	
편의점음식	〈주 1회	79 (96.6)	290 (92.4)	277 (92.4)	0.352
	≥주 1회	5 (3.4)	36 (7.6)	46 (7.6)	
간편조리세트	〈주 1회	80 (98.5)	290 (91.8)	276 (90.3)	0.023
	≥주 1회	4 (1.5)	36 (8.2)	47 (9.7)	

복합표본분석

¹⁾라오-스콧 χ^2 검정

마. 서울시 먹거리 취약계층 노인의 식품환경만족도

- ❖ 먹거리 취약계층 노인의 식품환경만족도는 비취약계층 노인에 비해 낮음(표 4-30).
- ❖ 식품환경만족도를 세부 항목별로 살펴봤을 때, 서울시 먹거리 취약계층 노인이 비취약 계층 노인보다 모든 측면에 대한 만족도에서 낮은 수준임.

〈표 4-30〉 서울시 노인의 영양지수 등급에 따른 식품환경만족도

평균 (표준오차)

구분	영양지수 하 (n=83) ²⁾	영양지수 중 (n=321) ²⁾	영양지수 상 (n=316) ²⁾	p ¹⁾
가용성	3.77 ^b (0.17)	3.81 ^b (0.12)	4.08 ^a (0.12)	0.001
물리적 접근성	3.71 ^b (0.15)	4.11 ^a (0.11)	4.19 ^a (0.10)	0.001
가격 적정성	3.32 ^c (0.14)	3.77 ^b (0.07)	4.01 ^a (0.08)	<0.001
편의성	3.57 ^b (0.13)	3.80 ^{ab} (0.07)	4.04 ^a (0.08)	0.003
수용성	3.57 ^b (0.17)	3.89 ^{ab} (0.14)	4.06 ^a (0.13)	<0.001
식품환경만족도 ³⁾	3.59 ^c (0.12)	3.88 ^b (0.08)	4.08 ^a (0.08)	<0.001

복합표본분석, 본페로니 사후검정: a)b)c)

¹⁾공분산분석(성별, 연령, 학력, 가구형태,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 보정)

²⁾식품환경만족도 문항에 동의 식품점에서 '구매 경험이 없다'라고 응답한 노인층 제외

³⁾식품환경만족도(5점 만점): 가용성, 접근성, 가격적정성, 편의성, 수용성 다섯 가지 항목으로 식생활 환경 만족도를 평가한 지표. 다섯 가지 항목의 5점 리커트 척도(거의 그렇지 않다=1, 거의 그렇다=5) 점수의 평균값으로 산출함.

식품환경만족도 세부 구성 항목(5점 리커트 척도)

- 가용성: 우리 동네에는 다양하고 건강한 식품(과일 및 채소)을 구매할 수 있는 식료품점이 충분하다.
- 접근성: 다양하고 건강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식료품점이 우리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다.
- 가격적정성: 우리 동네 식료품점에서 파는 식품들은 내가 구매할 수 있는 적절한 가격이다.
- 편의성: 우리 동네 식료품점의 서비스(소량 구매, 배달 정도, 영업시간 등)는 이용하기 편리하다.
- 수용성: 우리 동네 식료품점에서 파는 식품들은 신선하고 질이 좋다.

바. 서울시 먹거리 취약계층 노인의 식생활역량

- ❖ 먹거리 취약계층 노인의 식생활역량은 비취약계층 노인보다 유의하게 낮음(표 4-31).

〈표 4-31〉 서울시 노인의 영양지수 등급에 따른 식생활역량

평균 (표준오차)

구분	영양지수 하 (n=84)	영양지수 중 (n=326)	영양지수 상 (n=323)	p ¹⁾
건강한 식생활역량	49.20 ^c (2.44)	60.65 ^b (1.31)	65.84 ^a (1.24)	<0.001
즐거운 식생활역량	50.61 ^c (2.49)	59.05 ^b (1.66)	63.97 ^a (1.71)	<0.001
가치있는 식생활역량	59.63 ^c (2.91)	67.48 ^b (2.17)	73.23 ^a (2.20)	<0.001
식생활역량 ²⁾	53.14 ^c (2.32)	62.40 ^b (1.56)	67.68 ^a (1.59)	<0.001

복합표본분석, 본페로니 사후검정: a)b)c)

¹⁾공분산분석(성별, 연령, 학력, 가구형태,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 보정)

²⁾식생활역량(100점 만점): 식품 선택과 관리, 조리할 수 있는 능력과 음식의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음식이 가진 공동체, 농업, 생태환경의 가치를 고려한 먹거리 관련 지표. 건강한 식생활(14문항), 즐거운 식생활(8문항), 가치있는 식생활(11문항) 세 가지 영역의 점수를 각각 100점 만점으로 표준화하여 세 값의 평균값으로 산출함.

사. 서울시 먹거리 취약계층 노인의 식품디지털역량

- ❖ 먹거리 취약계층 노인의 식품디지털역량은 비취약계층 노인보다 유의하게 낮음(표 4-32).

〈표 4-32〉 서울시 노인의 영양지수 등급에 따른 식품디지털역량

평균 (표준오차)

구분	영양지수 하 (n=84)	영양지수 중 (n=326)	영양지수 상 (n=323)	p ¹⁾
온라인 식품 구매 역량	2.69 ^b (0.22)	2.85 ^{ab} (0.20)	3.04 ^a (0.21)	0.025
음식점 무인기기(키오스크) 사용 역량	2.55 ^b (0.15)	2.82 ^b (0.11)	3.17 ^a (0.13)	<0.001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사용 역량	2.65 ^b (0.22)	2.78 ^b (0.19)	3.08 ^a (0.21)	0.004
식품디지털역량 ²⁾	2.63 ^b (0.18)	2.82 ^b (0.16)	3.09 ^a (0.17)	<0.001

복합표본분석, 본페로니 사후검정: a)b)c)

¹⁾공분산분석(성별, 연령, 학력, 가구형태,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 보정)

²⁾식품디지털역량(5점 만점): 식품디지털역량(5점 만점)은 온라인 식품 구매 역량(5점 만점), 음식점 무인기기(키오스크) 사용 역량(5점 만점),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사용 역량(5점 만점) 세 가지 역량 점수의 평균값으로 산출함.

아. 서울시 먹거리 취약계층 노인의 식품안전 인식 및 식생활에 대한 인식

- ❖ 먹거리 취약계층 노인의 경우, 비취약계층 노인과 비교하여 식생활안전인식도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식생활만족도와 식생활중요도는 유의하게 낮음(표 4-33).

〈표 4-33〉 서울시 노인의 영양지수 등급에 따른 식품안전 인식 및 식생활에 대한 인식

평균 (표준오차)

구분	영양지수 하 (n=84)	영양지수 중 (n=326)	영양지수 상 (n=323)	p ¹⁾
식품안전인식도 ²⁾	3.47 (0.16)	3.52 (0.13)	3.60 (0.12)	0.461
식생활만족도 ³⁾	3.03 ^c (0.11)	3.33 ^b (0.10)	3.82 ^a (0.11)	<0.001
식생활중요도 ⁴⁾	3.88 ^{ab} (0.13)	3.73 ^b (0.10)	3.95 ^a (0.09)	0.034

복합표본분석

¹⁾공분산분석(성별, 학력, 가구형태,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 보정, 본페로니 사후검정: a)b)c)

²⁾식품안전인식도(5점 만점): 서울시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식품(식재료, 음식점 음식, 포장 및 배달음식 등 포함)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를 평가한 지표로 다섯 가지 항목의 5점 리커트 척도(매우 안전하지 않다=1, 매우 안전하다=5) 점수로 산출함.

³⁾식생활만족도(5점 만점): 현재 식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평가한 지표로 다섯 가지 항목의 5점 리커트 척도(매우 불만족한다=1, 매우 만족한다=5) 점수로 산출함.

⁴⁾식생활중요도(5점 만점): 본인의 식생활이 행복해지는 데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다섯 가지 항목의 5점 리커트 척도(매우 중요하지 않다=1, 매우 중요하다=5) 점수로 산출함.

자. 서울시 먹거리 취약계층 노인의 식품비 부담 정도

- ❖ 먹거리 취약계층 노인의 대부분인 94%가 식품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비율은 비취약계층 노인보다 높은 수준은 아님(표 4-34).

〈표 4-34〉 서울시 노인의 영양지수 등급에 따른 식품비 부담 정도

명 (%)

구분	영양지수 하 (n=84)	영양지수 중 (n=326)	영양지수 상 (n=323)	p ¹⁾
부담되지 않음	13 (6.0)	27 (7.5)	22 (6.4)	0.859
부담됨	71 (94.0)	299 (92.5)	301 (93.6)	

복합표본분석

¹⁾라오-스콧 χ^2 검정

3) 서울시 남성 노인은 어떻게 먹고 있는가?

가. 서울시 남성 노인의 영양지수 영역별 등급 분포

- ❖ 영양지수 등급 분포를 비교한 결과, 서울시 남성 노인은 ‘하’ 등급(26.0%)의 비율이 여성 노인(13.1%)보다 높고, ‘중’ 등급(39.9%)과 ‘상’ 등급(34.1%)은 여성 노인(47.1%, 39.8%)에 비해 낮음(표 4-35).
- 남성 노인의 1/4이 전반적인 식생활이 불량하여 여성 노인에 비해 식생활 개선이 더욱 시급함을 보여줌.
- ❖ 영양지수를 구성하는 세부 영역별 분석 결과, 균형(필요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가) 영역에서는 남성 노인의 ‘하’ 등급의 비율(26.1%)이 여성 노인(8.1%)보다 약 3배 높고, ‘중’ 등급(47.9%)과 ‘상’ 등급(26.0%)은 여성 노인(50.2%, 41.7%)에 비해 낮음.
- ❖ 절제(건강에 좋지 않은 식품을 적게 섭취하는가) 영역에서는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 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음.
- ❖ 실천(건강을 위해 권장하는 식행동을 실천하는가) 영역에서는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 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고, 세 영역 중 ‘하’ 등급의 비율이 남성 및 여성 노인에서 모두 가장 높음.
- 남녀 노인에서 모두 약 30%가 실천 영역의 식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표 4-35〉 서울시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의 영양지수 영역별 등급 분포

		명 (%)		
구분		남성 노인 (n=348)	여성 노인 (n=385)	p ¹⁾
균형 ²⁾	상	113 (26.0)	172 (41.7)	<0.001
	중	182 (47.9)	182 (50.2)	
	하	53 (26.1)	31 (8.1)	
절제 ³⁾	상	100 (28.5)	124 (31.0)	0.866
	중	185 (53.7)	182 (52.7)	
	하	63 (17.9)	79 (16.3)	
실천 ⁴⁾	상	123 (28.5)	148 (26.6)	0.864
	중	166 (42.1)	166 (45.4)	
	하	59 (29.4)	71 (28.0)	
영양지수 ⁵⁾	상	140 (34.1)	183 (39.8)	0.044
	중	159 (39.9)	167 (47.1)	
	하	49 (26.0)	35 (13.1)	

복합표본분석

¹⁾라오-스콧 χ^2 검정

²⁾균형: 영양상태와 식사의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도구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영양지수 중, 필요한 식품을 골고루 다양하게 먹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영역임. 노인 영양지수의 균형 영역은 과일, 우유 및 유제품, 달걀, 콩이나 두부, 전곡 및 잡곡류, 생선류, 견과류, 물에 대한 8가지 항목으로 평가함.

³⁾절제: 영양상태와 식사의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영양지수 중, 건강에 좋지 않은 식품을 적게 섭취하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영역임. 노인 영양지수의 절제 영역은 기름진 빵이나 과자류, 믹스커피 등 설탕이 많은 간식 섭취에 대한 2가지 항목으로 평가함.

⁴⁾실천: 영양상태와 식사의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도구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영양지수 중, 건강을 위해 권장하는 안전한 식행동을 실천하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영역임. 노인 영양지수의 실천 영역은 건강에 좋은 식생활 노력 정도, 소비기한이나 영양표시 확인, 식사 전 손씻기, 평소 우울감 정도, 수면의 질,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7가지 항목으로 평가함.

⁵⁾영양지수: 타당도가 입증된 간단한 식행동 체크리스트로 성인의 영양상태와 식사의 질을 종합적으로 측정·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평가도구임. 필요한 식품을 골고루 다양하게 먹는가(균형), 건강에 좋지 않은 식품은 적게 섭취하였는가(절제), 건강하고 안전한 식행동을 실천하는가(실천)의 3개 영역을 평가함.

나. 서울시 남성 노인 식생활의 균형 수준

- ❖ 남성 노인의 경우, 우유 및 유제품류와 견과류에서 적절한 빈도보다 부족하게 섭취하는 비율이 50% 이상으로 다른 식품군에 비해 높음(표 4-36).
- ❖ 남성 노인의 우유 및 유제품류, 전곡 및 잡곡류의 섭취가 여성 노인에 비해 부족함.

〈표 4-36〉 서울시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의 식품군별 섭취 빈도

			명 (%)		
구분			남성 노인 (n=348)	여성 노인 (n=385)	p ¹⁾
식품군별 섭취 빈도	과일	<주 4회	123 (46.7)	96 (33.0)	0.057
		≥주 4회	225 (53.3)	289 (67.0)	
	우유 및 유제품류	<주 4회	175 (56.6)	163 (42.2)	0.024
		≥주 4회	173 (43.4)	222 (57.8)	
	생선이나 조개류	<주 1회	115 (42.0)	132 (37.0)	0.470
		≥주 1회	230 (58.0)	250 (63.0)	
	달걀	<주 1회	66 (22.2)	62 (16.0)	0.321
		≥주 1회	282 (77.8)	323 (84.0)	
	콩이나 두부	<주 4회	117 (43.1)	119 (34.5)	0.180
		≥주 4회	231 (56.9)	266 (65.5)	
	견과류	<주 1회	176 (59.5)	176 (49.0)	0.129
		≥주 1회	172 (40.5)	209 (51.0)	
	전곡 및 잡곡류	<주 4회	87 (25.8)	68 (14.9)	0.011
		≥주 4회	261 (74.2)	317 (85.1)	
	물	<일 5회	115 (30.2)	131 (38.0)	0.203
		≥일 5회	233 (69.8)	254 (62.0)	

복합표본분석

¹⁾라오-스콧 χ^2 검정

다. 서울시 남성 노인 식생활의 질제 수준

- ❖ 남성 노인의 경우, 약 3명 중 2명이 설탕이 많이 들어간 간식을 주 1회 이상 섭취하고, 약 30%가 기름진 빵이나 스낵과자류를 주 1회 이상 섭취함(표 4-37).

〈표 4-37〉 서울시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의 식품유형별 섭취 빈도

			명 (%)		
구분			남성 노인 (n=348)	여성 노인 (n=385)	p ¹⁾
식품유형별 섭취 빈도	설탕이 많이 들어간 간식	<주 1회	117 (33.9)	132 (35.1)	0.816
		≥주 1회	231 (66.1)	253 (64.9)	
	기름진 빵이나 스낵과자류	<주 1회	242 (69.5)	274 (72.3)	0.639
		≥주 1회	106 (30.5)	111 (27.7)	

복합표본분석

¹⁾라오-스콧 χ^2 검정

라. 서울시 남성 노인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행동 실천 정도

- ❖ 남성 노인의 경우, 수면의 질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식행동의 실천 수준이 여성 노인보다 낮음. 특히, 건강에 좋은 식생활 노력과 소비기한이나 영양표시 확인 수준이 여성 노인에 비해 낮음(표 4-38).

〈표 4-38〉 서울시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행동 실천 정도

평균 (표준오차)

구분		남성 노인 (n=348)	여성 노인 (n=385)	p ¹⁾
건강하고 안전한 식행동 실천 정도	건강에 좋은 식생활 노력 정도 ²⁾	3.66 (0.08)	4.03 (0.11)	0.004
	소비기한이나 영양표시 확인 ³⁾	3.02 (0.13)	3.56 (0.17)	0.004
	식사 전 손 씻기 정도 ⁴⁾	3.72 (0.07)	4.07 (0.08)	<0.001
	음식을 씹는데 불편하지 않은 정도 ⁵⁾	3.31 (0.07)	3.63 (0.13)	0.046
	평소에 우울하지 않은 정도 ⁶⁾	3.43 (0.08)	3.85 (0.13)	0.010
	수면의 질 정도 ⁷⁾	3.59 (0.07)	3.56 (0.13)	0.869
	주관적 건강상태 ⁸⁾	3.45 (0.15)	3.79 (0.19)	0.022

복합표본분석

¹⁾공분산분석(연령, 학력, 가구형태,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 조정)

²⁾건강에 좋은 식생활 노력 정도(5점 만점): 평소에 건강에 좋은 식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지를 평가한 지표로 다섯가지 항목의 5점 리커트 척도(전혀 노력하지 않는다=1, 매우 노력한다=5) 점수로 산출함.

³⁾소비기한이나 영양표시 확인 정도(5점 만점): (가공)식품을 구입할 때 소비기한이나 영양표시를 확인하는지를 평가한 지표로 다섯가지 항목의 5점 리커트 척도(전혀 확인하지 않는다=1, 항상 확인한다=5) 점수로 산출함.

⁴⁾식사 전 손씻기 정도(5점 만점):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지를 확인하는 지표로 다섯가지 항목의 5점 리커트 척도(전혀 씻지 않는다=1, 항상 씻는다=5) 점수로 산출함.

⁵⁾음식을 씹는데 불편하지 않은 정도(5점 만점): 현재 치아나 틀니, 잇몸 등의 문제로 음식을 씹는것이 불편한 정도를 확인하는 지표로 다섯가지 항목의 5점 리커트 척도(매우 불편하다=1, 전혀 불편하지 않다=5) 점수로 산출함.

⁶⁾평소에 우울하지 않은 정도(5점 만점): 평소에 우울함을 어느정도 느끼는지를 확인하는 지표로 다섯가지 항목의 5점 리커트 척도(항상 느낀다=1, 전혀 느끼지 않는다=5) 점수로 산출함.

⁷⁾수면의 질 정도(5점 만점): 잠을 잘 자는 편인지를 묻는 지표로 다섯가지 항목의 5점 리커트 척도(매우 못 잔다=1, 매우 잘 잔다=5) 점수로 산출함.

⁸⁾주관적 건강상태(5점 만점): 현재 건강상태를 전반적으로 묻는 지표로 5점 리커트 척도(매우 나쁘다=1, 매우 좋다=5) 점수로 산출함.

마. 서울시 남성 노인의 외식 행태

- ❖ 남성 노인의 경우, 약 1/2이 음식점음식을 주 1회 이상 섭취하였고, 여성 노인 (19.7%)보다 섭취 비율이 높음(표 3-39).
- ❖ 배달음식과 간편조리세트를 주 1회 이상 이용하는 남성 노인의 비율은 각각 약 15%, 약 11% 수준으로 낮았으나 그 비율이 여성 노인보다는 높음.
- ❖ 편의점음식을 주 1회 이상 섭취하는 남성 노인의 비율은 약 8% 수준으로 매우 낮았고 이는 여성 노인과 비슷한 수준임.

〈표 4-39〉 서울시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의 외식 행태

		명 (%)		
구분		남성 노인 (n=348)	여성 노인 (n=385)	p ¹⁾
음식점음식	<주 1회	178 (52.3)	274 (80.3)	<0.001
	≥주 1회	170 (47.7)	111 (19.7)	
배달음식	<주 1회	283 (85.5)	338 (91.6)	0.042
	≥주 1회	65 (14.5)	47 (8.4)	
편의점음식	<주 1회	302 (92.5)	344 (93.8)	0.532
	≥주 1회	46 (7.5)	41 (6.2)	
간편조리세트	<주 1회	293 (89.1)	353 (95.2)	0.016
	≥주 1회	55 (10.9)	32 (4.8)	

복합표본분석

¹⁾라오-스콧 χ^2 검정

바. 서울시 남성 노인의 식품환경만족도

- ❖ 남성 노인의 식품환경만족도는 여성 노인에 비해 낮음(표 4-40).
- ❖ 식품환경만족도를 세부 구성 항목별로 살펴봤을 때, 물리적 접근성, 가격 적정성에 대한 만족도에서 남성 노인이 여성 노인보다 낮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임.

〈표 4-40〉 서울시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의 식품환경만족도

평균 (표준오차)			
구분	남성 노인 (n=336) ²⁾	여성 노인 (n=384) ²⁾	p ¹⁾
가용성	3.87 (0.11)	3.98 (0.12)	0.323
물리적 접근성	3.87 (0.11)	4.35 (0.14)	<0.001
가격 적정성	3.72 (0.06)	3.97 (0.09)	0.017
편의성	3.79 (0.06)	3.99 (0.09)	0.074
수용성	3.84 (0.12)	4.04 (0.17)	0.183
식품환경만족도 ³⁾	3.82 (0.08)	4.07 (0.10)	0.006

복합표본분석

¹⁾공분산분석(연령, 학력, 가구형태,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 조정)

²⁾식품환경만족도 문항에 동네 식료품점에서 '구매 경험이 없다'라고 응답한 노인층 제외

³⁾식품환경만족도(5점 만점): 가용성, 접근성, 가격적정성, 편의성, 수용성 다섯 가지 항목으로 식생활 환경 만족도를 평가한 지표. 다섯 가지 항목의 5점 리커트 척도(거의 그렇지 않다=1, 거의 그렇다=5) 점수의 평균값으로 산출함.

식품환경만족도 세부 구성 항목(5점 리커트 척도)

- 가용성: 우리 동네에는 다양하고 건강한 식품(과일 및 채소)을 구매할 수 있는 식료품점이 충분하다.
- 접근성: 다양하고 건강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식료품점이 우리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다.
- 가격적정성: 우리 동네 식료품점에서 파는 식품들은 내가 구매할 수 있는 적절한 가격이다.
- 편의성: 우리 동네 식료품점의 서비스(소량 구매, 배달 정도, 영업시간 등)는 이용하기 편리하다.
- 수용성: 우리 동네 식료품점에서 파는 식품들은 신선하고 질이 좋다.

사. 서울시 남성 노인의 식생활역량

- ❖ 남성 노인의 식생활역량은 여성 노인보다 유의하게 낮음(표 4-41).

〈표 4-41〉 서울시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의 식생활역량

구분	평균 (표준오차)		
	남성 노인 (n=348)	여성 노인 (n=385)	p ¹⁾
건강한 식생활역량	59.76 (1.42)	64.39 (2.02)	0.039
즐거운 식생활역량	56.64 (1.72)	64.51 (2.11)	<0.001
가치있는 식생활역량	67.29 (2.30)	71.52 (2.33)	0.020
식생활역량 ²⁾	61.23 (1.69)	66.81 (1.96)	0.001

복합표본분석

¹⁾공분산분석(연령, 학력, 가구형태,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 조정)

²⁾식생활역량(100점 만점): 식품 선택과 관리, 조리할 수 있는 능력과 음식의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음식이 가진 공동체, 농업, 생태환경의 가치를 고려한 먹거리 관련 지표. 건강한 식생활(14문항), 즐거운 식생활(8문항), 가치있는 식생활(11문항) 세 가지 영역의 점수를 각각 100점 만점으로 표준화하여 세 값의 평균값으로 산출함.

4) 서울시 후기노인의 식생활은 어떠한가?

가. 서울시 후기노인의 영양지수 영역별 등급 분포

- ❖ 영양지수 등급 분포를 비교한 결과, 서울시 후기노인에서는 ‘하’ 등급(22.5%)의 비율이 전기노인(17.7%)보다 높고, ‘중’ 등급(49.0%)과 ‘상’ 등급(28.4%)은 전기(42.2%, 40.1%)에 비해 낮음(표 4-42).
 - 서울시 후기노인의 1/5 이상이 전반적인 식생활이 불량한 수준에 해당하여 전기노인에 비해 식생활 개선이 더욱 시급함을 보여줌.
- ❖ 영양지수를 구성하는 세부 영역별 분석 결과, 균형(필요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가) 영역에서는 후기노인과 전기노인 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음, 후기노인의 ‘하’ 등급 비율은 15.0%, 전기노인은 16.6%로 나타남.
- ❖ 절제(건강에 좋지 않은 식품을 적게 섭취하는가) 영역에서는 후기노인과 전기노인 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고, 후기노인의 ‘하’ 등급 비율은 16.2%, 전기노인은 17.2%로 나타남.
- ❖ 실천(건강을 위해 권장하는 식행동을 실천하는가) 영역에서는 서울시 후기노인은 ‘하’ 등급(54.1%)의 비율이 전기노인(20.5%)보다 30% 이상 높고, ‘중’ 등급(29.7%) ‘상’ 등급(16.2%)은 전기노인(48.5%, 31.1%)에 비해 낮게 나타남.
 - 과반의 서울시 후기노인이 실천 영역에서의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42〉 서울시 후기노인과 전기노인의 영양지수 영역별 등급 분포

		명 (%)		
구분		후기노인 (n=115)	전기노인 (n=618)	p ¹⁾
균형 ²⁾	상	44 (38.4)	241 (33.4)	0.765
	중	55 (46.6)	309 (50.0)	
	하	16 (15.0)	68 (16.6)	
절제 ³⁾	상	32 (30.5)	192 (29.7)	0.967
	중	54 (53.3)	313 (53.1)	
	하	29 (16.2)	113 (17.2)	
실천 ⁴⁾	상	25 (16.2)	246 (31.1)	<0.001
	중	38 (29.7)	294 (48.5)	
	하	52 (54.1)	78 (20.5)	
영양지수 ⁵⁾	상	34 (28.4)	289 (40.1)	0.285
	중	60 (49.0)	266 (42.2)	
	하	21 (22.5)	63 (17.7)	

복합표본분석

¹⁾라오-스콧 χ^2 검정

²⁾균형: 영양상태와 식사의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도구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영양지수 중, 필요한 식품을 골고루 다양하게 먹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영역임. 노인 영양지수의 균형 영역은 과일, 우유 및 유제품, 달걀, 콩이나 두부, 전곡 및 잡곡류, 생선이나 조개류, 견과류, 물에 대한 8가지 항목으로 평가함.

³⁾절제: 영양상태와 식사의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영양지수 중, 건강에 좋지 않은 식품을 적게 섭취하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영역임. 노인 영양지수의 절제 영역은 기름진 빵이나 과자류, 믹스커피 등 설탕이 많이 든 간식 섭취에 대한 2가지 항목으로 평가함.

⁴⁾실천: 영양상태와 식사의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도구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영양지수 중, 건강을 위해 권장하는 안전한 식행동을 실천하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영역임. 노인 영양지수의 실천 영역은 건강에 좋은 식생활 노력 정도, 소비기한이나 영양표시 확인, 식사 전 손씻기, 평소 우울감 정도, 수면의 질,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7가지 항목으로 평가함.

⁵⁾영양지수: 타당도가 입증된 간단한 식행동 체크리스트로 성인의 영양상태와 식사의 질을 종합적으로 측정·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평가도구임. 필요한 식품을 골고루 다양하게 먹는가(균형), 건강에 좋지 않은 식품은 적게 섭취하였는가(절제), 건강하고 안전한 식행동을 실천하는가(실천)의 3개 영역을 평가함.

나. 서울시 후기노인 식생활의 균형 수준

- ❖ 후기노인의 경우, 견과류를 주 1회 이상 섭취한 비율이 40% 수준으로, 다른 식품군에 비해 적절한 빈도로 섭취하는 비율이 가장 낮음(표 4-43).
- ❖ 후기노인의 달걀 섭취 빈도는 전기노인보다 높음.

〈표 4-43〉 서울시 후기노인과 전기노인의 식품군별 섭취 빈도

			명 (%)		
구분			후기노인 (n=115)	전기노인 (n=618)	p ¹⁾
식품군별 섭취 빈도	과일	〈주 4회	42 (37.0)	177 (39.8)	0.763
		≥ 주 4회	73 (63.0)	441 (60.2)	
	우유 및 유제품류	〈주 4회	57 (49.6)	281 (48.4)	0.872
		≥ 주 4회	58 (50.4)	337 (51.6)	
	생선이나 조개류	〈주 1회	46 (39.2)	201 (39.2)	0.997
		≥ 주 1회	68 (60.8)	412 (60.8)	
	달걀	〈주 1회	13 (7.6)	115 (22.3)	0.012
		≥ 주 1회	102 (92.4)	503 (77.7)	
	콩이나 두부	〈주 4회	41 (32.3)	195 (40.3)	0.221
		≥ 주 4회	74 (67.7)	423 (59.7)	
	견과류	〈주 1회	61 (57.8)	291 (52.5)	0.494
		≥ 주 1회	54 (42.2)	327 (47.5)	
	전곡 및 잡곡류	〈주 4회	23 (15.0)	132 (21.3)	0.266
		≥ 주 4회	92 (85.0)	486 (78.7)	
	물	〈일 5회	41 (33.6)	205 (34.8)	0.893
		≥ 일 5회	74 (66.4)	413 (65.2)	

복합표본분석, ¹⁾라오-스콧 χ^2 검정

다. 서울시 후기노인 식생활의 절제 수준

❖ 후기노인의 경우, 설탕이 많이 들어간 간식을 주 1회 이상 섭취하는 비율이 68.1%로 높은 수준이고, 기름진 빵이나 스낵과자류를 주 1회 이상 섭취하는 비율은 27.6%로 낮은 수준임(표 4-44).

❖ 후기노인과 전기노인의 식생활의 절제 수준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

〈표 4-44〉 서울시 후기노인과 전기노인의 식품유형별 섭취 빈도

			명 (%)		
구분			후기노인 (n=115)	전기노인 (n=618)	p ¹⁾
식품유형별 섭취 빈도	설탕이 많이 들어간 간식	〈주 1회	36 (35.0)	213 (34.4)	0.923
		≥ 주 1회	79 (65.0)	405 (65.6)	
	기름진 빵이나 스낵과자류	〈주 1회	78 (72.4)	438 (70.6)	0.788
		≥ 주 1회	37 (27.6)	180 (29.4)	

복합표본분석, ¹⁾라오-스콧 χ^2 검정

라. 서울시 후기노인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행동 실천정도

- ❖ 후기노인은 전기노인보다 평소에 우울하지 않은 정도의 수준이 낮고, 기타 다른 측면의 수준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표 4-45).

〈표 4-45〉 서울시 후기노인과 전기노인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행동 실천정도

		평균 (표준오차)		
구분		후기노인 (n=115)	전기노인 (n=618)	p ¹⁾
건강하고 안전한 식행동 실천 정도	건강에 좋은 식생활 노력 정도 ²⁾	3.88 (0.11)	3.81 (0.08)	0.571
	소비가한이나 영양표시 확인 정도 ³⁾	3.20 (0.17)	3.31 (0.14)	0.534
	식사 전 손 씻기 정도 ⁴⁾	3.82 (0.08)	3.92 (0.05)	0.299
	음식을 씹는데 불편하지 않은 정도 ⁵⁾	3.46 (0.13)	3.49 (0.09)	0.865
	평소에 우울하지 않은 정도 ⁶⁾	3.42 (0.13)	3.73 (0.08)	0.045
	수면의 질 정도 ⁷⁾	3.65 (0.13)	3.55 (0.09)	0.531
	주관적 건강상태 ⁸⁾	3.68 (0.19)	3.59 (0.15)	0.514

복합표본분석

¹⁾공분산분석(성별, 학력, 가구형태,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 보정)

²⁾건강에 좋은 식생활 노력 정도(5점 만점): 평소에 건강에 좋은 식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지를 평가한 지표로 다섯 가지 항목의 5점 리커트 척도(전혀 노력하지 않는다=1, 매우 노력한다=5) 점수로 산출함.

³⁾소비가한이나 영양표시 확인 정도(5점 만점): (가공)식품을 구입할 때 소비가한이나 영양표시를 확인하는지를 평가한 지표로 다섯 가지 항목의 5점 리커트 척도(전혀 확인하지 않는다=1, 항상 확인한다=5) 점수로 산출함.

⁴⁾식사 전 손씻기 정도(5점 만점):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지를 확인하는 지표로 다섯 가지 항목의 5점 리커트 척도(전혀 씻지 않는다=1, 항상 씻는다=5) 점수로 산출함.

⁵⁾음식을 씹는데 불편하지 않은 정도(5점 만점): 현재 치아나 틀니, 잇몸 등의 문제로 음식을 씹는것이 불편한 정도를 확인하는 지표로 다섯 가지 항목의 5점 리커트 척도(매우 불편하다=1, 전혀 불편하지 않다=5) 점수로 산출함.

⁶⁾평소에 우울하지 않은 정도(5점 만점): 평소에 우울함을 어느정도 느끼는지를 확인하는 지표로 다섯 가지 항목의 5점 리커트 척도(항상 느끼다=1, 전혀 느끼지 않는다=5) 점수로 산출함.

⁷⁾수면의 질 정도(5점 만점): 잠을 잘 자는 편인지를 묻는 지표로 다섯 가지 항목의 5점 리커트 척도(매우 못 잔다=1, 매우 잘 잔다=5) 점수로 산출함.

⁸⁾주관적 건강상태(5점 만점): 현재 건강상태를 전반적으로 묻는 지표로 5점 리커트 척도(매우 나쁘다=1, 매우 좋다=5) 점수로 산출함.

마. 서울시 후기노인의 외식 행태

- ❖ 후기노인 중 극소수인 5% 미만이 배달음식, 편의점음식, 간편조리세트를 주 1회 이상으로 이용함. 음식적음식의 경우, 상대적으로 주 1회 이상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16% 수준으로 역시 낮음(표 4-46).
- ❖ 후기노인은 전기노인에 비해 음식점음식, 배달음식, 간편조리세트를 전기노인보다 덜 자주 이용함.

〈표 4-46〉 서울시 후기노인과 전기노인의 외식 행태

		명 (%)		
구분		후기노인 (n=115)	전기노인 (n=618)	p ¹⁾
음식점음식	<주 1회	92 (84.4)	360 (62.4)	<0.001
	≥주 1회	23 (15.6)	258 (37.6)	
배달음식	<주 1회	106 (96.0)	515 (86.6)	0.003
	≥주 1회	9 (4.0)	103 (13.4)	
편의점음식	<주 1회	109 (96.8)	537 (92.1)	0.180
	≥주 1회	6 (3.2)	81 (7.9)	
간편조리세트	<주 1회	109 (97.7)	537 (90.8)	0.012
	≥주 1회	6 (2.3)	81 (9.2)	

복합표본분석

¹⁾라오-스콧 χ^2 검정

바. 서울시 후기노인의 식품디지털역량

- ❖ 후기노인의 식품디지털역량은 전기노인에 비해 낮음(표 4-47).
- ❖ 식품식품디지털역량을 세부 구성 항목별로 살펴봤을 때, 온라인 식품 구매 역량에 대해서는 후기노인이 전기노인보다 유의하게 낮지 않으나, 음식점 무인기기 사용 역량,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 사용 역량에 대해서는 낮게 나타남.

〈표 4-47〉 서울시 후기노인과 전기노인의 식품디지털역량

		평균 (표준오차)		
구분		후기노인 (n=115)	전기노인 (n=618)	p ¹⁾
온라인 식품 구매 역량		2.80 (0.20)	3.01 (0.19)	0.078
음식점 무인기기(키오스크) 사용 역량		2.73 (0.13)	3.09 (0.12)	0.008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사용 역량		2.72 (0.20)	3.00 (0.19)	0.015
식품디지털역량 ²⁾		2.75 (0.16)	3.03 (0.16)	0.013

복합표본분석

¹⁾공분산분석(성별, 학력, 가구형태,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 보정)

²⁾식품디지털역량(5점 만점): 식품디지털역량(5점 만점)은 온라인 식품 구매 역량(5점 만점), 음식점 무인기기(키오스크) 사용 역량(5점 만점),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사용 역량(5점 만점) 세 가지 역량 점수의 평균값으로 산출함.

사. 서울시 후기노인의 식품안전 인식 및 식생활에 대한 인식

❖ 후기노인이 전기노인보다 본인의 식생활이 행복에 중요한 정도를 높게 인식함(표 4-48).

〈표 4-48〉 서울시 후기노인과 전기노인의 식품안전 인식 및 식생활에 대한 인식

평균 (표준오차)

구분	후기노인 (n=115)	전기노인 (n=618)	p ¹⁾
식품안전인식도 ²⁾	3.52 (0.13)	3.59 (0.11)	0.458
식생활만족도 ³⁾	3.61 (0.13)	3.48 (0.09)	0.288
식생활중요도 ⁴⁾	4.02 (0.13)	3.75 (0.11)	0.028

복합표본분석

¹⁾공분산분석(성별, 학력, 가구형태,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 보정)

²⁾식품안전인식도(5점 만점): 서울시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식품(식재료, 음식점 음식, 포장 및 배달음식 등 포함)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를 평가한 지표로 다섯 가지 항목의 5점 리커트 척도(매우 안전하지 않다=1, 매우 안전하다=5) 점수로 산출함.

³⁾식생활만족도(5점 만점): 현재 식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평가한 지표로 다섯 가지 항목의 5점 리커트 척도(매우 불만족한다=1, 매우 만족한다=5) 점수로 산출함.

⁴⁾식생활중요도(5점 만점): 본인의 식생활이 행복해지는 데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다섯 가지 항목의 5점 리커트 척도(매우 중요하지 않다=1, 매우 중요하다=5) 점수로 산출함.

아. 서울시 후기노인의 식품비 부담 정도

❖ 후기노인과 전기노인 모두 식품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비율이 90% 넘게 높고, 후기노인이 전기노인보다 부담을 느끼는 비율이 높음(표 4-49).

〈표 4-49〉 서울시 후기노인과 전기노인의 식품비 부담 정도

명 (%)

구분	후기노인 (n=115)	전기노인 (n=618)	p ¹⁾
부담되지 않음	3 (2.1)	59 (8.3)	0.016
부담됨	112 (97.9)	559 (91.7)	

복합표본분석

¹⁾라오-스콧 χ^2 검정

6. 요약 및 정책 제언

1) 요약

가. 서울시 먹거리 취약계층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 서울시민 중 먹거리 취약계층의 비율이 높은 연령층이 성인 중에서는 '청년'이며, 노인 중에서는 '후기노인'임.
- 식생활의 양과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도구인 '영양지수'를 이용하여 서울시민의 식생활을 평가한 결과, '하' 등급으로 판정된 비율이 높은 연령층은 청년(18~34세)과 후기노인(75세 이상)임.
- '성인 영양지수'를 산출한 결과, 청년(18~34세)에서 영양지수가 '하'인 비율(40.8%)이 중장년(35~64세, 20.5%)의 두 배임.
- '노인 영양지수'를 산출한 결과, 후기노인(75세 이상)에서 영양지수가 '하'인 비율(22.5%)이 전기노인(65~74세, 17.7%)보다 높은 경향이 있음.
- ❖ 서울시 청년 중 남성이거나 학생인 경우, 먹거리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높음.
- 먹거리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남성 청년이 여성 청년보다 약 3배, 학생 청년이 근로자 청년보다 약 3배임.
- ❖ 서울시 노인 중 남성이거나 저학력인 경우, 먹거리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높음.
- 먹거리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남성 노인이 여성 노인보다 약 6배, 학력이 중졸 이하인 노인이 고졸 이상인 노인보다 약 4배임.

나. 서울시 먹거리 취약계층 청년의 식생활 실태

- ❖ 서울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생산을 위해, 청년 중 먹거리 취약계층의 식생활 실태를 분석함. 또한 먹거리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맞춤형 식생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생산을 위해 남성 청년과 학생 청년의 식생활 실태를 분석함.
- ❖ 서울시 먹거리 취약계층 청년의 식생활 실태는 다음과 같음.
- 식생활의 균형 수준과 절제 수준이 모두 미흡했지만, 비취약계층 청년과 비교했을 때 균형 수준이 특히 미흡함. 아침 결식율이 매우 높았고, 과일, 전곡 및 잡곡류, 생선 등 건강을 위해 자주 먹으면 좋은 식품에 대한 섭취 빈도가 비취약계층 청년보다 낮음.
- 외식의 빈도가 높았는데, 특히 음식점 음식과 배달 음식을 비취약계층 청년보다 자주 이용함.
- 식생활역량, 식품환경만족도, 식생활만족도 및 식생활중요도가 비취약계층 청년보다 모두 낮음.
- 그러나 식품비에 대한 부담을 비취약계층 청년보다 크게 느끼지는 않음.

- ❖ 서울시 남성 청년의 식생활 실태는 다음과 같음.
 - 식생활의 절제 수준은 남성과 여성 청년 모두에서 미흡했지만, 식생활의 균형 수준은 남성 청년이 여성 청년보다 미흡함. 특히 남성 청년은 여성 청년과 비교하여 과일, 콩이나 두부, 전곡 및 잡곡류, 견과류의 섭취 빈도가 낮음.
 - 남성 청년은 여성 청년보다 음주 빈도가 높고, 건강에 좋은 식생활을 위해 노력하거나 영양표시를 확인하는 수준은 낮음.
- ❖ 서울시 학생 청년의 식생활 실태는 다음과 같음.
 - 학생 청년의 경우, 근로자 청년과 비교하여 식생활의 균형 수준과 절제 수준, 그리고 건강하고 안전한 식행동의 실천 수준이 모두 낮음. 특히 학생 청년은 근로자 청년보다 아침 결식율이 높았으며, 채소 반찬 가짓수가 적었고, 과식이나 폭식의 빈도가 높고, 기름진 빵이나 과자의 섭취 빈도가 높음.
 - 학생 청년의 음주 빈도는 근로자 청년보다 높지 않았으나, 건강에 좋은 식생활을 위해 노력하거나 영양표시를 확인하는 수준은 낮음.
 - 학생 청년의 식생활역량은 근로자 청년보다 낮았는데, 특히 가치있는 식생활역량이 낮음.

다. 서울시 먹거리 취약계층 노인의 식생활 실태

- ❖ 서울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생산을 위해, 노인 중 먹거리 취약계층의 식생활 실태를 분석함. 또한 먹거리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맞춤형 식생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생산을 위해 남성 노인의 식생활 실태를 분석함. 저학력 노인이 먹거리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정책 대상 선별 또는 모집에 학력을 이용하기는 어렵기에 본 보고서에서는 저학력 노인의 식생활 실태를 분석하지 않음. 대신 앞서 먹거리 취약계층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향후 식생활 정책 대상으로서의 중요성이 높아질 후기노인의 식생활 실태를 분석함.
- ❖ 서울시 먹거리 취약계층 노인의 식생활 실태는 다음과 같음.
 - 먹거리 취약계층 노인은 식생활의 균형 수준과 절제 수준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식행동 실천 수준이 미흡함.
 - 음식점 음식, 배달 음식, 편의점 음식의 이용 빈도가 모든 노인에서 낮았는데, 먹거리 취약계층 노인은 간편조리세트의 이용 빈도가 비취약계층 노인보다 낮음.
 - 먹거리 취약계층 노인의 경우, 식생활역량, 식품디지털역량, 식생활만족도 및 식생활중요도가 비취약계층 노인보다 모두 낮음.
 - 먹거리 취약계층 노인과 비취약계층 노인은 대부분이 식품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
- ❖ 서울시 남성 노인의 식생활 실태는 다음과 같음.
 - 식생활의 절제 수준에서는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 간의 차이가 없었지만, 식생활의 균형 수준에서는 남성 노인이 여성 노인보다 낮은 수준으로 분석됨. 특히 남성 노인에서 우유

- 및 유제품과 전곡 및 잡곡류의 섭취 빈도가 여성 노인보다 낮음. 또한 남성 노인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행동의 실천 수준이 여성 노인보다 낮음.
- 남성 노인이 여성 노인보다 음식점음식, 배달음식, 간편조리세트를 이용하여 식사를 해결하는 빈도가 높음.
 - 남성 노인의 식품환경만족도가 여성 노인보다 낮았는데, 특히 물리적 접근성과 가격 적정성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
 - 남성 노인의 식생활역량은 여성 노인보다 낮음.
- ❖ 서울시 후기노인의 식생활 실태는 다음과 같음.
- 식생활의 균형 수준과 절제 수준의 경우, 후기노인과 전기노인에서 차이가 없었는데, 건강하고 안전한 식행동의 실천 수준의 경우, 후기노인에서는 ‘하’ 등급이 비율이 전기노인보다 높음.
 - 후기노인은 전기노인보다 음식점음식이나 배달음식과 같은 외식을 덜 이용하였고, 간편조리세트의 이용 빈도도 낮음.
 - 노인의 식품디지털역량은 전반적으로 낮지만, 후기노인의 경우 이러한 역량이 전기노인보다 낮음. 특히 키오스크나 앱을 사용하는 역량이 낮음.
 - 후기노인은 전기노인보다 식생활이 본인의 행복에 중요하다고 인식함.
 - 노인은 전반적으로 식품비에 부담을 느끼는 비율이 높았는데, 특히 후기노인에서 전기노인에서보다 이러한 비율이 더 높음.

2) 정책 제언

가. 서울시 먹거리 취약계층을 위한 식생활 정책 방향

- ❖ **정책 대상:** 서울시민 중 식생활 정책의 주 대상으로 먹거리 취약계층 청년(전체 청년 2,147천 명 중 40.8%인 약 876천 명)과 먹거리 취약계층 노인(전체 노인 약 1,531천 명 중 18.9%인 약 290천 명으로 추정)을 제안함.
- ❖ **정책 목표:** 현재 40.6%인 서울시 청년 중 먹거리 취약계층의 비율을 25.0% 수준까지 줄이고, 현재 18.9%인 서울시 노인 중 먹거리 취약계층이 비율이 더 높아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제안함.
 - 이는 본 연구에서 식생활 취약계층을 선별한 기준인 영양지수 ‘하’ 등급의 판별 기준이 각 지수의 적용 대상 전체 국민(성인 영양지수는 19세 이상 64세 미만 국민, 노인 영양지수는 65세 이상 국민)의 25% 백분위 점수에 해당하는 영양지수 점수로 설정된 것을 토대로 설정한 목표임.
- ❖ 식생활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 대상 집단을 보다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정책**을 펼쳐야 함. 서울시는 먹거리 취약계층을 위한 식생활 정책을 청년 중에는 남성과 학생, 노인 중에는 남성과 후기노인을 주 대상으로 펼

침으로써 정책 도달률의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청년 대상 보편적 식생활 정책과 더불어 남성 청년 대상 정책과 학생 청년 대상 정책을 각각 제안함. 또한 노인 대상 보편적 식생활 정책과 더불어 남성 노인 대상 정책과 후기노인 대상 정책을 각각 제안함.

- ❖ 식생활 정책은 크게 **‘식생활환경 정책’**과 **‘식생활교육 정책’**으로 구분됨. 정책 대상의 특성과 정책 실행 여건에 따라 이러한 두가지 정책을 적절히 혼합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함. 본 보고서에서는 정책의 실행 여건은 고려할 수 없으므로 정책 대상의 특성에 기반한 다양한 환경 정책과 교육 정책을 제안함. 실제 정책 현장에서는 제안된 정책 중 실행 여건에 부합한 정책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것을 제안함.

나. 서울시 먹거리 취약계층을 위한 식생활 정책 내용

- ❖ 서울시 **먹거리 취약계층 청년**의 식생활 개선을 위한 식생활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 **청년 대상 식생활 정책:** 서울시 청년들은 전체적으로 식생활의 절제 수준이 낮으므로 이를 위한 정책이 보편적으로 필요하겠지만, 먹거리 취약계층 청년과 비취약계층 청년 간 차이가 큰 식생활 영역은 균형 영역이므로 식생활의 균형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먹거리 취약계층 청년의 식생활 개선에는 더욱 효과적일 것임.
 - ✓ [환경 정책] 아침 결식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으로 무료 또는 저렴한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을 제안함. 이미 시행하고 있는 천원의 아침식사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안일 것임.
 - ✓ [환경 정책] 채소, 과일, 전곡 및 잡곡류, 생선 섭취를 증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 청년 맞춤형 농산물 지원을 위한 바우처를 지급하거나 할인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비취약계층 청년보다 먹거리 취약계층 청년이 외식 이용 빈도가 높으므로 이러한 외식 환경에서 채소, 과일, 잡곡류, 생선 섭취가 용이할 수 있도록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보다 효과적일 것임. 즉 급식이나 외식업체에서 균형잡힌 식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인센티브와 함께 제공하는 방안이 가능함. 청년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간편한 과일, 견과류 등의 1회 섭취 분량 포장 제품 등을 만들고, 청년들이 자주 찾는 헬스센터와 같은 장소 등과 협업하여 캠페인을 진행하며 포인트 적립, 할인 등의 촉진 프로그램과 함께 판매하는 방안도 제안함.
 - ✓ [환경 정책] 먹거리 취약계층 청년의 식품환경만족도 중 편의성과 물리적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가장 낮았으므로 이러한 측면의 환경 개선 정책이 필요함. 예를 들어 지하철 역사 내 또는 근처에 소포장 과일, 채소의 판매시설 확충 사업 등을 통해 건강을 위해 더 먹어야 하는 다양한 식품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유효한 정책일 수 있음. 이때 무인 스토어나 자판기를 이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대안임.
 - ✓ [교육 정책] 먹거리 취약계층 청년이 비취약계층 청년과 비교하여 식품비 부담을 더 느

끼지는 않으므로 경제적 지원보다는 식생활역량이나 식생활중요도를 높이기 위한 식생활교육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것을 제안함.

- **남성 청년 대상 맞춤형 식생활 정책:** 서울시 남성 청년은 건강하고 안전한 식행동 실천 수준이 여성 청년보다 낮은 점을 중점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

✓ [환경 정책] 저알코올 또는 논알코올 음료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담배 포장에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음주 관련 건강 위험에 대한 라벨 표시를 강화하는 것도 좋은 정책 대안이 될 수 있음. 청년들은 앱 사용에 대한 거부감이 없음을 고려하여 음주 모니터링 기능을 가진 공공 앱 등을 개발하여 배포하는 것도 제안함.

✓ [교육 정책] 남성 청년의 식생활 특성을 고려한 남성 청년 대상 맞춤형 식생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함. 음주 빈도가 높으므로 절주 또는 금주에 대한 교육이 보다 체계적으로 계획, 진행되는 것이 필요함.

✓ [교육 정책] 남성 청년은 여성 청년보다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노력 수준이 낮고 영양표시를 확인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므로 건강 식생활의 중요성 교육과 같이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과 함께 영양 표시 활용법과 같은 지식과 기술을 전하는 교육도 필요함.

- **학생 청년 대상 맞춤형 식생활 정책:** 서울시 학생 청년의 경우, 캠퍼스라는 공간에 머무르는 시간을 이용하여 식생활 정책을 맞춤형으로 실행하는 방안을 제안함.

✓ [환경 정책]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대학 캠퍼스의 식생활 환경이 보다 건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함. 이러한 정책의 첫 단계로 서울시내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퍼스 식환경에 대한 다각적 측면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함. 대학급식뿐 아니라 캠퍼스 내 편의점 식품이나 외식업소 음식 및 카페 음료 등의 영양학적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서울시 차원에서 건강한 외식 인증제를 도입하거나, 배달앱에서 음식의 영양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또는 권장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환경 정책] 급식, 외식의 대안으로 스스로 건강한 식사를 요리하여 먹을 수 있는 공유주방을 캠퍼스에 설치, 운영하는 것도 제안함. 이 때 간단하고 저렴한 식재료로 건강한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레시피를 제공하거나 관련 경진대회를 통해 관심을 높일 수 있음. 관심 있는 식품회사로부터 건강한 식재료 또는 편리한 가공식품을 제공 받아 공유주방에 비치함으로써 학생들이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방안도 있음. 건강한 도시락이나 급식을 구독형으로 집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교육 정책] 학생 청년의 식생활의 균형 수준과 절제 수준, 그리고 건강하고 안전한 식행동의 실천 수준 모두에서 미흡했음을 감안할 때 단편적 교육 프로그램보다는 정규 학기 수준의 식생활 교육 또는 식문화 이해 교과를 대학에 개설,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을 제안함. 이러한 정규 교과목 또는 비정규 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 건강학 식사를 준비하는 조리 교육을 시행하는 것도 강력히 제안함. 건강한 외식 선택법에 대한 홍보 및 교육도 필요할 것임.

✓ [교육 정책] 현재 대학에서는 영양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대학에

영양사를 고용하여 영양상담을 정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안도 상대적으로 비용 대비 효과적인 정책 방안일 수 있음. 이 때 모바일 앱을 통한 영양평가 및 식단 추천 등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면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임. 대상이 학생인 점을 감안할 때 건강한 식습관 챌린지 등을 통한 교육 및 실행 효과 증진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서울시 **먹거리 취약계층 노인**의 식생활 개선을 위한 식생활 정책은 다음과 같이 제안함.

- **노인 대상 식생활 정책:** 서울시 먹거리 취약계층 노인은 비취약계층 노인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식행동 실천 수준이 미흡하였고 식생활역량이 낮았으므로 다양한 식생활교육 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교육 정책] 먹거리 취약계층 노인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행동의 실천 수준이 미흡한 점을 고려하여 관련한 식생활교육 정책이 필요함. 소비기한, 영양표시 확인 및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등의 안전한 식행동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이러한 행동을 실행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노인 맞춤형으로 전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보건소와 연계하여 예방 접종을 위하여 노인이 방문했을 때 건강하고 안전한 식행동의 실천 습관을 점검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 ✓ [교육 정책] 노인은 전반적으로 외식 이용 빈도가 낮지만 먹거리 취약계층이 아닌 노인이 취약계층 노인보다 간편조리세트의 이용 빈도가 높은 점을 고려할 때 간편한 조리 간편의식품을 이용하여 집에서 식사할 수 있는 식품 지원과 연계한 조리 방법 교육 등도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먹거리 취약계층 노인이 비취약계층 노인보다 식품비에 대한 부담을 더 느끼지는 않았고 대신 식생활역량, 식품디지털역량 등의 역량이 낮은 점을 볼 때 노인을 위한 식생활 정책이 단순한 물품 지원 등에 그치지 않고 관련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과 함께 실현되어야 함. 또한 가칭 ‘서울 노인 맞춤형 식생활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여 개별 노인이 식생활을 평가하고 맞춤형 개선안을 다양한 지원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것도 필요한 정책임.
- **남성 노인 대상 맞춤형 식생활 정책:** 서울시 남성 노인이 여성 노인보다 식생활의 균형 수준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제안함.
- ✓ [환경 정책] 유제품과 잡곡류의 섭취 빈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현재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우유급식지원과 같은 프로그램을 노인 대상, 특히 남성 노인 대상 건강 간식 지원프로그램으로 시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함.
- ✓ [환경 정책] 여성 노인에게도 필요하겠지만 커뮤니티 급식을 활성화하고 식생활관리(식품 구매, 조리 등) 지원서비스 사업을 도입하는 것은 특히 남성 노인의 식생활 개선에 유의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임.
- ✓ [환경 정책] 남성 노인은 여성 노인에 비해 외식 빈도 및 간편식 이용 빈도가 높으므로 음식점 및 배달 음식과 간편식 등의 건강성과 편리성을 높여 노인 친화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산업 현장과 함께 필요함. 남성 노인도 간단히 요리할 수 있는 저렴한 간편조리세트를 개발,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함.

- ✓ [교육 정책] 남성 노인을 대상으로 조리 및 관련한 위생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함. 또한 이러한 것을 포함한 전체적인 식생활역량을 높이기 위한 남성 노인 맞춤형 식생활 관리 교육이 필요함.
- **후기노인 대상 맞춤형 식생활 정책:** 서울시 후기노인은 전기노인보다 행복에 있어서의 식생활의 중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으므로 후기노인 대상 식생활 정책은 비용 대비 효과가 더욱 클 가능성이 높음.
- ✓ [환경 정책] 후기노인은 식품디지털역량이 낮은 특성이 있으나 이러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보다는 식품주문을 위한 키오스크나 앱과 같은 식품디지털 환경이 보다 노인 친화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Age-tech나 Food-tech를 산업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보다 효과적일 것임.
- ✓ [환경 정책] 전통적인 마트나 시장이 노인친화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함. 이때 이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식품을 저렴하게 배달해주는 가칭 '서울 노인 건강 배달 서비스'운영과 같은 정책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함. 이러한 배달 주문을 대리해 주는 서비스 또는 전화 주문서비스도 고려할 수 있음. 후기노인은 전기노인보다 외식을 이용하는 비율이 낮았는데 이는 외식 환경이 노인 친화적이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외식 환경의 노인 친화도 제고를 위한 정책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함. 또한 이러한 후기노인들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공공급식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에 더욱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함.
- ✓ [환경 정책] 후기노인이 전기노인보다 식품비의 부담을 크게 느낀다는 점을 고려하면 후기노인에 대한 식생활 정책은 경제적 지원과 함께 고려되어야 함. 서울 노인 영양 바우처, 후기노인 영양 꾸러미와 같은 지원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음.



부록

조사표

2024 서울시민 먹거리조사 심층 분석 보고서





통계법 제32조(성실응답의무),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일련번호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 작성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니 성실하고 정확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서울시민 먹거리조사(가구주)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귀댁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서울시는 매년 서울시민 먹거리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조사에서는 서울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시민의 먹거리 생활 실태와 욕구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조사 결과는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로 나아갈 수 있는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조사는 서울특별시 먹거리 5개년 기본계획 및 먹거리 기본조례 제14조(통계·정보) 및 제15조(실태조사)에 의거하여 진행됩니다.
 본 설문조사는 만 18세 이상(2006년 8월 31일 이전 출생자) 가구원 전원이 조사 대상입니다.
 만 18세 이상 모든 가구원은 빠짐없이 설문에 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민 중심의 서울시 정책 수립을 위해 바쁘시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관처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수행처 (주)케이스탯리서치 (02) 6188 - 6035

조사 대상자용 설명문

본 연구는 서울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시민의 먹거리 실태와 욕구를 알아보고자 진행되는 연구입니다.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설명서와 동의서를 신중하게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 연구가 왜 수행되며, 무엇을 수행하는지 귀하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주)케이스탯리서치 연구원(02-6188-6035)이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입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귀하의 동의는 귀하가 본 연구에 대해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을 의미하며, 이 문서에 대한 귀하의 동의는 귀하께서 자신이 본 연구에 참가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서울시 거주 가구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먹거리에 대한 인식, 행태 등에 대해 알아보는 조사로, 서울시민의 먹거리 전반에 대한 분석과 연도별 추이 분석을 통해 정책 방향 설정 및 평가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 2. 연구 참여 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거주 2,000가구의 만18세 이상 가구주 및 가구원 전체(약 4,000명)를 대상으로 합니다.
 연구 대상자는 동일한 통/반의 동일한 주택유형을 갖는 가구로 구성된 집락을 확률비례계통추출방법으로 추출한 뒤 세대원 수를 기준으로 정렬된 각 집락 내에서 계통추출방식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3. 연구 방법**
 만일 귀하가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 귀하는 본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를 읽고 연구 참여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우에 동의서를 드립니다. 동의 후 설문 문항이 시작되며, 귀하의 평소 생각 및 행동을 기반으로 자유롭게 답해주시면 됩니다.
 ○ 귀하는 가구방문면접조사를 통해 설문에 참여하게 됩니다. 대면면접을 원하지 않을 경우 유치조사를 통해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유치조사를 원하시는 경우 조사표를 모두 작성하신 후 조사원이 수거해 갈 것입니다.
 ○ 설문은 총 7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귀하의 식품섭취, 식생활, 식품소비, 식품안전, 식품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에 대해 물어봅니다. 설문조사는 약 40분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 조사 완료 후 무작위로 30%를 추출하여 조사 수행 여부 등을 파악하는 전화검증을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자용 설명문

4. 연구 참여 기간

귀하는 본 연구를 위해 1회 설문에 참여하도록 요청받을 것이며 소요 시간은 40~50분으로 예상됩니다.

5. 연구대상자에게 예상되는 위험(불편함) 및 부작용

본 연구는 귀하에게 따르는 신체적인 위험은 발생하지 않지만, 설문 진행에 있어서 문항이나 장소, 조사원의 태도 등 초래하는 혹시 모를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겪으실 경우 담당 연구원에게 즉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구대상자에게 예상되는 이득

귀하가 이 연구에 제공하는 정보는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로 나아갈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7. 연구 참여에 따른 보상 또는 비용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시면 7,000원 상당의 답례품(보냉백 및 세면도구 세트)이 조사 완료 즉시 제공되며, 귀하가 연구 참여 시 추가로 지불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8. 개인정보와 비밀보장

본 연구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연락처,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업, 가구 소득, 혼인상태입니다. 수집된 연락처와 성명은 조사 수행 여부 및 조사 응답감 확인을 위한 것으로 검증 후 즉시 폐기되며, 조사 데이터와는 분리되어 보관됩니다. 수집된 조사표 및 데이터는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연구담당자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조사표는 시간장치가 부착된 조사표 보관장소에 보관하며 출입을 통제합니다. 조사 데이터는 주요 정보를 암호화 하여 보관하며 서버실은 출입을 통제합니다. 수집된 조사표는 조사 종료 후 1년간 보관하며 이후 파쇄합니다.

본 연구(조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자료 수집 및 연구를 위임받아 진행하기 때문에 조사 완료 후 수집된 자료는 개인식별정보(성명, 세부주소 및 연락처)를 제거한 후 서울특별시로 모두 이관됩니다. 본 통계조사는 통계청 승인을 받은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 201017호)로 통계표, 부호화 지침서, 마이크로데이터 등의 자료를 공개하며, 해당 자료는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 및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에서 누구나 접근 가능합니다. 제공 범위는 개인식별정보(성명, 세부주소 및 연락처)를 제외한 조사 문항 전체입니다.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공공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대상자의 비밀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관련 자료를 직접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의사로 간주될 것입니다.

9. 자발적 연구 참여와 중지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으며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또한, 귀하는 연구에 참여하신 언제든지 도중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이나 연구책임자에게 즉시 말씀해주시고, 참여 중지 시 귀하의 자료는 더 이상 연구에 사용되지 않고 파쇄하여 폐기될 것입니다.

10. 연구 문의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

이름: 전화번호: 02-6188-6035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대상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보건복지부 지정 공공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보건복지부 지정 공공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위원회) 전화번호: 02-737-8990

연구 참여 및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1. 나는 본 연구의 설명문을 읽었으며 담당 조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5.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6. 내가 응답하는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해 철저히 비밀 보장이 되고, 성명 및 연락처는 자료에 대한 검증 및 확인을 위해 파악하는 것으로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되는 일은 절대 없음에 대해 안내 받았으며 이에 동의 합니다.

본인은 위의 본 연구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이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연구대상자	성명:	서명:
동의취득자	성명:	서명:

조사표 기입요령

- ▶ 각 항목별로 응답 항목에 ○표 하거나, 번호 또는 숫자를 기입해 주십시오.
- ▶ 응답 항목 중 기타에 해당되는 경우 괄호()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반드시 기입해 주십시오.
- ▶ 화살표(→)로 표시된 항목은 지정된 항목으로 가서 기입하고 주된 응답은 1개만 기입해 주십시오.
- ▶ 본 조사 대상은 만 18세 이상 가구원으로 양력 기준 2006년 8월 31일 이전 출생자입니다.

조사원 성명		조사원 연락처	
조사원 기재란	행정구역 코드 □□□-□□□	전체 가구원 수 □□	만 18세 이상 가구원 수 □□
		조사표본 □ 1) 원표본 □ 2) 대체표본	
주 소	서울특별시 구		
연락처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는 조사 검증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검증 이후 즉시 파기 됩니다.		
주택 형태	① 단독주택 (다가구 포함) ② 아파트 ③ 다세대 주택 ④ 연립주택/기타 (오피스텔 상가내 거주 등)		
주거 점유 형태	① 자기집 ② 전세 (월세 없음) ③ 보증금 있는 월세 ④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⑤ 무상(관사, 사택 등)		

전체 가구원 현황

- ▶ 모든 가구원의 정보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 만 18세 미만 가구원은 면접여부에 ⑤ 조사 대상 아님(만 18세 미만) 기입
- ▶ 만 18세 이상 가구원 : 2006년 8월 31일 이전 출생자

가구원 코드	01	02	03	04	05	06	07
가구원 성명							
가구주와의 관계 [보기 1]							
성별	① 남 ② 여	① 남 ② 여	① 남 ② 여	① 남 ② 여	① 남 ② 여	① 남 ② 여	① 남 ② 여
출생년도/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혼인상태 [보기 2]							
면접여부 [보기 3]							

[보기1] 가구주와의 관계	[보기2] 혼인상태	[보기3] 면접여부
① 가구주 ③ 미혼자녀 ⑤ 손자녀 및 그 배우자 ⑦ 조부모(배우자 쪽 포함) ⑨ 기타()	② 배우자 ④ 기혼자녀 및 그 배우자 ⑥ 부모(배우자 쪽 포함) ⑧ 형제, 자매(배우자 쪽 포함)	① 미혼(비혼) ② 배우자있음(동거 포함) ③ 사별 ④ 이혼(별거 포함) ⑤ 기타()
		① 조사완료 ② 단기 출장/부재 ③ 장기 출장/부재 ④ 타 지역거주 ⑤ 조사 대상 아님(만 18세 미만) ⑥ 기타()

A. 식품 섭취

다음은 귀하의 '식품 섭취'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최근 한 달' 동안의 식품 섭취를 생각하며 답해 주십시오.

A1 귀하는 1주일 동안 아침 식사를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 ① 거의 먹지 않는다 ② 1주일에 1~2번 ③ 1주일에 3~4번
④ 1주일에 5~6번 ⑤ 매일

A2 귀하가 최근 한 달 동안 다음 식품이나 음식을 먹은 빈도에 표시해 주십시오.
가정에서뿐 아니라 단체급식이나 외식으로 드신 것도 모두 포함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2주일에 1번 이하	1주일에 1~3번	1주일에 4~6번	하루에 1번	하루에 2번 이상
1) 과일	①	②	③	④	⑤
2) 생채소류(쌈채소, 오이, 당근, 샐러드류 포함)	①	②	③	④	⑤
3) 채소 반찬류 (해조류, 버섯류를 포함한 나물류, 김구이 등. 김치와 장아찌류는 제외)	①	②	③	④	⑤
4) 김치 및 장아찌류	①	②	③	④	⑤
5) 우유 또는 유제품(치즈, 요구르트 등)	①	②	③	④	⑤
6) 콩이나 두부(두유 포함)	①	②	③	④	⑤
7) 맵고 짠 국물 음식(라면, 찌개류, 탕류, 국물 떡볶이 등)	①	②	③	④	⑤
항목	거의 먹지 않았다	1주일에 1~3번	1주일에 4~6번	하루에 1번	하루에 2번 이상
8) 전곡이나 잡곡류(현미밥, 잡곡밥, 통밀빵 등)	①	②	③	④	⑤
항목	거의 먹지 않았다	2주일에 1번	1주일에 1~3번	1주일에 4~6번	하루에 1번 이상
9) 쇠고기, 돼지고기 같은 붉은색 고기	①	②	③	④	⑤
10) 햄, 소시지, 베이컨 등의 가공육	①	②	③	④	⑤
11) 달걀(메추리알 등 포함)	①	②	③	④	⑤
[65세 미만만 응답] 12) 생선류	①	②	③	④	⑤
[65세 이상만 응답] 12) 생선이나 조개류(오징어, 굴, 새우 등 포함)	①	②	③	④	⑤
13) 견과류(호두, 잣, 아몬드 등)	①	②	③	④	⑤
14) 기름진 빵(과배기, 생크림빵 등)이나 스낵 과자류(감자칩, 고구마칩 등)	①	②	③	④	⑤
15) 피자, 햄버거, 프라이드 치킨 등의 패스트푸드	①	②	③	④	⑤
항목	거의 먹지 않았다	1주일에 1~3번	1주일에 4~6번	하루에 1~2번	하루에 3번 이상
16) 믹스커피, 가당음료, 강정, 사탕 등 설탕이 많이 들어 있는 간식	①	②	③	④	⑤
항목	거의 마시지 않았다	하루에 1~2잔	하루에 3~4잔	하루에 5~6잔	하루에 7~8잔 이상
17) 물	①	②	③	④	⑤

A3 귀하는 **최근 한 달 동안** 한 번 식사할 때 **김치를 제외한 채소류**를 몇 가지나 드셨습니까?

- ① 거의 먹지 않았다 ② 1가지 ③ 2가지 ④ 3가지 ⑤ 4가지 이상

A4 귀하는 **남자의 경우 7잔(또는 맥주 5캔 정도), 여자의 경우 5잔(또는 맥주 3캔 정도) 이상의 술**을 얼마나 자주 드십니까?

- ①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았다 ② 한 달에 1번 미만 ③ 한 달에 1번 정도
④ 한 달에 2~4번 ⑤ 1주일에 2~3번 정도 ⑥ 1주일에 4번 이상

A5 귀하는 **최근 한 달 동안 과식이나 폭식**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 ① 거의 하지 않았다 ② 한 달에 1번 ③ 2주일에 1번
④ 1주일에 1번 ⑤ 1주일에 3~4번 ⑥ 하루에 1번 이상

A6 귀하는 **최근 한 달 동안** 다음의 음식을 얼마나 자주 드셨습니까?

항목	거의 먹지 않았다	한 달에 1번 이하	한 달에 2~3번	1주일에 1~3번	1주일에 4~6번	하루에 1번 이상
1) 음식점 음식(방문포장 포함)	①	②	③	④	⑤	⑥
2) 배달음식	①	②	③	④	⑤	⑥
3) 편의점 음식(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등 즉석섭취 식품)	①	②	③	④	⑤	⑥
4) 간편조리세트(밀키트: 집에서 직접 조리할 수 있는 식품 패키지)로 조리한 음식	①	②	③	④	⑤	⑥

A7 귀하는 **최근 한 달 동안 가당 음료***를 얼마나 자주 드셨습니까?

- ※ 가당 음료 예시
- 탄산음료, 과실청음료(유자, 매실, 오미자 등), 과즙음료(에이드 등)
- 커피음료(설탕시럽 첨가), 커피믹스, 레쓰비, 코코아 등
- 이온음료(게토레이), 차(아이스티, 밀크티)
- 전통음료(식혜, 수정과, 미숫가루 등)
- 대체당이 첨가된 제로(ZERO) 음료는 제외

- ① 거의 먹지 않았다 ② 한 달에 1~3번 정도 ③ 1주일에 1~2번 정도
④ 1주일에 3~6번 정도 ⑤ 매일 1회 이상

A8 귀하는 **최근 한 달 동안 대체당이 첨가된 제로(ZERO) 음료***를 얼마나 자주 드셨습니까?

- ※ 대체당이 첨가된 제로음료 : 천연감미료, 합성감미료가 포함된 음료로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 제로 핫식스 등

- ① 거의 먹지 않았다
② 한 달에 1~3번 정도
③ 1주일에 1~2번 정도
④ 1주일에 3~6번 정도
⑤ 매일 1회 이상

문 A9로

문 A8-1로

[문A8의 ④, ⑤ 응답자]

A8-1 귀하가 대체당이 첨가된 제로(ZERO)음료를 자주 섭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② 체중조절을 위해서 ③ 맛이 좋아서
④ 주변의 권유나 추천으로 ⑤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 ⑥ 기타()

A9 귀하는 최근 한 달 동안 대체당이 첨가된 식품(제로 과자, 제로 케이크, 제로 아이스크림 등)을 얼마나 자주 드셨습니까? (제로 음료 제외)

- ① 거의 먹지 않았다 } **문 A10으로**
② 한 달에 1~3번 정도
③ 1주일에 1~2번 정도
④ 1주일에 3~6번 정도 }
⑤ 매일 1회 이상 } **문 A9-1로**

[문A9의 ④, ⑤ 응답자]

A9-1 귀하가 대체당이 첨가된 식품을 자주 섭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② 체중조절을 위해서 ③ 맛이 좋아서
④ 주변의 권유나 추천으로 ⑤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 ⑥ 기타()

A10 귀하는 최근 한 달 동안 다음의 식품을 얼마나 자주 드셨습니까?

항목	거의 먹지 않았다	한 달에 1~3번	1주일에 1~2번	1주일에 3~6번	하루에 1번 이상
1) 커피(디카페인 커피 제외)	①	②	③	④	⑤
2) 커피우유	①	②	③	④	⑤
3) 콜라	①	②	③	④	⑤
4) 에너지드링크	①	②	③	④	⑤
5) 녹차·홍차	①	②	③	④	⑤

B. 식생활

다음은 귀하의 '식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에 따라 귀하의 '최근 1년' 또는 '현재'의 식생활을 생각하며 답해 주십시오.

B1 귀하는 최근 1년 동안 돈이 부족하거나 기타 자원이 부족해서(식재료를 살 장소가 가까이 없거나 식재료를 사러 갈 수 없거나 등)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항목	네	아니오
1) 먹을 음식이 부족할 것 같아 걱정한 적이 있었나요?	①	②
2)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없었던 적이 있었나요?	①	②
3) 다양하지 않은 종류의 음식만을 먹은 적이 있었나요?	①	②
4) 끼니를 걸려야만 했던 적이 있었나요?	①	②
5) 필요한 양만큼 먹지 못한 적이 있었나요?	①	②
6) 집에 먹을 것이 떨어진 적이 있었나요?	①	②
7) 배가 고프데도 먹지 못한 적이 있었나요?	①	②
8) 하루 종일 굶었던 적이 있었나요?	①	②

B2 다음 중 최근 1년 동안 귀하의 식생활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어느 것입니까?

- ①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식품(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 ② 충분한 양의 식품(음식)을 먹을 수 있었으나, 항상 다양한 종류의 식품(음식)을 먹지 못했다
 - ③ 가끔 먹을 것을 충분하게 못 먹었다
 - ④ 자주 먹을 것을 충분하게 못 먹었다
- 문 B3으로
문 B2-1로

[문B2의 ②, ③, ④ 응답자만]

B2-1 귀하는 충분한 양을 먹지 못했거나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먹지 못했다고 응답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식품을 구매할 돈이 충분하지 않아서
- ② 주변에 원하는 종류의 식품이 없어서
- ③ 식품을 구매하거나 조리할 시간이 충분히 없어서
- ④ 식료품점까지 가지 못할 만큼 거동이 불편해서
- ⑤ 식료품점까지 거리가 멀거나 교통편이 불편해서
- ⑥ 질환 등으로 인하여 식사조절(식단관리)이 필요해서
- ⑦ 다이어트 중이라서
- ⑧ 건강상의 이유로 조리를 할 수 없어서
- ⑨ 조리를 할 줄 몰라서
- ⑩ 기타()

[문B2의 ②, ③, ④ 응답자만]

B2-2 앞에서 선택한 것 중 가장 큰 이유를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식품을 구매할 돈이 충분하지 않아서
- ② 주변에 원하는 종류의 식품이 없어서
- ③ 식품을 구매하거나 조리할 시간이 충분히 없어서
- ④ 식료품점까지 가지 못할 만큼 거동이 불편해서
- ⑤ 식료품점까지 거리가 멀거나 교통편이 불편해서
- ⑥ 질환 등으로 인하여 식사조절(식단관리)이 필요해서
- ⑦ 다이어트 중이라서
- ⑧ 건강상의 이유로 조리를 할 수 없어서
- ⑨ 조리를 할 줄 몰라서
- ⑩ 기타()

B3 귀하의 현재 식사 유형(채식, 육식 등)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 ① 모든 동물성 식품(육류, 생선류, 유제품, 난류)을 먹지 않음(비건)
- ② 유제품과 난류를 제외한 동물성 식품을 먹지 않음(락토-오보)
- ③ 붉은 고기만 먹지 않음(유제품, 난류, 생선류, 닭고기는 먹음)(폴로-페스코)
- ④ 주로 식물성 식품을 먹지만 상황에 따라 가끔 동물성 식품을 먹음(플렉시테리언)
- ⑤ 식물성, 동물성 식품을 가리지 않고 모두 먹음
- ⑥ 되도록 동물성 식품을 먹음

문 B3-1로

문 B4로

B3-1 [문B3의 ①, ②, ③, ④ 응답자만]

귀하가 동물성 식품을 먹지 않거나 되도록 먹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건강 관리를 위해서(건강유지, 질병치료 등)
- ② 체중조절을 위해서
- ③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 ④ 동물복지 등 생명 가치의 존중을 위해서
- ⑤ 기타()

B4 귀하는 평소에 건강에 좋은 식생활을 하려고 노력하십니까?

- ①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
- ② 노력하지 않는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노력하는 편이다
- ⑤ 매우 노력한다

B5 귀하의 현재 건강 상태는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 ① 매우 나쁘다
- ② 나쁘다
- ③ 보통이다
- ④ 좋다
- ⑤ 매우 좋다

B6 귀하는 평소에 우울함을 어느 정도로 느끼십니까?

- ① 항상 느낀다
- ② 느끼는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느끼지 않는 편이다
- ⑤ 전혀 느끼지 않는다

B7 귀하는 잠을 잘 주무시는 편입니까?

- ① 매우 못 잔다
- ② 못 자는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잘 자는 편이다
- ⑤ 매우 잘 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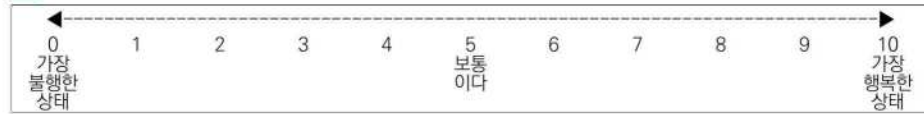
B8 귀하는 현재 본인의 식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한다
- ② 불만족한다
- ③ 보통이다
- ④ 만족한다
- ⑤ 매우 만족한다

B9 귀하가 행복해지는 데에 식생활은 얼마나 중요하십니까?

- ① 매우 중요하지 않다
- ② 중요하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중요하다
- ⑤ 매우 중요하다

B10 귀하의 삶은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B11 귀하께서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하는 1일 나트륨 섭취 권고량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① 1,000mg ② 2,000mg ③ 3,000mg ④ 잘 모른다

B12 귀하께서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하는 1일 첨가당(가공식품에 첨가되는 당류) 섭취 권고량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루 섭취 열량 2,000kcal 기준)?

- ① 20g ② 50g ③ 100g ④ 잘 모른다

B13 귀하는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으십니까?

- ① 전혀 씻지 않는다 ② 씻지 않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씻는 편이다 ⑤ 항상 씻는다

B14 [65세 미만 응답자만] 귀하는 외식 시 또는 가공식품을 구입할 때 영양표시를 확인하십니까?

- ①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 ② 확인하지 않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확인하는 편이다 ⑤ 항상 확인한다

B15 [65세 이상 응답자만] 귀하는 (가공)식품을 구입할 때 소비기한이나 영양표시를 확인하십니까?

- ①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 ② 확인하지 않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확인하는 편이다 ⑤ 항상 확인한다

B16 [65세 이상 응답자만] 귀하는 현재 치아나 틀니, 잇몸 등의 문제로 음식을 씹는 것이 어느 정도 불편하십니까?

- ① 매우 불편하다 ② 불편한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별로 불편하지 않다 ⑤ 전혀 불편하지 않다

B17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경우와 가장 가까운 것에 표시해 주십시오.

항목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구성하는 다양한 식품군에 대해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바로 사용하지 않는 식재료를 나누어 보관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식품마다의 적절한 보관 방법(냉동, 냉장, 실온 보관 등)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B18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경우와 가장 가까운 것에 표시해 주십시오.

항목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가공식품에 있는 식품정보(원재료명, 영양표시 등)를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간단한 조리법을 따라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한 끼 식사를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미디어 매체(뉴스, 신문, 유튜브 등 인터넷)에 나오는 식품안전과 관련한 정보(식중독, 방사능 오염, 수입식품 위생 등)를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식품 광고 내용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B19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경우와 가장 가까운 것에 표시해 주십시오.

항목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장보기 전에 사야 하는 물품 목록을 작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가공식품 구매 시 식품정보(원재료명, 영양표시 등)를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식품 구매 시 원산지를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조리하기 전에 손을 잘 씻는다	①	②	③	④	⑤
5) 식당이나 외식업소 방문 시 위생상태를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⑤
6) 평소 곡류, 어육류, 채소, 과일, 우유 등 다양한 식품군을 골고루 먹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B20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경우와 가장 가까운 것에 표시해 주십시오.

항목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요리를 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식사를 할 때는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음식에 집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음식을 먹을 때 시각적 아름다움, 향, 맛, 식감 등 다양한 감각을 음미하며 먹는다	①	②	③	④	⑤
4) 음식을 대할 때 음식이 식탁에 올라오기까지 과정을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	①	②	③	④	⑤
5) 음식을 가족, 지인, 이웃과 나누어 먹거나 같이 먹기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주변 사람들과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즐겨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다양한 문화권의 음식에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전통음식을 즐기는 것이 우리의 식생활과 문화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B21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경우와 가장 가까운 것에 표시해 주십시오.

항목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제철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환경에 좋은 이유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육류와 달걀 구매 시 동물복지*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공정무역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동물복지 인증 제품 : 식품으로서의 동물에 대한 배려를 바탕으로 인간이 동물에게 미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의 괴로움을 최소화하여 생산된 제품



3) 공정무역 제품 : 개발도상국 생산자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여 생산된 제품

B22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경우와 가장 가까운 것에 표시해 주십시오.

항목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생산자와 직거래하는 먹거리에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친환경 농산물(유기농, 무농약 등)을 선택하는 것은 생체 및 환경보존에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도시 농업(텃밭 가꾸기, 주말농장 등)에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육식을 줄이거나 채식을 하는 것은 기후변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5) 경제적 형편에 관계없이 누구나 양질의 음식을 충분히 먹을 수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농촌과 농민은 우리 사회의 먹거리 지속가능성*을 위해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6) 먹거리 지속가능성 : 미래에도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식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상태.
다음 세대도 우리와 같이 식품을 섭취할 수 있을 가능성

B23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경우와 가장 가까운 것에 표시해 주십시오.

항목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평소 음식을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평소 음식 포장재(테이크아웃 음료, 배달음식)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B24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경우와 가장 가까운 것에 표시해 주십시오.

항목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온라인 쇼핑물*에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음식점의 무인기기(키오스크)를 이용하여 음식을 주문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여 음식을 주문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 온라인 쇼핑물 :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구매할 수 있는 쇼핑물(전화주문은 제외)

C. 식품 구매

다음은 귀하의 '식품 구매'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현재 식품 구매 상황을 생각하며 답해 주십시오.

C1 귀하는 올해 서울시의 먹거리 물가수준이 **작년에 비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많이 내렸다 ② 조금 내렸다 ③ 그대로이다 ④ 조금 올랐다 ⑤ 많이 올랐다

C2 귀하는 올해 들어 식품비가 얼마나 부담되십니까?

- ①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 ② 부담이 되지 않는 편이다 → 문 C3으로
③ 부담이 되는 편이다 ④ 매우 부담이 된다 → 문 C2-1로

[문C2의 ③, ④ 응답자만]

C2-1 **작년과 비교해 올해** 귀하의 먹거리 소비에는 변화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저렴한 식품으로 대체하였다(쇠고기 대신 닭고기 구매, 국내산 대신 수입산 구매 등)
② 신선식품 대신 가공식품을 더 많이 구매하였다
③ 다양한 식품 구매를 자제하고 꼭 필요한 식품만 구매하였다
④ 전체적인 식품 구매량을 줄였다
⑤ 식품 구매처를 변경하였다
⑥ 외식(배달음식 포함)을 줄였다
⑦ 변화 없음

C3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경우와 가장 가까운 것에 표시해 주십시오.

항목	거의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반반이다	그런 편이다	거의 그렇다	구매 경험이 없다
1) 식품을 선택할 때 가격보다 맛을 중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식품을 구매할 때 할인이나 기획 상품을 우선 구매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장소별로 식품의 가격을 비교하여 더 저렴한 곳에서 구매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비슷한 품질이라면 가격이 저렴한 식품을 구매한다	①	②	③	④	⑤	
5) 건강에 좋은 식품을 구매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식품을 구매할 때 칼로리 및 영양성분을 고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7) 가공식품보다 되도록 신선식품을 구매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맛있다고 소문난 음식점을 찾는다	①	②	③	④	⑤	

C4 귀하는 최근 한 달 동안 식품(외식 및 배달음식은 제외)을 얼마나 자주 구매하십니까?

- ① 한 번도 없다 → 문 C5로
② 한 달에 1~2회
③ 한 달에 3~4회 } 문 C4-1로
④ 1주일에 2회 이상

[문C4의 ②, ③, ④ 응답자만]

C4-1 그 중 온라인(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구매를 말하며 전화주문은 제외)으로 구매한 것은 몇 번입니까?

- ① 한 번도 없다 ② 한 달에 1~2회 ③ 한 달에 3~4회 ④ 1주일에 2회 이상

C5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경우와 가장 가까운 것에 표시해 주십시오.

항목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구매 경험이 없다
1) 우리 동네에는 다양하고 건강한 식품(과일 및 채소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식료품점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⑧
2) 다양하고 건강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식료품점은 우리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동네 식료품점에서 파는 식품들은 내가 구매할 수 있는 적절한 가격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동네 식료품점의 서비스(소량 구매, 배달 여부, 영업시간 등)는 이용하기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동네 식료품점에서 파는 식품들은 신선하고 질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D. 식품 안전

다음은 서울시의 '식품 안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D1 귀하는 서울 시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식품(식재료, 음식점 음식, 포장 및 배달음식 등 포함)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안전하지 않다
② 안전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안전하다
⑤ 매우 안전하다

문 D1-1로

문 D2로

[문D1의 ①, ② 응답자만]

D1-1 귀하는 서울 시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업체의 영세성
② 업체의 식품 안전 인식 부족
③ 업체의 식품 안전관리 전문성 부족
④ 지자체의 식품 안전 지도 및 교육 불충분
⑤ 지자체의 식품 안전 점검 및 단속 불충분
⑥ 관련 법 등 식품 안전 제도의 미흡
⑦ 기타()

D2 귀하는 서울 시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아래의 식품들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매우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지 않다	보통이다	안전하다	매우 안전하다
1) 국내산 농산물(곡식, 채소, 과일 등)	①	②	③	④	⑤
2) 수입산 농산물(곡식, 채소, 과일 등)	①	②	③	④	⑤
3) 국내산 수산물(생선, 조개, 해조류 등)	①	②	③	④	⑤
4) 수입산 수산물(생선, 조개, 해조류 등)	①	②	③	④	⑤
5) 국내산 축산물(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우유 등)	①	②	③	④	⑤
6) 수입산 축산물(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우유 등)	①	②	③	④	⑤

D3

귀하는 다음의 식재료들을 주로 어디서 구매하십니까? 그리고 그 곳에서 구매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래 보기를 참고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D3-1. 구매 장소	D3-2. 구매 장소 선택 기준
1) 농산물(곡식, 채소, 과일 등)		
2) 수산물(생선, 조개, 해조류 등)		
3) 축산물(소·돼지·닭고기 등 식육_가공식품 제외)		
4) 가공식품		

[보기] D3-1. 구매 장소	[보기] D3-2. 구매 장소 선택 기준
① 동네 슈퍼마켓(대기업 운영 제외) ②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오프라인 중소형 슈퍼마켓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슈퍼,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③ 대형마트(이마트, 하나로클럽, 홈플러스 등) ④ 전통시장(재래시장) ⑤ 백화점 ⑥ 친환경 식품전문점(생협, 초록마을, 한살림 등) ⑦ 편의점 ⑧ 특정 제품만 취급하는 전문 판매점 (정육점, 생선가게, 과일가게, 채소가게 등) ⑨ 종합 온라인 쇼핑몰(쿠팡, 네이버쇼핑, 지마켓 등) ⑩ 식품 중심 온라인 쇼핑몰(SSG닷컴, 마켓컬리, 오아시스 등) ⑪ TV 홈쇼핑 ⑫ 기타()	① 가격이 저렴해서 ② 거리가 가깝거나 교통이 편해서 ③ 배달을 해줘서 ④ 비대면으로 구매할 수 있어서 ⑤ 식품 이외 제품을 함께 구입할 수 있어서 ⑥ 제품의 품질이 좋아서 ⑦ 제품이 다양해서 ⑧ 지역산 또는 국내산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⑨ 인증받은 곳이라서(서울시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 등) ⑩ 위생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⑪ 기타()

D4

귀하가 서울 시내 **외식업소**의 식품안전·위생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 ① 청소상태 불량 | ② 식기류 및 조리도구 비위생적인 취급 | ③ 조리과정 위생 불량 |
| ④ 반찬 재활용 | ⑤ 저가·저품질 식재료 | ⑥ 소비기한 경과 식재료 사용 |
| ⑦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 | ⑧ 식재료 보관 불량 | ⑨ 종사원 개인위생 불량 |
| ⑩ 기타() | ⑪ 우려되는 것이 없음 | |

D5

귀하가 서울 시내 **배달업소**의 식품안전·위생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 ① 청소상태 불량 | ② 식기류 및 조리도구 비위생적인 취급 | ③ 조리과정 위생 불량 |
| ④ 반찬 재활용 | ⑤ 저가·저품질 식재료 | ⑥ 소비기한 경과 식재료 사용 |
| ⑦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 | ⑧ 식재료 보관 불량 | ⑨ 종사원 개인위생 불량 |
| ⑩ 기타() | ⑪ 우려되는 것이 없음 | |

D6

귀하가 서울 시내 **길거리 음식 판매점**의 식품안전·위생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 ① 청소상태 불량 | ② 식기류 및 조리도구 비위생적인 취급 | ③ 조리과정 위생 불량 |
| ④ 반찬 재활용 | ⑤ 저가·저품질 식재료 | ⑥ 소비기한 경과 식재료 사용 |
| ⑦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 | ⑧ 식재료 보관 불량 | ⑨ 판매자 개인위생 불량 |
| ⑩ 기타() | ⑪ 우려되는 것이 없음 | |

D7 귀하가 서울 시내 **식품 무인판매점**의 식품안전·위생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청소상태 불량 ② 자판기 위생 불량 ③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④ 식품 표시 사항 위반 ⑤ 제품 보관 불량 ⑥ 기타()
⑦ 우려되는 것이 없음

D8 귀하가 서울 시내에서 판매되는 배달음식 중 식품안전·위생에 대해 우려하는 음식은 어떤 종류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육류(육회, 족발, 삼겹살 등) ② 수산물(회, 초밥 등) ③ 치킨
④ 중식 ⑤ 서양식 패스트푸드(햄버거, 피자 등) ⑥ 김밥
⑦ 도시락 ⑧ 샐러드 ⑨ 기타()

D9 귀하는 **최근 1년 동안** 구매한 식품(음식)을 먹고 다음과 같은 식중독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식중독에 걸리면 음식 섭취 후 2시간에서 12시간 후에 구토 증상이 나타나거나 24~72시간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설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할 경우 탈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복통, 구역질, 발열, 두통 등의 증상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① 있다 → **문 D9-1로** ② 없다 → **문 D10으로**

D9-1 **[문D9의 ① 응답자만]** 귀하는 식중독 증상을 1년에 몇 회 경험하십니까?

1) 가정에서 직접 조리한 음식	2) 구매한 음식
회	회

→ 구매한 음식 0회 **문 D9-3으로**
→ 구매한 음식 1회 이상 **문 D9-2로**

D9-2 **[문D9-1의 구매한 음식 경험 1회 이상 응답자만]**
식중독 증상의 주요 원인이었던 식품(음식)은 어디서 구매한 것이었습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식료품점(슈퍼마켓 등) ② 전통시장(재래시장) ③ 음식점(포장음식 포함)
④ 편의점 ⑤ 배달음식 전문점 ⑥ 단체급식소
⑦ 무인판매점 ⑧ 길거리 음식 판매점(포장마차, 푸드트럭 등) ⑨ 온라인 쇼핑몰
⑩ TV 홈쇼핑 ⑪ 기타()

D9-3 **[문D9의 ① 응답자만]**
식중독 경험이 있으셨다면 어떤 종류의 음식을 드셨습니까?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김밥 등 분식 ② 회, 육회 등 날음식 ③ 샐러드, 새싹채소 등 간편 채소류
④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 ⑤ 기타()

D9-4 **[문D9의 ① 응답자만]**
귀하께서는 식중독 증상이 있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 ① 집에서 휴식 ② 약국에서 약을 구매하여 복용 ⑤ 기타()
③ 병원 진료 ④ 입원

D10 가정에서의 식품 위생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항목에 대해 귀하의 경우와 가장 가까운 것에 표시해 주십시오.

항목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사항 없음
1) 생채소류는 염소 소독액 등으로 소독한 후 세척하여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칼, 도마는 채소, 육류, 어패류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거나 식재료가 바뀔 때마다 깨끗하게 세척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칼, 도마, 행주는 사용 후 소독한다(열탕, 소독제 등 사용)	①	②	③	④	⑤	⑥
4) 냉장식품은 5℃ 이하, 냉동식품은 -18℃ 이하 보관 온도를 지킨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냉동한 음식은 상온에서 해동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6) 해동한 음식은 다시 냉동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7) 육류나 가공류(닭고기, 오리고기 등)는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도록 충분히 가열 조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8) 조리한 음식은 조리 후 2시간 이내에 섭취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9) 조리한 음식을 냉장고에 보관할 때에는 생고기, 생채소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0) 달걀은 표시된 보관온도를 준수한다 (실온보관 : 가능한 0~15℃, 냉장보관 : 가능한 0~10℃)	①	②	③	④	⑤	⑥
11) 식재료를 구매할 때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과일·채소→ 햄·어묵 등 냉장이 필요한 가공식품→육류→어패류 순으로 구매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2) 식재료를 세척할 때 채소류→육류→어류→가금류 순으로 세척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E. 식품 정책 및 사업

다음은 서울시의 '식품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E1 귀하는 서울 시민의 식품안전을 위해 서울시가 분야별로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농·축·수산물 안전관리(잔류농약, 중금속, 방사능 등)
- ② 가공식품 안전관리(위생적 제조, 표시기준 준수, 이물관리 등)
- ③ 조리식품 안전관리(조리장 위생관리,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이물관리 등)
- ④ 식품안전 관련 소비자 교육과 홍보(안전한 장보기, 좋은 식재료 고르는 방법 등)
- ⑤ 기타()

E2 귀하는 서울 시민의 식품안전을 위해 서울시가 업종별로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접객업소(식당) 위생관리
- ② 유통판매업소(마트, 편의점) 위생관리
- ③ 제조가공업소(가공식품 생산 공장) 위생관리
- ④ 기타()

귀하는 서울 시민의 식품안전을 위해 서울시가 내용별로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안전 관련 시설지원 ② 안전 관련 교육 훈련
③ 안전 관련 지도점검 강화 ④ 기타()

다음은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식품 사업들입니다. 귀하는 다음의 각 사업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다면 각 항목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항목	문E4-1. 사업 인지도		문E4-2. 전반적 만족도 (항목별 문E4-1. 사업 인지도 '① 네' 응답자만 응답)				
	네	아니오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1) 식생활 교육 사업 : 생애주기별 바른식생활 체험 교육, 식품안전영양교육, 만성질환 맞춤교육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2) 나트륨·당 섭취 저감화 사업 : 저염실천 헬렌지, 당류저감화 캠페인, 영양표시 확인 캠페인, 나의 식생활 진단 이벤트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3) 식품안전관리 사업 : 농·수·축산물 수거검사, 음식점 위생점검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4)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사업 :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5) 취약계층 식품지원 사업 : 영양플러스, 지역아동센터 과일제공, 저소득층 도시락 배달, 결식아동 급식 지원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6) 음식점 인증제도 :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안심식당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7) 식중독 예방사업 : 1830손씻기 교육, 식중독 원인 역학조사, 어린이집 등 급식소 점검, 식중독 예측지수 문자 서비스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먹거리 사업 중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식생활 교육 사업
- ② 나트륨·당 섭취 저감화 사업
- ③ 식품안전관리 사업
- ④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사업
- ⑤ 취약계층 식품지원 사업
- ⑥ 음식점 인증제도
- ⑦ 식중독 예방사업

귀하는 서울시 식품안전관리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참여 연구진

심층 분석 보고서 집필진

윤지현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이영미	(명지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이미성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석사과정생)
박소연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박사과정생)

서울특별시

양광숙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장)
김능희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식생활개선팀장)
이해연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주무관)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SE♥UL
M! SOUL

